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최은영·김은영·구자연·조혜주·정윤경·심영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

저 자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조혜주, 정윤경, 심영규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원내공동연구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원외공동연구원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영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상교수)

기타참여자
연구협력진 **박혜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전공 명예교수)
연구협력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경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남헌주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윤제현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연구보고 2022-24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 연구(Ⅰ)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41-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과 돌봄의 중단 등을 야기했고,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아 및 돌봄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 학습의 격차, 발달의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교육·보육·돌봄의 공백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며,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경험적 논의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 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서 시작된 국내외 연구들을 기초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계획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연구로 생애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에 팬데믹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발달의 격차를 가져왔는지, 격차가 발생하였다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요인들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연구 목적에 따라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고, 팬데믹을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교사,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영유아 발달검사에 참여한 20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최소 30~60분 이상이 소요되는 발달검사를 인내하면서 수행한 영유아들, 영유아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발달검사와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들,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들을 걱정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지원해주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21
3. 연구 방법	22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36
II. 연구의 배경	39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41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일상 및 발달 변화	58
3.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61
III.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69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71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76
3.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84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89
5. 소결	103
IV. 영유아 발달 현황	107
1. 조사대상 특성	109
2. 영유아 발달 현황	123
3. 영유아 발달 격차 및 영향 요인	132
4. 소결	150

V. 논의 및 제언	153
1. 논의	155
2. 정책 제언	159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70
참고문헌	175
Abstract	197
부록	201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201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212
부록 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219
부록 4.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정책	236



표 목차

〈표 Ⅰ-3- 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원장/교사)	22
〈표 Ⅰ-3- 2〉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부모)	23
〈표 Ⅰ-3- 3〉 심층면담 문항	24
〈표 Ⅰ-3- 4〉 검사 대상	25
〈표 Ⅰ-3- 5〉 발달검사 진행 과정	26
〈표 Ⅰ-3- 6〉 K-WPPSI-Ⅳ 소검사 구성 및 내용	28
〈표 Ⅰ-3- 7〉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영역별 구성 및 내용	29
〈표 Ⅰ-3- 8〉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30
〈표 Ⅰ-3- 9〉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31
〈표 Ⅰ-3-10〉 부모 응답자 특성	32
〈표 Ⅰ-3-11〉 교사 응답자 특성	34
〈표 Ⅰ-3-12〉 자문회의 내용	35
〈표 Ⅱ-1-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 7가지 주제	42
〈표 Ⅱ-1-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	43
〈표 Ⅱ-1- 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발달의 관계에 대한 국외 주요 연구	49
〈표 Ⅱ-1- 4〉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52
〈표 Ⅱ-2- 1〉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	61
〈표 Ⅱ-2- 2〉 영유아·초등 대상 돌봄지원 사업	63
〈표 Ⅱ-2- 3〉 아동 대상 발달지원	64
〈표 Ⅱ-2- 4〉 아동 대상 돌봄지원	65
〈표 Ⅱ-2- 5〉 영유아·초등저학년 돌봄지원	66
〈표 Ⅳ-1- 1〉 응답자 특성: 부모	110
〈표 Ⅳ-1-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113
〈표 Ⅳ-1-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114
〈표 Ⅳ-1- 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115
〈표 Ⅳ-1- 5〉 이용한 개별돌봄서비스(복수응답)	115
〈표 Ⅳ-1- 6〉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전체	116

〈표 IV-1- 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자녀와 보내는 시간	118
〈표 IV-1- 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야외활동 시간	119
〈표 IV-1- 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부모의 우울감	120
〈표 IV-1-10〉 응답자 특성: 교사	121
〈표 IV-1-1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122
〈표 IV-1-12〉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122
〈표 IV-1-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123
〈표 IV-2- 1〉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123
〈표 IV-2- 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124
〈표 IV-2- 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125
〈표 IV-2- 4〉 만 2세반 영아 참여 현황	125
〈표 IV-2- 5〉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수준	126
〈표 IV-2- 6〉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127
〈표 IV-2- 7〉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128
〈표 IV-2- 8〉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128
〈표 IV-2- 9〉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130
〈표 IV-2-10〉 만 5세반 유아 참여 현황	130
〈표 IV-2-11〉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	131
〈표 IV-2-12〉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132
〈표 IV-3- 1〉 성별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133
〈표 IV-3- 2〉 성별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134
〈표 IV-3- 3〉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인지발달	135
〈표 IV-3- 4〉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	135
〈표 IV-3- 5〉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인지발달	136
〈표 IV-3- 6〉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	136
〈표 IV-3- 7〉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	137
〈표 IV-3- 8〉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	137
〈표 IV-3- 9〉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138
〈표 IV-3-10〉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139
〈표 IV-3-1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140

〈표 IV-3-1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141
〈표 IV-3-13〉 성별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142
〈표 IV-3-14〉 성별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143
〈표 IV-3-15〉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인지발달	144
〈표 IV-3-16〉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적응행동	144
〈표 IV-3-17〉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	145
〈표 IV-3-18〉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	145
〈표 IV-3-19〉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146
〈표 IV-3-20〉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147
〈표 IV-3-2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148
〈표 IV-3-2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149
〈표 V-2-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2016~2020)	163



그림 목차

[그림 Ⅰ-1-1] 2개년도 연구 내용	21
[그림 Ⅰ-3-1] 발달검사 진행 절차	26
[그림 Ⅰ-3-2] 연구의 흐름도	36
[그림 Ⅳ-2-1]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124
[그림 Ⅳ-2-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129
[그림 Ⅴ-2-1] 2022 정부 업무보고: 교육부 '출발선 단계 국가책임 강화' ...	161
[그림 Ⅴ-2-2]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	162
[그림 Ⅴ-2-3] 최근 3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164
[그림 Ⅴ-2-4] 가구 특성별 지원 과제	165
[그림 Ⅴ-2-5] 2021년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권고 현황	166
[그림 Ⅴ-2-6] 동적 능력 형성 모형(Dynamic Skill Formation)	168
[그림 Ⅴ-2-7] 자기 생산성, 정적 상호보완성, 동적 상호보완성의 관계	169
[그림 Ⅴ-2-8] 영유아 기관(시설)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과제	169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돌봄현장, 교육체계의 붕괴는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돌봄의 결핍과 공백, 사각지대가 낳는 어려움과 누적되는 격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는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2년간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양육가구의 돌봄과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1차년도(2022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영유아 개인, 가정, 기관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에 미친 영향을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함.
-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과 교육·보육·돌봄 환경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함.
-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관한 실증데이터를 조사·분석함.
- 코로나를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대응 자료 등

□ 심층면담

- 대상: 서울, 경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 면담내용: 팬데믹 이후 기관 운영 어려움, 영유아 생활 및 발달 변화 등

□ 영유아 발달 검사

- 대상: 서울, 경기 지역 만2세반, 만5세반 영유아
- 발달검사: K-WPPSI-IV(아동수행), K-Vineland-2(부모용)

□ 온라인 설문조사

- 발달검사 수행 만2세반, 만5세반 부모, 담임교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한계점

□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함. 영유아기 발달과 학습을 유기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심층분석 대상은 만 2세반, 만 5세반 영유아로 한정함. 출생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2020년초 기관(시설) 이용의 단절과 가정양육을 경험했던 만 5세 시기 유아의 발달을 추적·비교함으로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특정 시기의 변화를 밝히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가 시대의 표준 기준이 되었음.

- 온라인 유통업체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되었음.
 -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예측과 관련하여 비접촉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AI 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로봇 의존도 증가 등의 전망이 있음.
- 팬데믹 이후 가정의 양육환경 변화
-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및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도 증가하였음.
 - 자녀의 영양상태 부실,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및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과 돌봄서비스의 변화
- 기관의 인프라나 지원, 교사 개인의 역량, 가정의 상황이나 부모 역량에 따라 교육의 편차가 나타났음.
 -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범위 축소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 변화

-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일상 변화
- 국내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유아의 수면의 질 감소, 신체활동 수준 저하, 실외활동 시간 감소, 미디어 사용시간 증가 등을 보고하였음.
-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발달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유아의 신체활동 급감, 부정적 정서 경험 증가 등 신체 발달과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팬데믹에 따른 영유아 시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국한되어 있기에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증거 기반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 국내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 양육의 어려

움을 증폭시키고, 이는 영유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감염의 위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다.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 중앙 정부의 대응

- 교육부는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 등), 돌봄지원 사업(긴급돌봄 지원,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등)을 시행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발달지원 사업(드림스타트 마음방역 심리지원 등), 돌봄 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전돌봄 지원, 긴급돌봄 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초등 저학년 돌봄지원 사업(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등)을 시행하였음.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시도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교육청에서는 돌봄지원 강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원격수업 지원,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적 대응을 하였음.

3.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와 어려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과 행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함.
-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가정연계의 어려움 및 요구

- 감염병 확산 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부모의 요구를 조율하는 게 어려움.
- 가정연계를 위한 꾸러미를 배부함.

나. 코로나19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변화
 - 교실 환경이 폐쇄적으로 변화함. 이로 인해 영유아들이 개별 놀이를 하게 되고, 이를 어려워하거나 의존성을 보이기도 함. 소통이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짐.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변화
 - 놀이 중심의 운영이 어려워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 경우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짐. 현장체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경험이 부족해짐.
-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 방역과 온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 동시 운영으로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책적 지원 요구
 - 다양한 꾸러미 제공, 청소나 급간식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 투명마스크 제공 등을 요구함. 또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을 원함.

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해
 - 자녀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포감을 주기 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알려주고 있음.
-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측면에서의 우려
 - 자녀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것,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지는 점, 스스로 경험의 폭을 줄이는 점, 과도한 미디어 노출을 걱정함.
- 다른 영유아들과의 격차에 대한 우려
 -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시작함.
- 부모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
 - 영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온라인 수업 활성화,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통해 안정적인 대응을 기대함.

라.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 변화

- 코로나를 공포 바이러스에서 감기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체감함.
- 마스크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챙기고 착용함. 마스크에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생활 변화

- 영아의 일상은 칸막이로 제한된 공간에서 관계의 단절을 겪음. 장기간 가정 보육으로 자조능력이 부족해짐.
- 놀이 형태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코로나 경험을 재현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생활 변화

- 기관 이용의 단절은 양육자와의 애착을 강화시켜 기관에의 적응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친구와의 놀이를 선호하지만 배려나 양보는 부족함.
- 마스크 착용은 감정 소통을 어렵게 만들음.

□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 변화

-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외부활동, 체험활동이 부족해짐. 영유아의 무료한 일상을 대체하여 도서와 장난감을 구입하고,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을 시키며, 양육자의 힘든 일상을 대체하기 위해 미디어 과이용이 나타남.

□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 신체발달: 불규칙적인 일상생활, 부족한 활동량, 과다한 식사량, 잦은 균것질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외부활동의 감소로 전반적인 체력 저하, 폐활량 감소, 균형 감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함.
- 언어발달: 마스크의 착용으로 인해 언어발달 지연을 우려함.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소통의 단절,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 사회성발달: 또래 친구와의 만날 기회를 상실하면서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기회를 빼앗김. 거리두기로 인해 정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갈등을

조율하는 기회가 단절됨.

- 정서발달: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음.

마. 소결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가정 연계의 노력을 지속함. 기관 특성에 따라 기관(시설)폐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확진 시 긴급 돌봄의 문제가 발생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이 폐쇄적으로 변화하여 개별 놀이가 증가함. 영유아들의 적응 기간도 지연되고 건강안전 관리로 활동시간이 늘어남. 방역과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부모들은 영유아에게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달 지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사교육을 시작함.
- 코로나19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은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치료하면 낫는 정도로 변화함. 친구와의 놀이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배려나 양보를 어려워하고, 외부활동이나 체험활동의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함. 자녀 돌봄의 일환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과이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교사와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측면에서의 다양한 발달지연과 어려움을 보고함.

4. 영유아 발달 현황

가. 조사대상 특성

1) 가구 특성

□ 응답자 특성

- 만 2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0.0%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가 76.0%였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77.0%임.

- 만 5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0%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가 71.0%였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3.0%로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기관 이용 변화

-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부모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높았음.
- 만 5세반 유아의 긴급돌봄 이용은 맞벌이의 이용 비율이 높고,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구의 전반적 변화

-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49.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56.0%, 52.0%)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 69.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고,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4.0%)함.
-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64.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 사교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62.0%, 63.0%, 62.0%)하였으며, 만 5세반 유아의 TV/미디어 이용시간 72.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고,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2.0%)함.

2) 교사 특성

□ 응답자 특성

- 교사 설문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40명이 참여하였는데, 응답 교사의 연령은 20~29세가 37.5%로 가장 높았고, 현 기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들은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에 대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영유아 발달 현황

1)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38~3.62점의 분포를 보임. 만 2세반 영아의 일과적응 점수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적응 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인식

- 발달 항목별 평균점수는 3.05~3.39점으로 분포되었는데, 사회성 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각각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음.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며,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도 3.05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서조절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 만 2세반 영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에 참여한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 = 3.37)임.

□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 발달

-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10.92(sd = 15.09)로 평균 범위로 나타남.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언어이해지표가 다소 높고, 다음으로 시공간지표나 작업기억지표 순으로 특히 수용어휘나 그림명명 소검사에서 높은 경향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5.66점(sd = 17.30)임.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중 가정 하위영역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운동 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2)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 교사들은 5가지 발달 영역 중 언어발달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들은 언어발달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발달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음. 부모와 교사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영역 정서발달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정서조절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3.09로 교사(2.95)보다 높았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3.29로 부모(3.2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 만 5세반 유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에 참여한 만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 = 3.26)임.

□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

-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07.20(sd = 15.21)로 평균 범위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처리속도지표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선택하기 소검사 점수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7.70점(sd = 12.89)이었으며, 적응행동 중 사회성 영역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이 다소 높고, 운동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다. 영유아 발달 격차 및 영향 요인

1)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비교

□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 만 2세반 영아의 K-vineland-2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소근육 하위영역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적응행동 특성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은 영역별 점수, 적응행동 전체점수와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었으나 사회성 기질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지표는 약한 상관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은 초기 적응의 일과 적응, 적응행동의 생활기술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부정적 정서는 적응행동 세부 지표, 전체 점수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생활기술, 사회성과 약한 상관을 보임.

□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 만 2세반 영아의 K-vineland-2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차이가 없었고,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가계소득에 따른 적응행동검사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 항목이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2)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비교

□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 만 5세반 유아의 K-vineland-2 검사 결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적응행동의 조합 점수도 남아가 107.02(sd=13.27) 여아가 108.50(sd=12.53)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음.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특성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놀이방해와 언어이해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놀이단절과 언어이해 또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놀이단절은 작업기억, 처리속도와도 부적 상관을 보임.
-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 능력 또한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아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전체는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논의 및 제언

가. 논의

-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언어이해 지표에서 만 2세반 영아에 비해 만 5세반 유아가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만 5세반 유아의 언어이해 인지능력에 있어 격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종합점수도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평정하는 문항에서 교사보다 부모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인지발달에 있어서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음.
 -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이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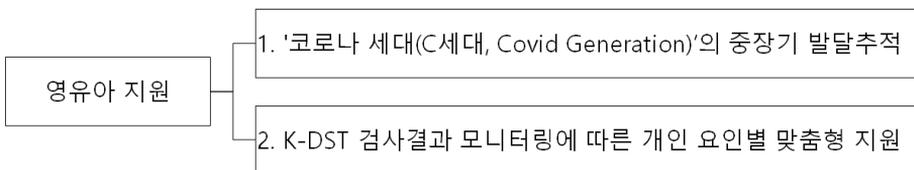
하였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구의 팬데믹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고, 팬데믹 기간 중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경우, 사교육이 증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가구가 팬데믹 기간 중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나.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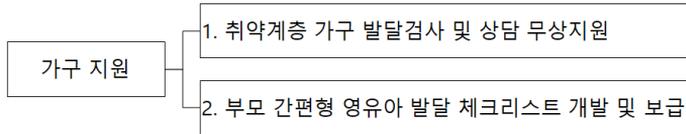
-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격차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



- 가구의 격차 요인별 특성 고려
 -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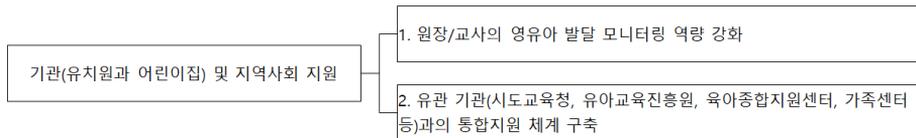
[그림 2] 가구 특성별 지원 과제



□ 기관-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

- 유아기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 영유아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과제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COVID-19(이하 코로나 19)는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세계적으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과 돌봄의 중단 등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 등으로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CDC, 2020; The World Bank, 2020).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각 집단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재난이 초래하는 결과는 재해가 일어난 사회의 시스템이나 불평등, 부패 정도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Mutter, 2016; 박미희, 2020에서 재인용). 재난의 위협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으나, 재난의 고통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는 것도 힘겹지만, 대유행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에는 더 약하였다(구인회, 2021).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돌봄 공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시간과 같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동이 포함된 가족의 경제수준과 대처 방식에 따라 위기 상황의 기증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아 및 돌봄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 그리고 학습의 격차, 발달의 지연 등이 지적된 바 있다(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보육·돌봄의 공백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며,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이 커지고, 아동의 일상생활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시간 및 부모, 가족과의 소통의 증가, 바깥놀이와 야외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는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좋아졌다는 긍정 경험과 나빠졌다는 부정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최윤경 외, 2020).

교육적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교육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가져왔고, 학교를 비롯하여 교육·보육 기관의 휴원과 휴업은 전 세계 학생의 94%, 그 중에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99%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UN, 2020). 이러한 교육 체계의 붕괴와 손실은 취약 아동의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교육과 돌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의 손실이 미치는 영향은 현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이 축적해 온 교육 불평등 해소의 기나긴 노력과 성과들을 무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이정연, 2021)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른 초등학생의 시간 사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시효, 2020),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습시간은 증가한 경우가 더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게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익중 외(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공부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시간의 변화는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 교육의 시행이 학습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박미희, 2020)되고 있다. 한편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가구의 교육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비빈곤 가구만 유의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영유아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권혜진(2021)은 보육교사의 자가 격리로 인해 학급이 통합 운영되거나, 일부 영유아들만 등원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며, 등원하지 못한 영유아와 그렇지 못한 영유아 간의 아동의 적응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장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양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Prime, Wade, & Browne, 202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실업률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 악화와 발달 지연을 유발한다(Fegert, Vitiello, Plener, & Clemens, 2020)는 지적도 있다(최윤경, 김근진, 정의중, 최영, 송신영, 202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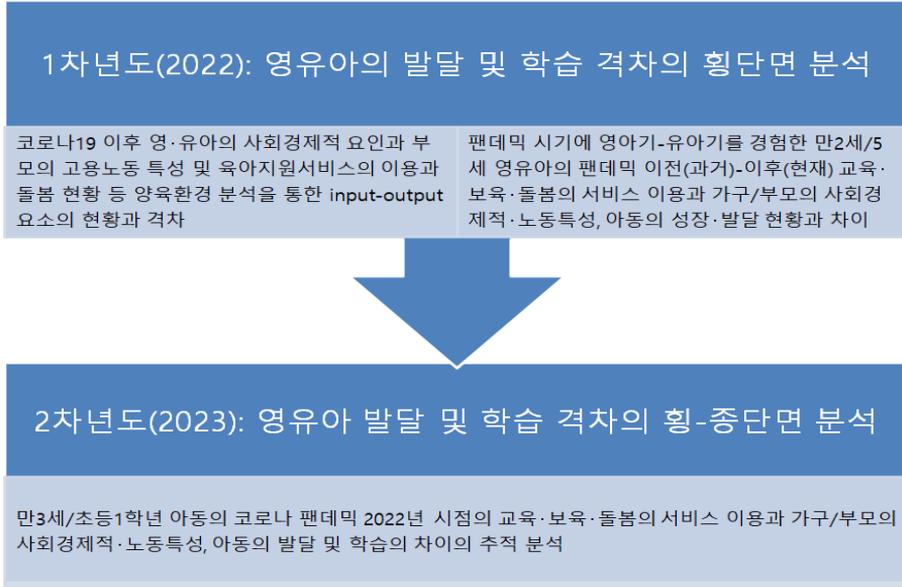
미국 질병 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도 코로나19가 만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감염 외에도 영유아의 사회, 정서, 정신 건강을 비롯한 아동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CDC, 2020) 지적하였다.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2021)이 코로나19 전후 영아의 발달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 접촉,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은 영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모방과 학습 등을 통한 영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영숙, 박정화, 정현정(2021)은 또래집단 활동이 통제된 인정결석 유아가 긴급보육을 이용한 유아보다 유아발달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하여 영유아 발달의 중요한 기반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신영(2021)도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원장 및 교사의 71.6%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

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 '낮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 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휴원과 휴업, 교육체계의 붕괴(학교 휴교 및 폐쇄 조치)는 교육·보육·돌봄의 영역과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와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운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의식주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별가정의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로써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폭력과 학대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간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모 및 가구의 고용·노동 상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의 공백과 대응력의 부재 관련 논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으며,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돌봄의 결핍과 공백, 사각지대가 낳는 어려움과 누적되는 격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인식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현황의 파악과 실증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생애초기 출발점이 되고 이후 전 주기에 걸친 영향력이 큰 취학 전-후 영유아 돌봄, 교육·보육의 공백과 그 격차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학습의 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데이터를 통한(evidence-based) 논의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영유아기에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양육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1차년도(2022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영유아 개인, 가정, 기관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I-1-1] 2개년도 연구 내용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에 미친 영향(코로나 팬데믹이 영유아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코로나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친 영향, 영유아 가족 및 타인과의 대면·비대면 접촉과 활동 등 일상생활 요인 등)을 분석한다.

둘째,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과 교육·보육·돌봄 환경 및 정책적 대응(영유아의 가정 양육 및 정책적 대응,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와 공적·사적 서비스 운영 등) 방안을 심층 분석한다.

셋째,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관한 실증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영유아 연령 그룹별(만 2세반, 만 5세반) 현황(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 및 격차를 분석한다.

넷째, 코로나를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가정 내 돌봄과 지역사회 대응 등)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육아 및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국내외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친 영향과 격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나. 심층면담

연령별(만 2세반, 만 5세반) 부모 및 교사(또는 원장)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보육·돌봄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심층면담은 서울·경기 4개 기관, 원장과 만 2세, 만 5세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원장(원감) 재직경력은 10년에서 40년까지 다양하였으며, 교사는 대부분 3년에서 10년 미만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만 5세반, 만4-5세 혼합반 교사로 총 3명을 면담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만 2세반 교사 3명, 만 5세반 교사 2명, 총 5명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1-3-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원장/교사)

구분	직위	연령	담당학급	재직경력	자격
A유치원	원장	만 65세	-	유치원 40년 어린이집 40년	-
	원감	만 41세	-	유치원 13년 어린이집 13년	유치원 정교사 2급
	담임교사	만 32세	만 5세반	유치원 9년 어린이집 9년	유치원 정교사 1급
	담임교사	만 27세	만 5세반	유치원 3년 어린이집 3년	유치원 정교사 2급
B유치원	담임교사	만 34세	만 4-5세반	유치원 10년	유치원 정교사 1급
C어린이집	원장	만 46세	-	유치원 5년 어린이집 12년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주임(부장)교사	만 27세	만 2세반	어린이집 8년	보육교사 1급
	담임교사	만 23세	만 2세반	어린이집 3년	보육교사 2급
	담임교사	만 29세	만 5세반	유치원 4년 어린이집 1년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구분	직위	연령	담당학급	재직경력	자격
D어린이집	원장	만 57세	-	어린이집 29년 7개월	사회복지사 1급
	부주임(부장) 교사	만 25세	만 2세반	어린이집 4년 4개월	보육교사 1급
	담임교사	만 28세	만 5세반	유치원 5년 어린이집 4개월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는 총 10명(유치원 4명, 어린이집 6명)이며, 자녀 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취학 자녀는 만 2세, 만 5세가 가장 많았다. 직업유무는 전업주부가 4명, 직업을 가진 경우가 6명이었다. 기관 이용 기간은 평균 2년 내외로 길지 않았다. 기관 이용시간은 전업주부는 오후 4시 이전까지 이용하였으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7시 이후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표 I-3-2〉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부모)

구분	총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	미취학 자녀연령	부모연령	취업여부	기관 이용기간	이용시간
A유치원	2명	2명	만 5세 만 4세	만 36세	전업주부	첫째: 2년 2개월 둘째: 1년 2개월	9시 10분 ~15시
B유치원	3명	2명	만 5세 만 1세	만 36세	전업주부	1년	8시 45분 ~15시 40분
	2명	1명	만 5세	만 40세	전업주부	3개월	9시 ~16시 30분
	2명	1명	만 5세	만 40세	전업주부	2개월	9시~16시
C어린이집	2명	1명	만 2세	만 40세	직장인	-	7시 30분~
	1명	1명	만 5세	만 38세	비정규직	-	8시~17시
	3명	1명	만 5세	만 44세	직장인	-	9시~21시
	2명	2명	만 5세 만 2세	만 32세	직장인	2년 3개월	8시~19시
D어린이집	1명	1명	만 2세	-	자영업	1년 3개월	9시 30분 ~15시 30분
	1명	1명	만 5세	-	회사원	4년 6개월	8시~16시

원장(감), 교사(만 2세/만 5세반),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3-3〉 심층면담 문항

대상	주요 질문
원장(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운영 및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측면 변화, 어려움, - 물리적 환경 변화, 물리적 측면 개선 및 요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연계: 연계 변화, 운영상 어려움 • 가정의 요구 대응 방법, 대응의 어려움
교사 (만 2세반/만 5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영유아 인식 - 코로나19 안내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생활 및 발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일상생활 변화, 놀이 변화,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전반적 발달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보육실)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보육실)에서 하루일과 진행 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영유아 인식 - 코로나19 안내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생활 및 발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일상생활 변화, 전반적 발달 변화, 학습 변화(사교육 횟수, 이용시간 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과 학습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전반적 발달 측면 염려, 학습측면 염려, 다른 영유아와의 격차 심화 여부

다. 영유아 발달 검사

1) 검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출생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2020년초 기관(시설) 이용의 단절과 가정양육을 경험했던 만 5세 시기 유아의 발달을 추적·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특정 시기의 변화를 분석한다.

검사 대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가구 소득, 돌봄 이용 등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밀집 지역과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연령별(만 2세반, 만 5세반)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의 연령 그룹별(만 2세반, 만 5세반) 발달 현황(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 및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연령 그룹은 만 2세반 영아 100명, 만 5세반 유아 100명이다.

〈표 I-3-4〉 검사 대상

구분	만 2세반	만 5세반	계	
중산 (9개기관)	A어린이집	9	6	100명
	B어린이집	-	7	
	C어린이집	15	-	
	D어린이집	5	-	
	F어린이집	-	6	
	G어린이집	18	1	
	H어린이집	3	-	
	I어린이집	-	4	
	A유치원	-	26	
	계	50명	50명	
저소득 (11기관)	J어린이집	4	6	100명
	K어린이집	-	12	
	L어린이집	7	1	
	M어린이집	4	-	
	N어린이집	8	11	
	O어린이집	9	-	
	P어린이집	8	-	
	Q어린이집	7	-	
	R어린이집	3	-	
	B유치원	-	13	
	C유치원	-	7	
	계	50명	50명	
계	100명	100명	200명	

만 2세반과 만 5세반 영유아의 발달현황 검사를 위해서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K-WPPSI-IV)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K-Vineland-2)를 실시하였다. 이에 2022년 9월 14일 IRB 승인을 받은 후부터 검사대상 영유아를 모집하고 3차의 검사자 훈련을 거쳐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3-5〉 발달검사 진행 과정

기간	내용	비고
~ 9.14	IRB 연구계획서 승인	
9.14 ~ 9.21	검사 참여자 모집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QR코드)
9.14 ~ 9.24	검사자 교육	3차에 걸쳐 교육
9.22 ~ 10. 31	기관별 발달검사 실시 (K-WPPSI-4, K-Vineland-2)	총 20개 기관

발달검사 참여자 모집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I-3-1] 발달검사 진행 절차



2) 검사 도구

영유아의 발달 현황 및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K-WPPSI-IV)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K-Vineland-2)를 실시한다.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5)은 총 15개 소검사로 구성되며, 전체지능지표 점수와 더불어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 유동추론, 처리속도 지표점수를 제공해 준다. 이 검사의 적용 대상 연령은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이며, 영아(2:6-3:11)는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지표에 해당되는 소검사를 실시하며, 유아(4:0-7:7)는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 유동추론, 처리속도 지표에 해당되는 소검사를 실시한다.

언어이해는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 등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고, 시공간은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해, 시각적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하며, 유동추론은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한다(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170-171)). 한편 작업기억은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요소를 평가하며, 처리속도는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으로 시각-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주의와 검사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유아의 전체지능을 통해 포괄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한다(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170-171)).

영유아 지능검사는 영유아와 검사자 일대일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영유아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서 주위의 놀잇감이 배제된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각 문항당 수행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채점되며, 검사 시간은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30~40분,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1시간 10분~30분 정도 소요된다.

〈표 I-3-6〉 K-WPPSI-IV 소검사 구성 및 내용

기본지표	소검사	문항수	내 용
언어이해	그림명명	24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측정
	수용어휘	31	
	상식	29	
	공통성	23	
	어휘	23	
	이해	22	
시공간	토막짜기	17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해, 시각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
	모양맞추기	13	
유동추론	행렬추리	26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
	공통그림 찾기	27	
작업기억	그림기억	35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을 측정. 특히 시각적 작업기억, 시공간 작업기억, 순행기억간섭을 극복하는 능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요소를 평가함
	위치찾기	20	
처리속도	동형찾기	66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 시각-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주의와 검사소요시간을 측정
	선택하기	2	
	동물짜짓기	72	

자료: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K-WPPSI-IV 기술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pp. 33-40, pp. 170-171.

K-Vineland-II는 Sparrow, Cicchetti, Balla (2005)이 개발한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II; Vineland-II)의 한국판으로, 의사소통,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영역 4개의 주영역과 11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황순백, 김지혜, 홍상화, 배성훈, 조성우, 2015). 주영역별 하위영역은 의사소통영역은 수용, 표현, 쓰기, 생활기술영역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 사회화영역은 대인관계, 놀이와 여가, 대처기술, 운동기술 영역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이며,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부적응행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3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0, 1, 2점으로 채점된다.

이 검사의 적용 대상 연령은 0세부터 90세까지이며, 0세부터 만 6세 11개월까지는 4개 주영역의 점수로 적응행동을 측정하고, 만 7세부터는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3개의 주영역의 점수로 적응행동을 측정한다. 부적응행동 영역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대상자의 적응행동을 방해하는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Vineland-II는 두 가지 양식(면담형과 보호자평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양식은 동일한 문항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평정형으로 보호자에게 평정 질문지를 제공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보호자평정지의 응답시간은 대체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표 I-3-7〉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영역별 구성 및 내용

주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내 용
의사소통	수용	20	개인이 얼마나 듣고 주의를 집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표현	47	개인이 말한 것, 정보를 제공하고 모으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기	32	글자로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개인이 읽고 쓰는 것
생활기술	개인	41	어떻게 먹고, 입고, 개인위생 관리하는지
	가정	24	개인이 수행하는 집안일
	지역사회	44	시간, 돈, 전화, 컴퓨터 직업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회화	대인관계	38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놀이와 여가	31	어떻게 놀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처기술	30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세심함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운동기술	대근육운동	41	개인이 움직이고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지
	소근육운동	36	개인이 사물을 조정하기 위해 손과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적응행동 (신체적)	부적응행동	49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방해하는 내현화, 외현화 문제와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
	결정적행동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적 행동들

자료: 황순택, 김지혜, 홍상황, 배성훈, 조성우(2015).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K-Vineland-II) 표준화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34(4), 851-876. p. 858.

마. 온라인 설문조사

발달 검사를 수행하는 영유아(만 2세반, 만 5세반)의 부모와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 기관 및 가정환경 변화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부록 1, 2참조)는 원내 멘토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만 2세반 영아의 기질을 측정(부모 평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The EAS(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였다. EAS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¹⁾.

〈표 1-3-8〉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배경	-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 경제활동 현황, 주 평균 근로 시간,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월 평균소득(세전), 팬데믹 기간 중 이용 정책, 총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 출생부터 기관 이용 기간, 현재 이용기관, 배우자 연령, 배우자 최종학력, 배우자 취업상태, 배우자 주 평균 근로시간, 배우자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배우자 월 평균소득(세전), 배우자 팬데믹 기간 중 이용 정책
가정환경 및 주양육자 변화	- 팬데믹 기간 중 경제상황과 가정 생활 변화, 팬데믹 기간 중 긴 급돌봄 이용 여부,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자녀 주 양육자, 팬데믹 기간 중 기관 휴원 시 이용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한 서비스 종류, 부모 정서조절
영유아 생활 및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 기질(만 2세반)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이용 변화 여부, 기관 변화 이유, 기관 이용 중단 이유
영유아 발달	- 전반적인 발달 상태, 영유아 정서조절

교사를 대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을 평정하는 문항을 포함했다.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Jewsuwan, Kostelnik & Luster(1993)가 개발한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PAQ)를 김현경(200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만 5세반 유아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했다. PIPPS는 총 30문항이

1) 한국아동패널 웹사이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2&board_idx=0&manage_idx=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A%B8%B0%EC%A7%88&rowCount=10&viewPage=1(인출일: 2022. 5. 31.)

며, 놀이 상호작용(9문항), 놀이방해(13문항), 놀이단절(8문항)으로 4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박서정(2004)이 번안·수정하여 타당화한 정서조절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I-3-9〉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배경	- 성별, 연령, 최종학력, 최상위 자격증, 최상위 자격증 최초 취득경로, 현재 근무기관, 현 기관 근무경력, 교육·보육 경력, 현재 담당 학급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이나 교육운영 영향정도, 긴급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교사 개인적 어려움
영유아 생활	- 초기적응(만 2세반), 또래놀이행동(만 5세반)
영유아 발달	- 전반적인 발달 상태, 영유아 정서조절

발달 검사를 수행하는 영유아(만 2세반, 만 5세반)의 부모들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수는 만 2세반, 만 5세반 모두 2명 이상이 50% 이상이었으며,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만 2세반 부모는 어린이집, 만 5세반 부모는 어린이집 54.0%, 유치원이 46.0%이었다. 자녀들의 현재기간 이용기간은 만 2세반 부모는 1~2년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으며, 만 5세반 부모는 3년 이상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모가 90% 이상이었으며, 연령은 만 2세반 부모는 40세 미만이 80%, 만 5세반 부모는 40세 미만과 이상이 비슷하였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 70% 이상이었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80% 이상이었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도 없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소득수준은 300~500만원 미만이 50% 이상이었으며, 돌봄휴가나 돌봄휴직은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인 경우가 대략 50% 이상이었다. 육아휴직은 만 2세반 부모는 이용한 경우가 30% 이상이었지만, 만 5세반 부모는 13.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만 2세반과 만 5세반 부모들의 유연근무제는 이용한 경우가 20%대, 재택근무는 30%대, 육아근로시간단축은 10%대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0% 이상이었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

화는 없는 경우가 80% 이상, 소득은 만 2세반 부모는 300~500만원 미만인 44.9%, 만 5세반 부모는 500만원 이상이 48.0%로 가장 높았다.

〈표 1-3-10〉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분		만 2세반 부모		만 5세반 부모	
전체		100.0	(100)	100.0	(100)
자녀수	1명	48.0	(48)	38.0	(38)
	2명 이상	52.0	(52)	62.0	(62)
자녀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	100.0	(100)	54.0	(54)
	유치원	-	-	46.0	(46)
자녀 현재 이용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24.0	(24)	11.0	(11)
	1년~2년 미만	52.0	(52)	24.0	(24)
	2년~3년 미만	19.0	(19)	25.0	(25)
	3년 이상	5.0	(5)	40.0	(40)
출생~현재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5.0	(15)	-	-
	1년~2년 미만	53.0	(53)	4.0	(4)
	2년~3년 미만	25.0	(25)	11.0	(11)
	3년 이상	7.0	(7)	85.0	(85)
성별	모	90.0	(90)	97.0	(97)
	부	10.0	(10)	3.0	(3)
연령	40세 미만	80.0	(80)	55.0	(55)
	40세 이상	20.0	(20)	45.0	(4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0	(9)	17.0	(17)
	대학교 졸업	70.0	(70)	64.0	(64)
	대학원 졸업 이상	21.0	(21)	19.0	(19)
취업상태	정규직	56.0	(56)	45.0	(45)
	비정규직	6.0	(6)	12.0	(12)
	자영업	16.0	(16)	16.0	(16)
	비취업	22.0	(22)	27.0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0	(76)	71.0	(71)
	외벌이	24.0	(24)	29.0	(29)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88.5	(69)	87.7	(64)
	40시간 초과	11.5	(9)	12.3	(9)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23.0	(23)	17.0	(17)
	변화없음	77.0	(77)	83.0	(83)

분		만 2세반 부모		만 5세반 부모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17.9	(14)	20.5	(15)
	200~300만 원 미만	28.2	(22)	28.8	(21)
	300~500만 원 미만	53.8	(42)	50.7	(37)
돌봄휴가 이용	이용함	20.5	(16)	27.4	(20)
	미이용	26.9	(21)	23.3	(17)
	제도없음+비해당	52.6	(41)	49.3	(36)
돌봄휴직 이용	이용함	2.6	(2)	4.1	(3)
	미이용	41.0	(32)	39.7	(29)
	제도없음+비해당	56.4	(44)	56.2	(41)
육아휴직 이용	이용함	32.1	(25)	13.7	(10)
	미이용	34.6	(27)	39.7	(29)
	제도없음+비해당	33.3	(26)	46.6	(34)
유연근무제 이용	이용함	20.5	(16)	24.7	(18)
	미이용	39.7	(31)	31.5	(23)
	제도없음+비해당	39.7	(31)	43.8	(32)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38.5	(30)	37.0	(27)
	미이용	24.4	(19)	21.9	(16)
	제도없음+비해당	37.2	(29)	41.1	(30)
육아근로시간 단축 이용	이용함	14.1	(11)	17.8	(13)
	미이용	42.3	(33)	24.7	(18)
	제도없음+비해당	43.6	(34)	57.5	(42)
(배우자) 취업상태	정규직	76.0	(76)	74.0	(74)
	비정규직	3.0	(3)	4.0	(4)
	자영업	19.0	(19)	20.0	(20)
	비취업	2.0	(2)	2.0	(2)
(배우자)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13.0	(13)	6.0	(6)
	변화없음	87.0	(87)	94.0	(94)
(배우자)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3.1	(3)	2.0	(2)
	200~300만 원 미만	11.2	(11)	4.1	(4)
	300~500만 원 미만	44.9	(44)	45.9	(45)
	500만 원 이상	40.8	(40)	48.0	(47)

교사의 연령은 20~29세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30~39세와 40세 이상이 각각 32.5%, 30.0%로 비슷하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졸업 42.5%, 대학원 이상 5.0%, 고등학교 졸업 2.5% 순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최상위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이 52.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보육교사 2급과 유치원 정교사 1급은 각각 17.5%, 15.0%이었다. 유치원 경력은 3년 미만이 50.0%로 가장 많은 반면, 어린이집 경력은 10년 이상이 35.1%로 가장 높았다. 현재 근무기관은 어린이집이 90.0%로 대부분이었으며, 유치원은 10.0%였다. 현 기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과 5~10년 미만 각각 22.5%, 1~3년 미만 20.0%, 3~5년 미만 10.0% 순이었다.

〈표 I-3-11〉 교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40)	100.0
연령	20~29세	(15)	37.5
	30~39세	(13)	32.5
	40세 이상	(12)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2.5
	전문대 졸업	(17)	42.5
	대학교 졸업	(20)	50.0
	대학원 이상	(2)	5.0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6)	15.0
	유치원 정교사 2급	(3)	7.5
	보육교사 1급	(21)	52.5
	보육교사 2급	(7)	17.5
	기타	(3)	7.5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9)	22.5
	보육교사	(28)	70.0
	기타	(3)	7.5
유치원 경력	3년 미만	(9)	50.0
	3~5년 미만	(3)	16.7
	5~10년 미만	(6)	33.3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어린이집 경력	3년 미만	(10)	27.0
	3~5년 미만	(7)	18.9
	5~10년 미만	(7)	18.9
	10년 이상	(13)	35.1
현재 근무기관	유치원	(4)	10.0
	어린이집	(36)	90.0
현 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	(9)	22.5
	1~3년 미만	(8)	20.0
	3~5년 미만	(4)	10.0
	5~10년 미만	(9)	22.5
	10년 이상	(10)	25.0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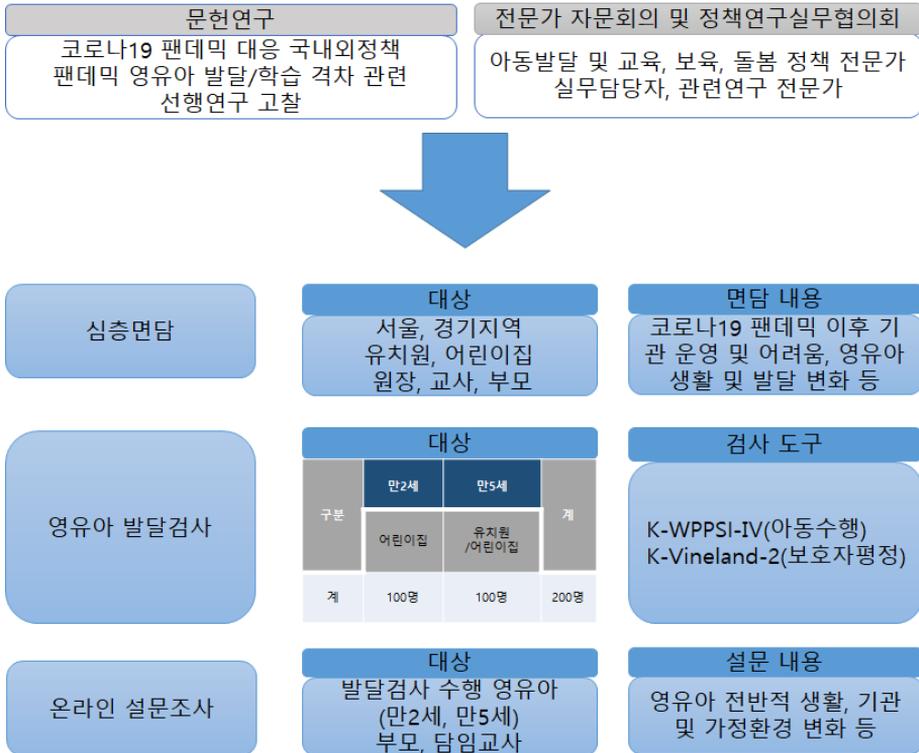
아동발달 및 교육·보육·돌봄 정책 전문가, 실무담당자, 관련연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연구에 환류하여 정책 제언에 반영하였다.

〈표 I-3-12〉 자문회의 내용

일자	참석자	자문내용
1차 자문회의(4.6)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국책연구기관 석좌연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연구표본설계, 영유아 검사 도구, 협력방안 자문
2차 자문회의(6.14)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논의
3차 자문회의(11.8)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발달검사 위탁기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달검사 결과 해석 논의
4차 자문회의(11.23)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외 연구원 2인(발달검사 위탁기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달검사 추가 분석 결과 논의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2] 연구의 흐름도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발달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말하며, 발달은 일반적으로 성숙과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발달과 관련된 개념으로 성장, 성숙,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장(growth)은 신체 기능의 양적인 변화하는 것이며, 성숙(maturation)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이고, 학습(learning)은 직·간접 경험의

산물로서 훈련이나 연습에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를 의미한다(정옥분, 2019). 학습과 발달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달 수준에 이르러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달과 학습은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유안진, 2004: 20). 학습과 발달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학습이 발달을 선행한다거나 발달을 전제한 학습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과 학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전반적인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초등학교 이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격차²⁾와 학습격차³⁾와는 달리 영유아기 발달과 학습을 유기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만 만 2세와 만 5세를 종단 추적하는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기관 간 전이, 적응, 학교준비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습 격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제한점

영유아기는 여러 발달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신체의 크기와 모습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며 운동능력이 발달하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발달과 인지적 성장이 빠르며 사회성에 있어서도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곽노의, 김경철, 김유미, 박대근, 2007; 최지현, 성현란, 2010; Santrock, 2014). 출생 후 24개월 까지를 보통 영아기라고 하는데, 영아기는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빠른 속도로 신체발달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언어능력도 발달한다(정옥분, 2019: 26).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시기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언어와 인지에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다양한 자조기능을 습득하며, 사회적 기능과 태도, 사회성발달과 함께 정서반응도 더욱 분화되어 나타난다(유안진, 2004).

이와 같이 영유아 시기는 인간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출생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기의 발

2)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김경근, 2005:3)

3) 교육적인 성취를 인지적인 성취인 학업 성적과 같은 결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권유진 외, 2021:37)

달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연구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본 연구의 심층분석 대상은 만 2세반, 만 5세반 영유아로 한정하였다. 출생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만 2세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2020년초 기관(시설) 이용의 단절과 가정양육을 경험했던 만 5세 시기 유아의 발달을 추적·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특정 시기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 0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 0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일상 및 발달 변화
- 03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II. 연구의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요소 중 사회적 건강(공공보건,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충격(경제성장률, 경제적 격차), 노동환경(실업률, 재택근무) 변화는 영유아 가정과 기관의 교육·보육과 돌봄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돌봄 공백, 교육·보육 격차, 교육·보육 콘텐츠의 원격화 등에 관련한 이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관점과 상황에 따라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모두 일어났지만 사회적, 심리적인 경험과 관계 속에서 신경발달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현시점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현상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가 시대의 표준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표 II-1-1>를 보면, 박성원, 김유빈(2020)에서는 해외문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회변화를 살펴보았는데, 7가지 주제 중 재택근무, 디지털화 등이 핵심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

〈표 II-1-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 7가지 주제

구분	주제
재난 거버넌스	글로벌, 지역, 도시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
탈세계화	중국과 미국의 대립, 민족주의 부상
사회적 건강	공공 보건, 정신건강, 가정폭력
자연환경	green job, 기후변화, 의료 및 플라스틱 폐기물
경제적 충격	경제성장률, 경제적 격차
노동환경	실업률, 재택근무
기술	디지털화, 감염병 정보화

출처: 박성원·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 p.18. [표 2-2] 해외 문헌의 코로나19와 7가지 사회변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유통업체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IT,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었다(배영임, 신혜리, 2020: 1-2). 2021년 기준 재택근무자는 114만명으로 2년전 보다 12배나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2).

교육분야에서도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교육부는 20년 4월 20일 전국 초중고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개시하였다(배영임, 신혜리, 2020: 2). 영유아들도 2020년 2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의 전면 휴원 조치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원이 중단되었으며, 휴원 기간 중 학부모의 긴급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돌봄 실시계획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1).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예측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를 예측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II-1-2〉와 같다. 간략하게 〈표 II-1-2〉에 대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시대가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상세계가 가속화되거나 디지털 인프라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다. 1인 공간 사유화, 수도권 밀집도 저하 등 현실 공간의 변화도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국수주의나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해 9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예측하였다(Forbes, 2020; 김은중·김무용, 2020:1 재인용)⁴⁾. 비접촉 인터

페이스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AI 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로봇 의존도 증가 등의 전망을 하였다.

〈표 II-1-2〉를 보면, 미국의 정치 관련 전문 잡지 폴리τικο(Politico)는 수십 명의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14가지 분야의 변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Politico, 2020; 박성원·김유빈, 2020: 30-31 재인용)⁴⁾. 최종화, 임영훈, 정일영, 윤정섭, 윤정현, 진설아, 김가은, 김단비, 이예원, 추수진, 박정호, 김지은(2020: 46) 연구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8대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비대면 접촉 증가에 따른 원격화 및 가상화가 가속화되고, 개인화와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예측을 하였다. 또한 도시 저밀화와 수도권 영향력 분산, 의료정보 개방 투명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하고 있다. 조성은, 김사혁, 이원태, 이호영, 문정욱, 이시직, 정선민, 최종화, 윤정섭, 윤정현, 이예원, 김상배, 이승주, 조동준, 김도훈, 이동진, 이소현, 김주희(2021:174)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사회적 이탈 증가, 포퓰리즘 및 반지성주의의 사회유행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을 예측하였다.

〈표 II-1-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

구분	사회변화
1) Forbes,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2020. 4. 3.)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확대(More Contactless Interfaces and Interactions)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Strengthened Digital Infrastructure)
	IoT 및 빅데이터를 사용한 보다 나은 모니터링(Better Monitoring Using IoT and Big Data)
	AI 기반 신약개발(AI-Enabled Drug Development)
	원격진료(Telemedicine)
	온라인 쇼핑 확대(More Online Shopping)

4) Forbes(2020. 4. 3).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를 김은중·김무용(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9대 변화 예측. BioINwatch(BioIN+Issue+Watch). 20-34,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재구성함. 본문에서는 p. 1 내용을 재인용함.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08&linkId=48827829&menuId=MENU01874&maxIndex=00488278299998&minIndex=0048753806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검색일:2022. 3. 14\).](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08&linkId=48827829&menuId=MENU01874&maxIndex=00488278299998&minIndex=0048753806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검색일:2022. 3. 14).)

5) Politico(2020. 4.). “The world after coronavirus”를 박성원·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재구성함. p. 30-31 〈표 2-10〉 코로나19 이후의 세상(Politico) 주요내용 요약 중 분야 내용만 재인용하여 정리함.

구분	사회변화	
	로봇에 대한 의존도 증가(Increased Reliance on Robots)	
	디지털 이벤트 증가(More Digital Events)	
	e-스포츠의 부상(Rise in Esports)	
2) Politico(2020. 4.)	상업부동산 타격, 외식산업 타격, 식량공급 타격, 외식감소, 훌룩 증가, 각 위크 불안가중, 온라인 식료품 쇼핑 증가, 자전거 활용 증가, 신도시계획 필요성 증가, 대중교통 물리접촉 최소화, 항공산업 위기, 디지털 의회의 등장, 공공분야 기술활용 확산, 공동이익을 위한 프라이버시 활용 확대, 과학/의학 전문가의 리더십부상	
3) 최종화 외 (2020)	원격화	재택근무, 이동형 라이프(위케이션), 원격의료 보편화
	가상화	온오프믹스현상 심화, 비추얼컴퍼니, 가상체험경제, 가상사회(디지털휴먼)가속화
	소유화	소소한 소유 지향, 공유경제 비즈니스 변화, 소유할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점유
	평탄화	인당 점유 공간 확대, 도시 저밀화, 수도권 영향력 분산, 대형집합시설 해체
	무인화	무인비즈니스 확대, 드론형 업무차량 등장, 캡슐형 모발리터
	개인화	1인 기반 서비스 확대, 영양소 선택 푸드, 대리지배, 패키지 관광축소
	양극화	의료서비스 격차 확대, 영상성분 선택권, 공간 무한 확장, 교육의 질
	투명화	먹거리 신뢰도 향상, 의료정보 개방, 동선공개, 위험경고 보험비즈니스 확대
4) 조성은 외(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사회적 일탈행동의 발생 가능성 / 포퓰리즘 및 반지성주의 사회적 유행 • 장기적: 생존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시 됨에 따라, 국가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 정치성향 • 시스템 전반 차원에서 비대면 사회의 도래 	

출처: 1) Forbes(2020. 4. 3).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를 김은중·김무웅(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9대 변화 예측. BiolNwatch(BiolN+Issue+Watch). 20-34,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재구성함. pp.1-3 내용 중 핵심 단어만 재인용하여 정리함.
 2) Politico(2020. 4.), "The world after coronavirus"을 박성원, 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재구성함. p. 30-31 <표 2-10> 코로나19 이후의 세상(Politico)' 주요내용 요약 중 분야 내용만 재인용하여 정리함.
 3) 최종화 외(202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I. P.46. 포스트코로나 시대 8대 변화 전망.
 4) 조성은 외(2021).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미래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29-01. p. 174.

3)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바이러스 감염의 직·간접적 영향

임신 중 산모에게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감염으로 태아의 뇌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감염된 산모의 염증반응 또는 과도한 면역반응이 간접적으로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Yockey, Lucas, & Iwasaki, 2020: 608-612; Shook, Sullivan, Lo, Perlis, & Edlow, 2022: 319-330).

역사적으로 인플루엔자 팬데믹 기간이었던 1957년 무렵의 태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조현병으로 입원하는 위험도가 높았고(Mednick, Machon, Huttunen, & Bonett, 1988: 189-192), 루벨라 감염이 성행했던 1964년에는 산모의 감염 이후 자녀들에게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조현병이 10~15배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Patterson, 2009: 313-321). 감염된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수직감염이 이루어지는 지카바이러스나 거대세포바이러스의 경우 태아의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고(Cheeran, Lokensgard, & Schleiss, 2009: 99-126; Mlakar et al., 2016: 951-958), 한편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소아에서 소두증 및 발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보고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Gordon-Lipkin & Peacock, 2019: 387-395). 소두증이 없는 출생 당시 무증상 소아에서도 산모의 감염력이 있을 경우, 과반이 이후 경도의 인지발달 저하 소견 및 청각행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Aguilar Ticona et al., 2021: e0009162).

2003년 3월 중증급성호흡기감염(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CoV)이 홍콩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전세계로 확산해 나갔고, 2003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0여건의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적어도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Lee et al., 2003: 1986-1994; Ng, Leung, Chiu, Wong, & Hon, 2004: 293-298). 중국, 특히 베이징과 광둥성에서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Pang, 2003: 3215), 이후 14,647명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독립보행, 문장완성, 숫자세기, 소변가리기 항목에서 발달지연이 있음이 보고되었다(Fan et al., 2021: 8694). 그러나 임신 중 산모의 감염으로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수직감염된

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고(Shek et al., 2003: e254), 발달지연에 대한 원인으로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및 면역반응 등의 이차적인 영향과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의 직·간접적, 사회적 영향

가) 사회적 변화와 영유아 발달

2019년 10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중증급성호흡기 감염(SARS-CoV)과 유전적으로 82%가 동일한 같은 베타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코로나19(SARS-CoV-2)로 명명되었고, 이전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범세계적 대유행을 보였다. 미국에서만 2022년 1월 기준 15,500명의 산모를 포함하여 5천 9백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2022년 10월 기준 전 세계 누적감염자수는 6억 명 이상에 이르렀다(Hopkins, 2020, 2022). 이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처럼 일부 환자군을 통한 단편적 연구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영유아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끼친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려까지 필요해진 것이다.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은 태아 곤란증(fetal distress)과 조기분만(preterm labor)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으나 감염된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은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다(Ashraf et al., 2020: 157-168). Estes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산모의 사이토카인 폭풍과 과염증 상태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처럼 신경 발달질환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루킨-6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Estes & McAllister, 2016: 772-777; Tanacan et al., 2021: 155431).

그러나 Shuffrey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산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감염 시기, 감염의 중증도는 6개월 영아의 신경 발달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에 출생한 영아들을 대조군으로 비교하였을 때 팬데믹 기간에 출생한 영아들의 경우 임신 중 코로나19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신경 발달 정도에서 대조군과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Shuffrey et al., 2022: e215563). Huang 등은 생후 6개월과 1세인 시점에서의 발달을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1세에서 소근육운동과 의사소통 항목의 발달이 유의하게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소통 항목의 발달지연은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서만 두드러졌다는 점이다(Huang et al., 2021: 662165). 또한 Deoni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3세 이하의 영유아는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인 팬데믹 이전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와 비교하여 인지기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Deoni, Beauchemin, Volpe, & D'Sa, 2021: 2021-08).

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과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고강도의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는 영유아가 가족 외의 사람을 만나고 또래와 어울리며 운동, 언어, 사회성 등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이라도 또래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후 8개월에서 3세 사이의 189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에 주간양육센터를 가거나 유치원을 다녔는지를 조사하였고 각 소아의 언어발달 정도와 집행기능을 평가하였다.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소아에서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집단 돌봄의 효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es et al., 2021: e2241).

다) 마스크의 의무착용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이 마주한 또 다른 변화는 마스크를 쓴 성인들과 소통하고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코를 포함한 얼굴 하단이 가려지게 되고 얼굴 형태를 인지하고 사교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쳐 감정적 변화를 따라가는데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의사소통 시 의미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

다. Stajduhar 등은 마스크를 쓴 얼굴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취학연령의 아동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Freud는 1세경의 영아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의 사용이 감정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사회적 발달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Stajduhar, Ganel, Avidan, Rosenbaum, & Freud, 2022: 1-10).

그러나 영유아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과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발달 단계를 습득해 나간다. 눈의 모습과 눈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얼굴을 인식하고, 눈 주변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의사전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Carnevali, Gui, Jones, & Farroni, 2022: 388). 게다가 생후 1세 무렵까지의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가족과 보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체 얼굴을 전혀 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전체 얼굴을 마주하는 기회가 증대되기도 하였다(Pandya & Lodha, 2021: 684137).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전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영유아기에 발달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Carnevali et al., 2022: 388).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가 전체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더 권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입을 가리는 불투명한 마스크를 쓴 경우, 그리고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를 쓴 경우로 나누어 실험해 보았을 때, 입을 가리는 불투명한 마스크를 쓴 경우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는 언어이해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오히려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를 썼을 때 언어의 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됨을 보고하였다. 투명한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빛의 반사, 굴절 등이 시각적 집중을 저해시켜 언어 이해와 상호작용이 저해되고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ingh, Tan, & Quinn, 2021: e13117). 이 연구의 결과와 가설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영향을 예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물론 추가적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표 II-1-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발달의 관계에 대한 국외 주요 연구

구분	연구지역	연구대상	연구결과
Wang 외 (2020) ¹⁾	중국	생후 3개월 57명	• 산모-아기 간 격리가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줌
Huang 외 (2021) ²⁾	중국 광저우	생후 6개월 546명, 생후 1세 285명	• 1세 소근육과 의사소통 발달 지연 • 의사소통 지연은 첫째 아이에서만 보임
Deoni 외 (2021) ³⁾	미국	생후 3개월에서 3세 700명	• 팬데믹 전과 비교하여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됨
Provenzi 외 (2021) ⁴⁾	이탈리아	생후 3개월 163명	• 산모 스트레스가 영아의 감정조절 발달을 저하 시킴
Davies 외 (2021) ⁵⁾	영국	생후 8개월~3세 189명	• 집단 돌봄 환경에 노출된 경우 언어 및 집행기능이 더 뛰어남
Singh 외 (2021) ⁶⁾	싱가포르	생후 2세 24명	• 마스크를 쓴 경우 단어 이해의 차이 없음 •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 사용 시 단어 이해 저해됨.
Manning 외 (2021) ⁷⁾	캐나다	산모 8602명 영아 75명	• 팬데믹 기간 산모 스트레스와 영아 뇌발달 관련성 규명
Shuffrey 외 (2022) ⁸⁾	미국 뉴욕	생후 6개월 255명	• 임신 중 코로나19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영역에서 발달이 지연

- 자료: 1) Wang, Y., Chen, L., Wu, T., Shi, H., Li, Q., Jiang, H., . . . Qiao, J. (2020). Impact of Covid-19 in pregnancy on mother's psychological status and infant's neurobehavior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cohort study in China. *BMC Medicine*, 18(1). doi:10.1186/s12916-020-01825-1
- 2) Huang, P., Zhou, F., Guo, Y., Yuan, S., Lin, S., Lu, J., . . . Qiu, X. (2021).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Infant Neurodevelopment: A Comparison Before and During COVID-19. *Front Pediatr*, 9, 662165. doi:10.3389/fped.2021.662165
- 3) Deoni, S. C., Beauchemin, J., Volpe, A., & D'Sa, V. (2021). *The COVID-19 Pandemic and Early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Development in Children Born During the Pandemic and Historical References*.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 4) Provenzi, L., Grumi, S., Altieri, L., Bensi, G., Bertazzoli, E., Biasucci, G., . . . Borgatti, R. (2021). Prenatal maternal 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nfant regulatory capacity at 3 month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doi:10.1017/s0954579421000766
- 5) Davies, C., Hendry, A., Gibson, S. P., Gliga, T., McGillion, M., & Gonzalez-Gomez, N.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during COVID-19 boosts growth in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0(4). doi:10.1002/icd.2241
- 6) Singh, L., Tan, A., & Quinn, P. C. (2021). Infants recognize words spoken through opaque masks but not through clear masks. *Developmental Science*, 24(6). doi:10.1111/desc.13117
- 7) Manning, K. Y., Long, X., Watts, D., Tomfohr-Madsen, L., Giesbrecht, G. F., & Lebel, C. (2021). *Prenatal maternal di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effects on the infant brain*.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 8) Shuffrey, L. C., Firestein, M. R., Kyle, M. H., Fields, A., Alcántara, C., Amso, D., . . . Dumitriu, D. (2022). Association of Bir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Neurodevelopmental Status at 6 Months in Infants With and Without In Utero Exposure to Maternal SARS-CoV-2 Infection. *JAMA Pediatrics*, 176(6), e215563. doi:10.1001/jamapediatrics.2021.5563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범지구적인 현상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인 다양한 방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앞선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다. 영유아의 뇌는 가변

적이고 대처능력이 뛰어나 발달이 늦어졌더라도 이후 극복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Zeanah et al., 2009: 777-785), 2년 이상 지속된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미 초래된 발달 지연의 격차가 극복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영유아의 발달이 지연될 실체적이고 또한 잠재적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소규모 집단의 연구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고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지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의 양육환경 변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양육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팬데믹 이후 영유아 가정에서의 양육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최윤경(2020)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 564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심각 단계를 발표한(2020년 2월 23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자녀 양육을 주로 가정에서 한다는 응답(73.3%)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유아자녀가구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2020: 2-3). 감염 위험 상황 및 휴원기간 동안 자녀 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두 가지를 선택한 결과에서는 부모직접돌봄(38.1%)과 아동수당 추가지원(31.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최윤경, 2020: 5).

석민아, 문인경과 이병호(2021: 201-202)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변화된 가정에서의 양육 일상을 부모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가정양육을 통한 부모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부모들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환경에서 놀이가 일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양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의 미디어 노출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자녀와의 놀이시간과 가정 내에서의 양육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들은 부모 효능감 감소 및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호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과 관련된 요구로 부모들은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정보

제공과 양육 부담이 어머니에게 편중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석민아 외, 2021: 219-222).

배은정과 박경자(2021: 447)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낮 시간의 자녀 양육에 대해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기관의 교사 49.8%, 어머니 24.9% 순이었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어머니 54.9%, 조부모 24.7% 순으로 조사되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은정, 박경자, 2021: 450).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어머니의 걱정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은정, 박경자, 2021: 451-452).

은기수(2020: 39)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녀 돌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일 평균 12시간 39분을 자녀 돌봄에 사용했는데, 이는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2배, 일하는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자녀 돌봄 분담에서의 절대적인 부담 및 시간 증가로 인해 전업주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2020: 47-48).

이동선(2021: 1)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자녀 여성노동자가 경험한 일과 자녀 돌봄에서의 변화를 진단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의 자녀 돌봄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약 80% 증가한 반면, 배우자의 돌봄 참여는 이전 같은 경우가 약 60%에 달해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일-돌봄 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동선, 2021: 3).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성노동자들은 영유아 자녀를 기관보다 집에서 직접 돌보는 비중이 높았으며, 돌봄 공백의 지속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의 5명 중 4명 이상이 자녀 돌봄을 위해 사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선, 2021: 7-8). 임아리와 문혜린(2021)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자녀 돌봄은 가정 내 돌봄에만 의존하는 현실로 퇴근 없이 계속 이어졌으며, 자녀 돌봄의 주책임도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드러났다(임아리, 문혜린, 2021: 389).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과 송신영(2021)의 연구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결과를 보면, 가구

지출에서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 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최윤경 외, 2021: 91). 팬데믹 기간 자녀양육가구의 어려움 관련 1~3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가계수입의 변화와 부-모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 유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윤경 외, 2021: 108). 팬데믹에서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돌봄 공백(자녀 혼자/자녀끼리 있음, 아픈 데 돌봐줄 사람이 없음 등) 발생, 자녀의 식사/끼니에 관한 내용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긍정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최윤경 외, 2021: 125-126).

김승희와 이한나(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하면서 가정 내 교육과 보육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한부모가족에서는 코로나19로 부모의 경제소득이 감소하여 자녀의 영양 상태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돌봄 비용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이한나, 2020: 23-24). 코로나19 발생 전후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비용을 비교한 최효미(2021: 3)도 저소득 가구의 경제상황이 열악해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표 II-1-4〉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김승희· 이한나 (2020) ¹⁾	• 미취학, 초등자녀를 둔 한부모 10명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교육과 보육시간 증가 →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 • 자녀 영양상태 부실 및 돌봄 비용 부담
배은정· 박경자 (2021) ²⁾	• 5~7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19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시간 증가 •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증가
석민아 외 (2021) ³⁾	• 만 2~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38명과 아버지 2명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로 채워지는 일상, 늘어나는 미디어 노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아지는 부모의 효능감, 신체적·정신적 소진 •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은기수 (2021) ⁴⁾	• 만 0~12세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기혼남녀 1,252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1일 평균 12시간 39분 •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분담 관련 절대적인 부담 및 시간 증가
이동선 (2021) ⁵⁾	• 만 20~59세 여성 중 현재 임금노동자 또는 2020년 3~11월 사이 임금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직자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 증가(영유아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일-돌봄 이중부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돌봄 병행을 위한 제도 여건 미비 및 실제 활용의 어려움 - 돌봄 공백 지속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 5명 중 4명 이상이 자녀 돌봄을 위한 사직 고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자녀 돌봄 변화: 긴급돌봄 활용보다 집에서 직접 돌봄 비중 증가
임아리·문혜린 (2021) ⁶⁾	• 4~7세 미취학 자녀의 주 양육자인 기혼여성 6명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돌봄에만 의존하는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근 없이 이어지는 자녀 돌봄, 늘어난 가사, 가정 내에서 자녀의 친구와 교사 역할까지 감당 • 가족 중심의 대체 돌봄: 조부모, 배우자 • 자녀 돌봄의 주책임이 여성에게 집중
최윤경 (2020) ⁷⁾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 564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기관 이용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 이상 증가함 • 감염 위험 상황과 휴원 기간에 자녀 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부모직접돌봄, 아동수당 추가지원
최윤경 외 (2021) ⁸⁾	• 만 0~9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1,000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돌봄 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 증가 • 돌봄 공백(자녀 혼자/자녀끼리 있음, 아픈 데 돌봐줄 사람이 없음 등) 발생 • 자녀의 식사/끼니 문제
최효미 (2021) ⁹⁾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 2018년: 2,298명 - 2019년: 2,334명 - 2020년: 2,367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 전후 비교에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2020년 조사):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299만원 이하) 26.7%

- 출처: 1) 김승희, 이한나(2020).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p. 17, pp. 23-2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배은정, 박경자(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p. 447, p. 450, pp. 451-45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석민아, 문인경, 이병호(2021).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가정보육 경험에 관한 연구. p. 202, p. 20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pp. 37-38, pp. 47-4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이동선(2021). 코로나19 1년-여성의 일-돌봄 변화와 전망②: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p. 1, pp. 3-4, pp. 7-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6) 임아리, 문혜린(2021). 코로나19와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자녀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 p. 374, p.38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7) 최윤경(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p. 1, p. 3, p. 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8)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p. 91, p. 12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9) 최효미(2021).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제87호(2021. 05. 28). p. 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코로나19 발생 초기 영유아 가정에서의 양육환경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및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녀의 영양상태 부실,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및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과 돌봄서비스의 변화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방역과 함께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먼 미래에도 도입이 될지 불투명한 원격교육이 도입되었다. 원격교육 도입과 함께 유아기 특성상 성인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최근 육아 및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책임의 정책으로 기관에 쏠려 있던 교육과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가정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과 교육역량 또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시작된 이래 정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정책과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대응과 어려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상황

2020년은 2019년 7월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해였다. 그러나 2020년초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 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을 통한 집단 감염 방지 정책과 더불어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경우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최윤경, 2020. 4: 1).

유치원은 2020년 코로나로 5차례에 걸쳐 개학을 연기하였고, 결국 5월말에야 겨우 개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급하게 유치원에서의 원격교육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BS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누리과정 포털인 i-누리를 통해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꾸러미 중심의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등 유치원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대응이라 모든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유치원 현장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방역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을 배포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1. 28). 코로나19 초기 어린이집 또한 장기간 휴원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 등원과 휴원을 반복하면서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긴급 보육율은 2020년 2월 27일 10.0%에서 5월 29일 72.9%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5. 29: 2).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으나, 긴급보육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차기주, 2020;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2021).

한편 정부에서는 장기간 휴원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록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기준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지속하거나 교육비 결손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나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격차가 있었으며,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4-5).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및 어려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치원에서는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업무과중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딜레마, 방역 여건 마련에 따른 어려움을 보고하였다(황예원, 김낙홍, 2021: 321).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현장에서는 수업 운영의 동반자로 양육자 지원하기, 교사 공동체로 수업 어려움 극복하기, 급성장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업무에 적용하기, 미래교육을 적극 활용하려는 마인드로 변화하기, 부모의 요구 절충점 찾기를 경험하였다(서혜정, 정하나, 2021: 108).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과 감염예방교육 실시,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건강상태 체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영아, 조미현, 2020: 1).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이해나 협조 부족, 보육교사의 업무가중, 격리공간 부족, 방역지침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이 보고되었다(박영아, 조미현, 2020: 145,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 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 불안, 감염 우려, 공포, 두려움, 걱정, 속상함, 스트레스, 예민함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이복균, 2021: 141, 임숙경, 이대균, 2021: 295, 최예린, 2020: 253). 코로나 초기 심리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은 교사보다 원장이 더 높고, 유치원 교원에 비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최윤경, 2020: 18).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휴원 기간 동안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3.51/5점 척도)는 사실이다(최윤경, 2020. 4: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원 중 명확하고 신속한 정부 지침, 감염병 상황에서의 국가 지원과 예방대책,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절, 돌봄 운영 및 원격수업과 등원 수업 병행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요구하였다(유정인, 이민영, 김경철, 2021: 249, 임숙경, 이대균, 2021: 295, 최은지, 권미량, 2021: 189).

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원격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아교육현장에 원격교육이 시행되었다. 원격교육은 주로 유치원에서 시도되었고, 어린이집은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유치원은 법상 학교로 수업일수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일수 인정이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유치원의 원격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수업일수를 초중등과 같이 원격교육으로 대체했다. 2020년에 조사한 연구결과(박영숙, 김낙홍, 신미영, 2021: 225)에 의하면, 조사대상 유치원의 86.7%가 원격교육을 시행했고, 대부분 놀이꾸러미 배송과 영상콘텐츠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내용으로는 미술활동, 기본생활습관 및 안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격교육의 어려움으로는 '놀이 중

심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박영숙 외, 2021: 241). 이는 코로나 상황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유아와 교사에게 긍정적 영향, 원활하지 않은 교류, 교사와 부모의 부담과 책임, 유아에게 부적절한 시도, 처음 경험하는 일, 시대의 변화, 비대면 수업의 양면성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하민경, 김은정,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정서적 지원, 다양한 콘텐츠나 인력 등의 교육적 지원, 장비나 플랫폼 등의 물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유정인 외, 2021: 249, 이미나, 2021: 1830).

한편 유아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동영상 매체를 활용하면서, 예비교사교육에서 미래를 대비한 교사양성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유아 주도의 수업 재구성 능력, 모의수업을 통한 비대면 수업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정하나, 서혜정, 2021: 144). 또한 원격수업 실행은 교사 경력, 디지털 인프라, 원장리더십,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변화지향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수연, 홍지인, 2021: 247), 질 높은 원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주의집중 시간도 짧고 구체적인 사물을 오감으로 느끼고 탐색하면서 발달하는 유아들의 특성상 비대면 수업은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교사들이나 부모들에게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이나 원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의 결손을 보완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원격교육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기관이나 설립유형에 따라 운영의 격차가 발생함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설립유형에 따른 교육의 질적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상황에서 기관의 인프라나 지원, 교사 개인의 역량, 가정의 상황이나 부모 역량에 따라 교육의 편차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범위 축소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유아의 신체, 언

어,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반복될 유사한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사양성교육 과정과 교사 현직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관련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일상 및 발달 변화

영유아는 재난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손상의 피해도 크고, 재난을 회복하기 위한 내적 자원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이운주, 2004), 재난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모의 돌봄에 의존함에 따라 이차적인 피해까지 입는다(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 본 절에서는 한정적이기는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행된 영유아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팬데믹이 영유아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일상 변화

영유아는 하루 일과, 식단, 수면 습관, 욕구와 공포를 체험하는 상황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재난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약성을 극대화한다(Bullock, Haddow., & Coppola, 2017). 배은정(2021)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일부 유아의 취침, 기상 시간대에 변화가 있었고, 수면과 숙면을 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스턴트식품 이용 정도도 더 빈번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했는데, 양육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수면의 질이 감소하였을 경우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잠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배은정, 박경자, 2021).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영유아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유아의 미디어 노출 위험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바깥 활동이 제한되어 신체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건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최아라, 2020).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2021)에 의하면,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의 놀이 경험도 변화했는데, 놀이 그룹의 규모와 놀이감도 축소되고, 정적인 놀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내에서는 신체접촉이 덜한 놀이가 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권진아, 김지연(2021)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조사된 도남희, 이재희, 예한나(2019)의 유아 생활실태 연구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실내 놀이시간은 증가하고, 실외 놀이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 일수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평일 놀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좌식 활동이 증가하고, 신체활동이 감소하였다고(Dunton, Do, & Wang, 2020) 보고한 바 있으며, Moore 등(2020)은 대부분 아동이 코로나19 기간 중 신체활동 수준은 낮아지고, 실외활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미디어 사용시간을 포함한 좌식활동 시간은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육 현장의 물리적 환경의 재구성 및 장기적인 가정 양육으로 인해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및 또래와의 밀접 접촉 등이 제한되어서 발달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가 어려워졌고, 언어 사용이 미숙한 영유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타인의 표정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한 아동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에 역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는 지적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거나 심하게는 학대를 가할 수 있는데(조숙인, 2020), 팬데믹 이후 부모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atrick et al., 2020).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시점에서 유럽 소아 과학

협회-유럽 국가 소아과 협회 연합(The European Paediatric Association-Union of National European Paediatric Societies and Associations, EPA-UNEPSA)의 ‘감염병에 대한 아동행동과 정서반응’ 연구결과,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자체에 대해서는 덜 취약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문제행동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감염 확산 지역 중심으로 보호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아동들에게서 집착, 산만함, 짜증과 과민함, 감염병과 친척의 건강을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몽을 포함한 불면증, 식욕 부진, 신체적 불편함, 불안과 부주의, 집착, 분리 문제가 주요 문제였으며, 만 3-6세의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집착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Jiao et al.,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들의 행동 변화에 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놀이와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제한된 놀이 경험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Sama et al., 2021).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정서적 고통,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ah, Mann, Singh, Bangar, & Kulkarni, 2020).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달라진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영유아가 짜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갈등 증가는 영유아에게 슬픔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조숙인, 2020).

상기한 바를 종합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수면, 식습관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 시기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영유아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는 놀이시간의 감소, 신체활동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 현상의 가속화는 양육자의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이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한된 환경에서의 놀이 경험 또한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다수의 보고들이 있다(부록3 참조). 이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시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국한되어 있으며,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들은 부재한 상황으로 팬데믹의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요인,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들에 대한 증거 기반의 자료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3.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가. 교육부

1)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발달과 학습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를 대상으로는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놀이중심 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으며,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사업을 통해 학습결손의 보충과 상담을 위해 읽기, 쓰기, 수학, 기초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였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초등 1~2학년 수업 자료 개발·보급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운영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기반의 영어, 국어 콘텐츠 제공하였으며, 과밀 학급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기간제 교원을 기초학력 학력수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표 II-2-1〉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 - 유아 맞춤형 콘텐츠	- 유아의 발달 특성 및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반영한 실물자료 중심의 놀이꾸러미를 활용한 원격교육 자료 개발·보급 - 누리과정포털(i-nuri)에 다양한 유형의 활동·놀이를 포함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속 개발·발굴 및 공유	유아	놀이꾸러미 24세트, 교사지원 디지털자료 제공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개학 전 새학년 준비 지원	- 기초학력, 학습결손 보충 및 상담을 위해 한글 읽기·쓰기, 수학 기초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유아, 학생	EBS 콘텐츠, 맞춤형 한글교육 자료, 인공지능 기반 수학 콘텐츠 제공
초등 1~2학년 수업 자료 개발·보급	- 학습발달단계, 학습 도움도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운영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원 -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에 따라 기기를 대여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여건을 조성, 놀이·활동 중심의 수업 자료 개발·보급	초등 1~2학년	비대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자료 (총 320종), 영역별 특화된 보드게임 (총 10종)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1)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콘텐츠 제공	- 초등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기반의 영어 및 국어 콘텐츠 제공 - 학생별 학습이력 등 개별 데이터를 축적하여 맞춤교정서비스 제공, 맞춤도서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초등 1~2학년	-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배움] 충분한 보충지도·학습 환경 조성	- 과밀학급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기간제 교원을 기초학력 학습수업에 활용	초등 1~3학년	한글 교수·학습자료 및 인력 지원
데이터요금 무과금 (제로레이팅)	-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20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금 지원	학생 전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무료 지원
학습격차 완화 - 맞춤형 학습 지원	- 학생 간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방학 중·방과 후 학습 지원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기초학력 진단·학습 콘텐츠 확대	학생	-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배움]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기반 마련	- 국가·시도·학교의 기초학력의 지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 학교와 가정에서 기초학력 진단·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과 연계된 「배·이·스·캠프」 확대	학생	진단도구 및 온·오프라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배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대면(소인수), 쌍방향 원격, 대면·비대면 방식 등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적용 - 학교급별 특성 및 학생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체능 프로그램 등 운영	학생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적용, 교과별 프로그램 제공
학습격차 완화 - 취약계층 지원	-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장애학생 장애유형별 콘텐츠 지원 및 학업중단학생 EBS 활용 학력취득기회 확대	취약계층 학생	-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채움] 정서 지원 강화	-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거점센터' 신설(17개) 및 전문상담가(교사) 대면·비대면 상담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체	-

자료: 1)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1. 1. 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p. 4, 20, 22, pp. 24-26. p. 27.
2)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1. 2. 19).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p. 41.
3) 보도자료(2020. 6. 1).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p. 1.

전체 학생 대상의 한시적인 지원도 있었는데,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20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금 지원하고, 국가-시도-학교의 기초학력의 지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하였으며,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사업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장애 학생 장애유형별 콘텐츠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거점센터' 신설(17개) 및 전문상담가(교사) 대면·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유아·초등 대상 돌봄지원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하였으며,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별 수요 맞춤형 돌봄을 운영하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도입('21. 9)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기관을 확충하였다.

〈표 II-2-2〉 영유아·초등 대상 돌봄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긴급돌봄 지원	- 돌봄 필요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초등 돌봄 제공 -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 운영	유아, 초등학생	-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돌봄] 돌봄 확대·내실화	-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및 참여대상 유아 확대, 운영 시간 다양화를 통해 시도별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 - (초등)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도입('21. 9), 초등돌봄교실 및 마을돌봄기관 확충, 「정부24」와 연계한 원스톱 돌봄 신청 시스템 전면 개통('21. 9)	유아, 초등학생	참여대상 및 운영 시간 확대, 기관 확충

자료: 1) 교육부 보도자료(2020. 2. 28).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p. 1.
2)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1. 1. 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p. 5, p. 29.

나. 보건복지부

1) 아동 대상 발달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발달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의 마음방역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기관의 치료를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2-3〉 아동 대상 발달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드림스타트 마음방역 심리지원	- 자가 심리진단을 통해 불안·우울 증상 등을 파악 -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기관의 치료를 지원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0~만12세 취약계층 아동	아동 1인 120만원 지원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예방사업)	- 건강한 아동기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증가 등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아동비만예방 실현 -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비만도 및 건강검진 평가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코로나19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내요!”. pp. 1-3.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6. 16). 아삭아삭, 푹푹푹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pp. 1-2, p. 4.

2) 아동 대상 돌봄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수급받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돌봄쿠폰(돌봄포인트)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코로나19,

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실시 하기도 하였다.

〈표 II-2-4〉 아동 대상 돌봄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아동돌봄쿠폰	-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 '20년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원	아동수당 수급 아동 (만 7세 미만)	아동 1인 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안전돌봄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돌봄 지원 -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 하도록 지원금 지원	전국 어린이집	예비비 65억 6200만 원 투입
2022년 긴급돌봄 사업	- 코로나19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
기능보강사업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코로나19, 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실시	전국 아동복지시설	116억 원 투입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p. 12, p. 14, p. 18.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p. 1.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5. 21).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생활시설 환경 개선, p. 1.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 1. 26).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p. 4.

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만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

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 건립·확대 하였다. 또한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확대하였다.

〈표 II-2-5〉 영유아·초등저학년 돌봄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확대 - '20년 9월 2일부터 연말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시간) 720시간 →840시간 - (지원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한시적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60~90%까지 확대 - 24시간 서비스 지원
돌봄공동체 활동	-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지원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활동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 268개소('20년) → 332개소('21년)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 62개소 신규 ('20년)→ 추가26개소 ('21년) - 365억원('20년)→ 456억원('21년)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 확대	-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 확대 - 가정방문 지원 강화	취약 가족	- 79개소('20년)→ 88개소('21년)

자료: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pp. 1-2.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15).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pp. 2-3.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pp. 1-2.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0. 13). 코로나 방역인력 등 5.4만가구 긴급돌봄 지원, 여가부 적극행정 선보여. pp. 1-2.

발달 및 학습 지원과 관련된 중앙 부처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원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원격 교육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요금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의 마음방역 심리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신체놀이 프로그램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 발달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모두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는데,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확대 운영, 시도별 맞춤형 돌봄 운영, 학교돌봄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 또한 돌봄쿠폰, 방역물품 지원, 취약계층 대상의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정부 지원 확대, 양육공백 가정에 한시적으로 시간 지원 확대,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시도 및 시도 교육청별로 발달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부록3 참조).

III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 0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 02 코로나19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 03 코로나19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 04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 05 소결

Ⅲ.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 측면의 변화, 부모의 인식, 영유아의 전반적인 일상과, 발달의 변화에 대해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와 어려움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영유아와 성인이 함께 지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방역관리가 강화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의 지침을 지키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거 모든 어린이집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역 점검만 따로 집중적으로 받아 봤고 그리고 이 방역 관련해서는 이제 영유아나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 교육 그걸 또 철저히 했다는 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 있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2020년에 이제 법대로 했으니까 방역 지침 내려온 대로. 학사 운영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서 공립보다 더한 사립이다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얘기를 했죠. (A유치원 원장, 2022.05.18)

방역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저희 부모님들이 원장님 너무 세게 하는 너무 관리를 너무 그렇게 세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명절 때도 빵빵 터지더라고요 한 명이 터지면 무조

건 공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늦게 공지하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어머님들이 대처하시게 뜨자마자 아침에 6시에 공지 올리고 밤 12시에 공지 올리고 검사 결과가 나면 빨리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 보내야 돼요 애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지금 저 따로 맡아줄 데가 없어요. 이러시니까 저희도 막 밤 새벽이든 언제든 계속 공지로 누가 추가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음성입니다. 어머님들 다 검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다 데려가서 병원 가주세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반을 운영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아의 하원 시간을 고려하여 반 구성을 달리하거나 통합 운영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반과 방과후과정반을 따로 구성했어요. 연령별로 따로. 그러니까 두 반이면 이 반은 교육과정반 이 반은 방과후과정 늦게 가는. 반 배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주로 방과후에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애들이 걸리니까 교육과정 아이들이 피해를 보겠는 거예요. (중략) 그랬는데 정말로 만3세가 두 반인데 교육과정만 하는 아이들이 정말 한 동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80% 이상 계속 아이들이 등원을 했고 동일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섞이면 또 이게 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합은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근데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통합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오후에 연장반에서 저희가 또 야간 연장반이 있다 보니까 야간 연장반 아이들은 어차피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 말고는 웬만하면 통합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2) 비대면 교육/행사로의 변화

코로나19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대면 교육과 행사라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줌을 활용하거나 동영상 제작을 통해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대상으로 이 비대면 교육을 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20년 신입 OT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집합으로 저희가 OT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줌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 (중략) 부모님들하고 같이 했던 거는 졸업식은 교실에는 못 들어오시고요. 저희 이제 창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창문에서 매달리셔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에 올리고 해서 보실 수 있게 또 참여 못하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행사를 저희는 다 녹화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졸업식에 요구가 있었죠. 엄마들 오겠다고. 요거가 2월에 심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그냥 엄마들은 졸업을 하고 졸업식 참석했다가 걸린 사람이 와서 이따가 가버리면 우리 교사들이 걸렸어 그럼 그 다음 아이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냥 나만 생각하지 말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머님들이 조금만 양보하시라고 우리가 영상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고. (A유치원 원장, 2022.05.18)

3) 기관 설립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치원 경영 측면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채용한 교사들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호소하였다.

개학이 계속 늦어졌었죠. 3월 27일 하겠다 했다가 이제 5월로 또 그게 가서 5월 2일로 이렇게 연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사립은 학부모가 낸 수업료로 유치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영은 그동안 안 하니깐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야 되니까 재정적인 것이 가장 문제였어요. 교사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1년을 채용을 해놨는데 이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인건비를 나가야 되나 이걸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중략)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갖고 우리가 우왕좌왕 했었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맞벌이 가구 자녀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기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임시 휴원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희가 국공립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공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또 맞벌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략)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한 반의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한 반에 3명 4명 이렇게 가족 감염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제 구청하고 저희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시 휴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 휴원하기로 확정을 하고 부모님들께 구청에서 주신 공문 안내해서 했더니 이제 어떤 어머님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거죠. 휴원을 하면 나는 어떡하나 난 당장 애를 보낼 수가 없다. (중략) 그때 임시 휴원 기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시 보육으로 진행하되 대신에 코로나 검사하고 등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절을 한 적도 있어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나. 가정연계의 어려움 및 요구

1) 감염병 확산 예방과 원아 이탈 방지 간의 딜레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부모의 요구를 조율하는 게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특별활동 외부 강사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단계에서 상주하는 내국인 영어 교사가 있는 사립 유치원으로 원아가 다수 이탈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방과후과정을 진행했던 유치원에서는 부모에게 동의서를 미리 받기도 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강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유치원에는 상주 교사가 있다. 그렇죠 사립유치원에는 원어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상주하는 내국인 영어 교사 전담 교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0월 말 정도 20년 10월 말 정도에 아주 우르르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대응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고 거리두기 또 특별활동 외부 강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그게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니까. (중략) 무심하게 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립에서는 무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조금 뭐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문자해서 바로 바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안내를 계속 해주고. 돌봄으로 보내야 될 때는 코로나 상황이 여기에서 감염이 됐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중략)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돌봄 엄마들한테도 그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현장학습과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 간에도 감염 위험이 있는 현장학습이나 특별활동 시행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도 하였다.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는 맞아 당연히 견학 안 가는 거고 현장학습 안 가는 거고 당연히 안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해가 약간 거듭되면서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요구들이. (중략) 선생님 이제 견학 좀 가면 안 될까요. 다른 데 이제 2학기 때 계획 있나요. 이렇게 여쭙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는 걸린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이 그래도 가지 않아야 된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쯤 되면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거의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현장학습을 갔으면 좋겠다. 밖에 좀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지침상 저희는 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특별활동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20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일부 부모님들은 저를 붙잡고 원장님 아이들이 심심해하는데 특별활동 언제 시작하나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2) 가정연계를 위한 놀이 꾸러미 활용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연계 교육을 위해 꾸러미 배부를 하였다. 꾸러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매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런 것 갖고 놀이를 할 수 있게. 이런 매체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어떻게 어떻게 놀라고 이런 것들 다 포장해서 재료를 넣어 엄마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20년에는 이제 놀이 꾸러미를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육 하는 또 아이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사용했던 교사가 이제 아이들하고 사용했던 교재를 매일 말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시라고 해서 놀이꾸러미 배부를 했었고. (중략) 5세 프로그램으로 저희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하는 게 또 바른 식생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놀이 꾸러미와 동시에 식자재 꾸러미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19 극복 꾸러미 만들어 가지고 또 배부해서 가족 밥상 컨테스트 인증샷 이렇게 올리시면 시상식도 하고. (중략) 부모님들 반응도 좋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연계는 좀 지속적으로 했었죠.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꾸러미 활용에 대해 부모의 반응이 좋았던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놀이재료보다 아이 혼자 놀 수 있는 놀잇감을 원하는 요구가 많았던 어린이집도 있었다.

저희는 어머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더니 뭔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놀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중략) 저희 자기격리 들어가는 기간 이럴 때도 보냈으니까 그럴 때 엄마도 아프고 다 아픈데 만들기를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놀잇감 위주로 저희는 보내드렸어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변화

1) 교실 환경의 폐쇄적 변화

2020년 3월부터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 환경이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화한 경우가 있었다. 자유놀이를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교실공간의 구분을 없앴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역을 위해 넓어진 공간에 놀이와 급간식을 위한 개인책상을 배치하고 가림막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초등학교 책상 배치처럼 유아들은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개별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거의 교구장들을 테두리로 민 거죠. 그리고 아이들 책상을 놓고 앉아서 진행을 했던 거라서 그 칸막이 사용한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영아 같은 경우는 칸막이 쓸 수가 없는 거 밥 먹는 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책상 개수를 더 늘린다거나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앉은 형태도 왜 저희 초등학교처럼 한쪽 보고 한쪽 벽 쪽 앞쪽을 보고 앉고 다 칸막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놀이감도 그 자리에 가지고 와서 놓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막 블록 큰 거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그 책상 위에서 정말 놀아야 되니까 바꾸니도 옆에 놓고 정말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한편 영아반의 경우에는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한 뒤 보육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거리 두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소독제와 체온계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구장을 약간 안전의 위험도 있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그냥 교구장을 다 벽에다 아이들이 좀 더 넓게 좀 더 이제 조금 넓은 공간에서 넓게 떨어져서 놀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줬었고 이제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아이들이랑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손 소독제 외 체크기를 각 반에 배치를 하고...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한 유치원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지침에도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단 변한 거는 영역을 없애려고 했어요. 칸막이 영역 부분을 없애려고 했고 조금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라는 거를 설치할 하라고도 하고 아이들과의 접촉 거리를 두라고 했을 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놀다 보면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만질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친밀감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거리를 두라고 하면 놀이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았고. (B유치원 교사, 2022.05.27)

또한 영역을 허물어 개방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유아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오히려 각 영역들을 활성화시킨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수업을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을 때에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뭔가를 탐색을 하고 같이 해나갔던 느낌이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밀집이나 저희가 좀 많이 안 보이게 좀 흩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다 보니까... (중략) 좀 각 영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지게 된 것 같은... (중략) 뭔가 같이 모여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놀다 보면 위험하고 좀 아이들이 혹시나 싶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다양한 영역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1, 2022.05.18)

2) 교실 환경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고충과 적응

가림막 등 변화한 교실 환경에 대해 유아들이 처음에는 불편해 했으나, 차츰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놀이를 하지 못하고 혼자 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아이도 처음에 가림막 엄청 불편하고 약간 문처럼 두드리고 오히려 장난치고 밥 집중 못하고 오히려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너 침 튀기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처음에 21년도 초반에 이제 등원했을 때는 이제 아예 지침상 다 떨어져서 개인 놀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온다는 걸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오고 오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초반에는 부모님들 민원도 엄청 많았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6시간 7시간 동안 혼자 앉아서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민원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도 싫증을 많이 내기는 했었었어요. (D 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3) 교실 환경 변화로 인한 개별 놀이로의 변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아의 놀이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방식에 있어서 개인 놀이를 많이 하게 되고, 놀이 내용은 팬데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놀이 태도에 있어서 무기력이나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올해 초만 해도 개인적으로 놀이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칸막이를 다 책상마다 설치해 놔서 저희 반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매트가 있어도 거기서 다같이 대집단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함이 있어서 각자 그냥 장난감 놀잇감 가지고 와서 각자 자리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놀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제한된 놀이다보니까 이게 저의 개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책상에서 놀이를 하기보다는 매트에서 다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만 5세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놀이는 하지 않고 다 같이 놀이는 하는데 똑같이 병원 놀이를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온계를 이용해서 열을 체크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든지 로션 모양의 놀잇감을 가지고 이제 손 소독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던지 이제 방역 수칙 계속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놀이에 투입하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지금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노는 게 뭐냐면 선생님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칠판에다 적어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작은 블록으로 탑을 쌓았더라고요. 도서관 도서실 책상처럼 그러니까 칸막이를 좀 연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풀어요. (B유치원 교사, 2022.05.27)

어른들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하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좀 무기력해지고 이제 놀이감 될 놀이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과하게 의존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유아의 놀이가 변하면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개인 놀이로 인해 소통이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는 함께 하는 활동을 좋아하면서도 이전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많고 양보나 배려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혼자 놀이를 하다 보면 상호작용이 없어서 아까 이제 발달이랑 연결될텐데 그 부분에서 예전에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아이 또래 활동 없었기 때문에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듬 활동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놀이하는 거에는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도 이제 모듬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놀이 상황에서 나는 갈등이 엄청 많아요. (중략) 이런 양보 이런 배려 같은 게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변화

1) 유아의 적응 지연

개학이 지연되고 등원과 휴원을 반복하면서 유아들의 적응기간도 함께 지연되었다. 또한 안전 관리로 인해 하나의 활동시간이 길게 늘어난 경향이 있었다.

보통 3월이면은 아이들이 적응도 되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4 5 6월 때는 점점 심화되면서 같이 수업도 해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히 그런 다양한 아이들에 빠지거나 유치원을 결석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신학기가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화장실 문제도 저희가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양치하는 것도 각을 또 혼자서 이렇게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27명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녀오다 보면 이제 시간도 조금 늘어지는 것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서로서로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2) 대집단 활동의 감소

코로나로 인해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함께 모이는 것을 지양하다보니 대집단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놀이 중심보다는 약간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랑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이야기 나온 것들을 공유해 줄 때만 뭔가 이게 늘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는 않고 저희 유치원은 지금은 각자 좀 떨어져서 놀이하고 그것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서로 알려주려고 할 때 그럴 때 살짝 보였다가 다시 놀이하고... (중략) 예전에 대그룹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듣는 활동은 거의 안하게 되는 것,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대 그룹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소그룹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A유치원 교사2, 2022.05.18)

ebs 방송 그걸 보는 거와 함께 이제 저희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뭔가 이 시기에 좀 활동이나 아니면 뭔가 색 물감이나 좀 저희는 좀 색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뭔가 자연물과 함께하는 거 색과 함께하는 것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원격으로 바로 줌으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는 그냥 뭔가 아이들한테 키트나 이런 뭔가 재료나 이런 것들 같이 보내서 책자 같은 거 보내가지고 매일 매일 해볼 수 있도록 약간 했었던 것 같고... (A유치원 교사1, 2022.05.18)

아이가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20년에는 이제 놀이 꾸러미를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육 하는 또 아이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사용했던 교사가 이제 아이들하고 사용했던 교재를 매월 말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시라고 해서 놀이꾸러미 배부를 했었고 그리고 놀이 꾸러미 외에 저희는 이제 가정 연계로 식생활 프로그램 하는 게 있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3) 특별활동 및 현장체험활동의 감소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다보니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되던 특별활동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바깥놀이와 현장체험의 기회가 제한되고 축소되면서 유아의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지기도 하였다.

20년 21년에는 현장학습 특별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이제 특별활동 강사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시켰거든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바깥 놀이도 많이 제한이 되고 이제 견학 같은 거는 아예 작년에 못 가서 아이들이 올해 제가 느끼는 게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생활을 하면서 느껴져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견학까지 못 가도 그래도 산책까지라도 좀 갈 수 있는 범위가 조금은 덜 제한됐으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원에 있으면 이제 제한된 공간이고 이제 맨날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자연이 오는 그것도 못 보고 이제 옥상 놀이터에 있는 그 정도로만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산책 나가도 재미, 나비 이런 것만 봐도 엄청 좋아하고 신기하고 하더라고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일과에서의 변화는)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야외 활동 외부 강사가 오셔서 안에 이제 프로그램 이행하는 거가 없어졌다. 생겼다. 야외활동 견학 현장학습을 간다. 안 간다. 이제 그런 게 가장 눈에 도드라지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고 부모들도 또 느끼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자꾸 제약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게 가장 아쉬워요.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는 맞아 당연히 견학 안 가는 거고 현장 학습 안 가는 거고 차여서 당연히 안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해가 약간 거듭되면서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요구들이... (A유치원 원장, 2022.05.18)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좀 바깥 공기를 쐬야 돼서 옥상에서 놀기는 했는데 그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산책이 주는 게 저는 되게 크다고 느끼는 게 신체 발달 부분에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다.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1) 방역 업무의 가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하나의 이유는 방역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온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방역 때문에 교사들은 수시로 놀잇감을 소독해야 하고, 식판과 비닐을 닦고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유사시에 가정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계속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다.

(놀잇감을) 바로바로 소독하고 세척해서 다시 재공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팬데믹 동안에는 우선 코로나에 대한 안전도 그렇지만 개인 막 움직이거나 돌아다니거나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안전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약간 선생님들이 수업 같은 거는 이미 늘 해오던 거니까 기본적 베이스로 계속 깔고 가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위생 같은 것들도 솔직히 손이 가는 것들은 더 많아지긴 하죠. 아무래도 그 식판하고 비닐하고 그리고 그 비닐 같은 것들도 다 또 가림막 같은 거 닦고 나서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일이죠. (A유치원 교사 1, 2022.05.18)

누가 확진되면 이제 각 가정마다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자가 키트도 말씀드려야 되고 이제 연락을 항상 해야 돼가지고...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놀이를 하다가도 아이들도 위생이나 건강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바로 부모님이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아이들한테 집중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2) 긴급보육시 이중 부담

긴급보육을 위해 기관에 나오는 영유아들과 가정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영유아들 모두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었다.

긴급 보육하는 친구와 가정 보육하는 친구를 둘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중략) 진행될 일을 이제 두 번 나눠서 하는 그런 긴급 보육 아이들과 가정 보육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신경 쓰는 그것이 더 많아졌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이들은 와서 제가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그 원격 수업도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중략) 전체 다 전면 원격 수업이라도 긴급 돌봄은 받아주기 때문에...제가 오롯이 혼자 있었으면 정말 뭐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쌍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B유치원 교사, 2022.05.27)

원격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따로 이제 중간에 오는 아이들 따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어찌 됐든 원격 수업에 들어가 돌봄 자체를 담임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민원이 조금 많았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책적 지원 요구

1) 다양한 놀이 꾸러미 및 보조인력 지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요구가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꾸러미들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나 급간식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유아들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투명마스크 제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아이들이 나가지 않아도 원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좀 단순한 놀이는 아이들도 너무 이제 지겹기도 할 거고 해서 그런 데서도 보내주시고 요리 활동이나 그런 거 키트도 보내주셔서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결이나 위생에 대해서는 계속 청소하고 계속 이제 아이들이 없을 때나

그래서 계속 청소하고 아까 조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시간에 계속 청소를 하게 되니까. (중략) 보조 인력 같은 게 조금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급간식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럴 때라도 조금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만2세반이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 마스크를 투명 마스크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이제 언어 발달 할 때 입 모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지 않냐 가격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부모님도 마스크 비용 때문에 원장님이 다 지원하시는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2) 구체적인 방역지침 필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원장의 재량이 아닌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 상황을 대처하기를 희망하였다.

최근에는 정말 다 내려오는 게 다 원장의 재량이에요. 모든 것이 원장의 재량 책임 책임도 원장이 다 져야 되고 전염병 관리 책임자잖아요. (중략) 원장의 재량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기는 해요. (중략) 지침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전화해서 계속 알아보고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단다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칸막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이 칸막이부터 아크릴 칸막이 재질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린이집 책상 크기에 맞는 이런 규격화된 그런 칸막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저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거거든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3.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해 변화

자녀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포감을 주기 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알려주고 있었다. 자가격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공포심을 주는 거는 사실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거 걸리면 정말 위험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렇게 코로나라는 병이 지금 우리가 유행을 하고 있어 근데 걸리면 아플 수 있대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것들이 몇 가지 있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집이 아닌 다른 시설에 가서 격리를 완전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이제 아기 아빠가 아기들한테 우리 코로나 이제 이렇게 함부로 손 안 닦고 이렇게 누구랑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면 엄마랑 헤어져서 너 격리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손 닦고 마스크하고 이거 되게 잘해야 되는 거야.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외부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항상 제약이 있고 어딜 가든지 이제 아이들이 원래 하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폐쇄되어 있거나 딱 갔다가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하죠.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이렇게 코로나 전염된 키즈 카페도 자주 가고 이렇게 공원도 자주 가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못 타거나 키즈 카페를 못 가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마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키즈 카페가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감염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그런 데를 잘 안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불편해하긴 하죠.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나.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측면에서의 우려

1)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녀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였다. 근육량도 줄어들고 코로나 이전에는 잘 버티던 운동량도 힘겨워 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체력이 정말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제가 좀 애들을 데리고 좀 돌아다니

는 스타일이어서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아예 못하니까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2~3시간도 운동을 하면 잘 버텼는데 이제는 호흡도 떨리고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앉아 있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확실히 그 예전보다는 근육량 같은 것도 현저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동안 밖에 생활 안 할 때는 조금 살도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줄자로 재보면 좀 사이즈도 줄기도 하고 몸무게도 자주 재거든요. 집이 이제 그래서 이제 바디에 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2) 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고, 기관의 단체 활동 감소로 인해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를 우려하였다. 특히, 기관 초기 적응이 오래 걸리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 부모들의 걱정이 많았다.

올해 3월에 입학했죠. 근데 거의 한 달 한 달 반을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관을 다니면서 사회성이 길러지잖아요.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게 지금 이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게 빨리 이게 돼야 하는데 이걸 겪지 못하고 학교를 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엄마들이 너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아쉬운 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별 활동도 없고 어디 견학 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C어린이집 부모1, 2022.06.03)

지금은 그냥 집에서 혼자니까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걸 잘 안 해요. 애들끼리도 놀이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랑 만날 기회도 거의 진짜 거의 없어서 어린이집 친구가 사실은 거의 다거든요. 마스크를 쓰면서부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눈만 보이고 사실 그 아이가 누군지를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3)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감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입모양이 보이지 않는 점, 비대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언어

를 학습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지는 점을 염려하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시키고 이쁘다고 하시니까 말 소통이 잘 돼서 애들이 말도 빨랐고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말도 지금 개월 수보다 좀 느린 편이고요. 원래 이 개 월수에는 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아직 한 두세 가지밖에 안 해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둘째 같은 경우에도 셋째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보내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입 모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 주세요. 물 했는데 입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랑 이제 언니들은 물 주세요라고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물을 줘버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고... (B유치원 부모2, 2022.05.27)

4) 경험의 제약

자녀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탐색활동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스스로 경험의 폭을 줄이는 점이 걱정이라고 하였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전에는 아무거나 가서 나무 꽃잎 막 흠도 막 파고.. 딱 만져보고 일단 하고 이러면서 놀았는데 요새는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신발을 못 신을 것 같으니까 빨아주면 좋겠다고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왜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못하게 해 왜 밖에도 못 나가면서 왜 이것도 못하게 해 그랬던 것 같아요. 공원에 가도 꽃 하나를 더 보는데 그런 질문들이 줄었어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심지어는 왜 채는 저기에 혼자 떨어져 있어 이런 질문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5) 미디어 사용 증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도 증가하게 되는 점을 염려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접하지 않도록 관리하던 가정에서도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고, 생활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진짜 가끔 디즈니 영화를 한 번씩 보던지 tv 미디어 이런 거를 보는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시간이 안 가니까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tv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에 있다 보면 미디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집에서 할머니가 봐주셔도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아이랑 같이 막 뭔가를 뛰어서 놀아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tv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접하는 게 되게 길어졌어요. 지금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니깐 tv를 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이것저것 경험하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어린이집도 다 다니는 시기인데 집에만 머물러 있어서 tv 보는 게 정말 습관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6) 취학전 유아의 학교적응 우려

영아보다는 유아를 둔 부모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더 많았다.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유아 시기의 부모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성 부족으로 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학교 가기 전 딱 1학년 이럴 때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아직 어려서.. 엄마가 엄마 보호 아래에 있어도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했지만 약간 좀 연령이 있는 엄마들은 더 이렇게 학습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사회성에 있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거의 3년 동안은 거의 공부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순간 되니까 책 글씨도 읽고 자기 혼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니까..어렸을 때처럼 되게 친한 친구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셔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걱정이 크죠.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대면적인 선생님을 원했는데..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영어 같은 경우에도 발음을 따라 해야 되는데 화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게 안 되더라고요 볼 수도 입을 보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나이니까 학습적인 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저는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어서 공부에 대한 강박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자유롭게 만들기 같은 걸 많이 해보자. 남자애다 보니까 이렇게 글 쓰기를 싫어해요. 그림 만들기 같은 거 과학상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나마 남자애라서 다가오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다. 다른 영유아들과의 격차에 대한 우려

1) 불안감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계속 고립되어 지내다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맞벌이 가정은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애를 집에 데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뭘 시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불안감도 생기고 아이도 지루해하고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체험 수업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루하니까 무료하다가 선생님 오시면 1대1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영어 수업 특별 활동하는데...하나도 쓸 데 없는 거..사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부듯하고 역시 이거를 시켰더니 보람이 있어 이런 다기보다 내가 진짜 왜 애를 공부를 시키지 이렇게 혼자 막 그러다가도 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불안하고 원해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이거라도 하면 좋지 이렇게 했다가 저도 오락가락하게 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회사를 갔다 오고 나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밖에 못 놀아 주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엄마들은 맘먹고 진짜 tv를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보다 한 살 어린 아이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으로 엄청 같이 다니더라고요.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막 불안한 마음으로 오면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저희 엄마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2) 방문 형태의 사교육 선호

기관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예체능 분야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채워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정에서 미디어 접촉을 줄이기 위한 수단,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방문 교사를 통한 사교육 활동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가 별로 공부를 해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친구를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코로나 때문에 학습적인 거에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학원에서 하자니 유치원처럼 재미있거나 이제 즐거운 놀이 방식이 아닌 쓰고 학습적인 부분을 하다니..애는 스트레스를 받아서..집에서는 놀이감 있는 걸 해주려고 하는데..저는 못하고 아이는 화를 내고... (B유치원 부모2, 2022.05.27.)

학습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이런 예체능 쪽을 제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예체능 쪽을 제가 못하기도 하고..집에서 제가 해 주는 거에는 많이 한계가 있다 보니.. 사교육도 이제 거의 다 그런 걸로 보내고 있어요. (B유치원 부모3, 2022.05.27)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고학년이 되면 학습 때문에 운동회라든지 그런 게 즐겁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2~3년 동안 거의 못했으니까 그런 추억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친구 누구 친구랑 너 그거 했잖아 라는 거 자체를 기억을 못하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나중에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라. 부모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 소규모 온라인 수업 활성화

정부에 바라는 점은 영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점,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통해 안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에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은 집중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소수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활성화돼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정확한 수칙이 있어서..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마련이 되었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도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고..막 그랬거든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져서 매뉴얼이 생겨서 내려온다면 저희들도 보낼 때는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 변화

1) 공포 바이러스에서 감기 바이러스로의 인식 변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년, 21년, 22년 사이의 사회적 변화는 영유아에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보다는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치료하면 낫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의 경험이 있거나 친구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확진이 되면 아프고, 격리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20년 처음에는 이제 아예 등교 등원도 중지됐고 이제 친구들이랑 부딪히거나 친구들이랑 이제 접촉만 해도 걸리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엄청 조심하고...(중략) 아이들도 그렇게 좀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1년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조심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22년도 저희 초반에는 아이들이 이제 감염됐다 치료된 유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걸려도 약간 아픈 감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조심하자...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작년까지는 코로나 하면은 되게 무서운 병이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서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내리거나 벗는 친구한테 되게 좀 공격적으로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반은 지금 저 포함해서 다 한 번씩 코로나를 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도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감기처럼 그냥 잘 치료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지금은 조금 더 생활과 긴밀해진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아무래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무서운 거예요. 걸리면 아파요. 집에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해하는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1, 2022.05.18)

부모 역시 자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성장하면서 초기의 불안감에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만 5세지만 이제 5, 6, 7세 3년간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조금 큰 아이들이니까 인지도 되고 상황 정황 이런 것도 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가능한 나이다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뉴스에도 죽는다 약이 없다 이래서 아이들도 뭔가 모르게 불안감 같은 것도 많이 조성이 되고...(중략) 지금은 5세 6세 7세 이제 3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아요.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겁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마스크 벗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진짜 완전 마스크랑 한몸이 돼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코로나 걸리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겁도 엄청 났었는데...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3월에 등원했을 때도 이제 그때도 이미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성장했어서 그냥 거의 일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2년 차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이제 함께 가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직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2) 영유아의 일부가 되어버린 마스크

영아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음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된 영아들의 거부감은 이제 익숙해져서 친구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올려주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챙기고,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48개월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이제 필수로 착용을 하게끔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부모님들마다 거부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면 빼서 버리거나 착용하면 울음을 보인다가나 했어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영아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보통 집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줄 알아요. (중략) 친구들이랑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마스크를 써야 돼라고 했을 때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마스크를 써야 해 하면 왜 써야 되는지 싫다고 싫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던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0세 때 마스크를 안 썼다가 이제 만 2세 돼서 이제 아이들 생일 다 지나서 이제 마스크를 써서 요즘은 마스크 없으면 못 나가 마스크 내려간 친구들 있으면 저희 먼저 발견하기 전에 선생님 애 마스크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스크 올려 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냥 삶의 일부처럼 지내고 있어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감기에 걸려도 마스크를 쓰라고 선생님이 하셔도 절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이게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자기가 다 알아서 쓰고 다니는 약간 그렇게 됐어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불편함으로 변화하였고, 마스크 강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습관이 돼서 지금은 안 쓰면 어색해하고요. 안 쓴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 왜 안 썼냐고 아직 이제 아이니까 이제 언제 써도 되고 지금 살짝 야외에서는 해제됐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더우면 잠깐 벗어도 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D 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학교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해도 아직은 자기가 익숙지 않은 사람 앞에서 벗는 것 자체가 좀 꺼리는 것도 있고... (C어린이집 부모1, 2022.06.03)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밖이니까 벗어도 돼. 해도 아니야 그냥 쓰고 있을래 그냥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것 같고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어른들은 밖에 나갔다가 아차 싶으면 마스크를 안 껴지 다시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은 우선 입부터 가리게끔 해서 차에서 내려서도 지금 이제 마스크가 야외에서는 풀렸잖아요. 근데도 이제 무조건 입으로 손을 막아버리니까 안쓰렵죠.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마스크 강박처럼 이제는 밖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거 벗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돼 써야 돼 사람도 있으니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저희 아이는 그래서 걸리기 싫어하고 좀 그래서 이 마스크에 집착이 생겼어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생활 변화

1) 영아의 일상생활 변화

가) 칸막이로 단절된 일상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일상도 거리두기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투명 칸막이로 영유아들의 일상은 제한된 공간에서 관계의 단절을 겪어야만 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칸막이를 설치를 했잖아요. 원래 그전에는 다 같이 즐겁게 얘기하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마스크를 꺼야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사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빨리 먹고 치워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엄마 친구들과 같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애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한동안 또 풀려져서 엄마 그거 없어졌어 같이 먹었어 그러면서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염려증이 생기더라고요.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영아들이기도 하고 계속 밥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림막을 사용을 했고 아이들도 이제 가림막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거기서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이도 처음에 가리 막 엄청 불편하고 약간 문처럼 두드리고 오히려 장난치고 밥 집중 못하고 오히려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너 침 튀기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안에 속 들어가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가림막이 뒤편에 있었을 때는 이거 언제 치워요? 이거 언제 버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걸 정리해서 자료실에 넣는 걸 보고 애들이 왜 또 그걸 안 버리고 또 빨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제 그런 행동을 다 관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느꼈고 애들은 또 환경 범위가 넓은데 막 걸리적거리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지연

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양치 지도를 중단하거나 용이한 제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장기간 가정보육을 이용한 영아들의 경우, 자조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양치 지도는 일단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이거를 머금고 있다가 뱉거나 이런 걸 아직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소 치약인데 먹을 수 있는 치약을 사용해...(중략) 코로나가 한창 심해졌을 때는 양치 활동을 잠깐 중단했었다가 이제 6월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코로나 때문에 양치하는 이제 방법이나 그런 것조차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좀 보이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아이들이 개월수에 따라서 이제 손 씻기도 가능하고 밥도 스스로 먹기도 가능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아이들이 많이 엄마한테 어머님들이 집 그래서 다 해주시다시피 해 주시니까 다 의존하게 되고...(중략) 코로나가 없었을 시기에 비하면 아이들이 그런 거 하면 사소한 게 조금씩 많이 뒤쳐진 게 느껴졌었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2) 영아의 놀이 변화: 감염병 관련 놀이 증가

혼자놀이를 주로 하는 영아들의 발달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놀이 형태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놀이에서의 특정 행동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놀잇감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놀잇감을 혼자 가지고 놀아요. 협동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모습보다는 좋아하는 놀잇감으로 친구들이 모이거나 그 놀잇감으로 종종 다투는 경우가 있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아이들이 책상에서 놀이를 하기보다는 매트에서 다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놀이를 하다 보니 까 만 5세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놀이는 하지 않고 다 같이 놀이는 하는데 똑같이 병원 놀이를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온계를 이용해서 열을 체크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든지 로션 모양의 놀잇감을 가지고 이제 손 소독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던지 이제 방역 수칙 계속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관찰하고 그 걸 그대로 놀이에 투입하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생활 변화

1)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

가) 기관생활 적응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단절은 양육자와의 애착을 강화시켜 기관에의 적응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기질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랜만에 등원을 하니까 이제 더 엄마랑 애착이 더 많이 강력하게 생겨가지고 더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살짝 낯가림이 원래 낯가림이 없던 친구들도 낯가림이 많이 심하게 생기고...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아주 활발하고 그런 아이인데도 저랑 둘만 있다가 기관에 오니까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게 너무 나랑 집에만 있어서 이렇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거의 한 두달 가까이 적응 기간이 필요했구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이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좀 일찍 하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 스스로 좀 오늘은 이제 더 놀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았구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이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 적응의 단계가 좀 더 떨어지기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면 적응을 하다가 또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쉬다 보면 더 뭔가 출근하거나 이런 거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집에서 쉬다가 다시 오면 또 그 적응을 다시 리셋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느낌인 걸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 오거나 그래도 금방 적응하는데 아

무래도 좀 예민한 친구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7세 정도 되면 기간을 많이 다녔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리 불안이 있더라고요 애착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 외동인 아이의 집은 2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상황에서 유치원에 오려고 하니 굉장히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보고 싶다고 7살 남자 아이인데 지금도 좀 울고 그렇더라고요. (B유치원 교사, 2022.05.27.)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적은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느껴보지는 않았어요. 이 코로나 상황 아니었을 때도 적응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이 두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여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아이가 팬데믹 이전에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게 느껴지는 거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A유치원 교사1, 2022.05.18)

2) 유아의 놀이 변화: 친사회적 행동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는 모둠으로 놀이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조용한 기질의 일부 유아들을 제외하고, 개별 놀이보다 친구와의 놀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친구와 놀이를 하면서 배려나 양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아들보다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할 때에도 이렇게 모둠이나 이런 놀이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이제 책상도 떨어져서 이제 놀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칸막이를 다 책상마다 설치해놔서 저희 반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매트가 있어도 거기서 다같이 대집단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함이 있어서 각자 그냥 장난감 놀잇감 가지고 와서 각자 자리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놀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제한된 놀이다보니까 이게 저의 개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약간 기질이 조용하다든가 이제 먼저 친구한테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다

가가기 힘들어하지 그냥 보통 다른 아이들은 혼자서 노는 거 익숙해 하기 보다는 그냥 좀 다른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어 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개인 놀이를 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놀고 정리하고 그냥 약간 몬테소리처럼 자기 교구 활동 하고 그냥 다시 갖다 놓고 이러는 이런 저기 좀 이런 놀이를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둠 활동으로 놀이 중심 하면서 뭐를 같이 만들어보고 서로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제 내가 아까 갖고 논 건데 왜 네가 또 가져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양보 이런 배려 같은 게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3)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감정 전달 및 표현의 어려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읽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교사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1:1로 눈을 맞추어 유아들이 보다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마스크도 착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힘들어하고 이 마스크로 인해서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감정만 친구들한테 좀 강요를 하고 친구한테 배려를 한다든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조율하는 부분이 좀 힘들어 보여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아이들도 앉아서 들을 때 좀 더 뭔가 집중을 해야 되거나 선생님들한테 딱 이야기를 할 때 입을 바라보면서 보통 듣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도 더 관심이 쏠리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할 때는 교실에서 변화된 거는 예전에는 좀 더 아이들한테 멀리 있는 친구더라도 누구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듣고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했다면 지금은 각자 계속 가가지고 지금 눈을 보면서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제공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그만큼 더 자기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라.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 변화

1) 일상생활의 제약

가)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단절은 영유아의 불규칙한 수면시

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부모들은 이를 영유아의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너지 방출할 데가 없으니까 아기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트램폴린도 들고 미끄럼도 들고 했어도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남아서 눈이 말뚱말뚱하더라고요. 항상 거의 10시, 11시에 자서 잠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D어린이집 이집 부모1, 2022.06.08)

3~4시간씩 놀던 아이들인데 이 집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다 이렇게 발산이 안 돼서 그런가 일찍 눕혀도 침대에서 잠을 못 들더라고요. 그러가지고 그냥 놓고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안 당겨져 가지고 아침에 좀 많이 피곤해지고 요새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도 걱정이예요. (B유치원 부모3, 2022.05.27)

나) 외부활동, 문화체험 등의 경험 부족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나 체험활동 부족으로 영유아 시기의 경험 부족에 대한 걱정과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외부 활동이나 체험 활동 같은 거 거의 못 했거든요. 이제 네 살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재미 붙일 텐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정부 시설이던 놀이공간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키즈 카페도 자주 가고 이렇게 공원도 자주 가고 했는데 (중략) 엄마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키즈 카페가 너무 가고 싶는데 지금 감염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그런 데를 잘 안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불편해하긴 하죠.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워터파크도 가고 어디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영화도 보고 모든 일상들이 다 멈췄잖아요. 울스톱이 되다보니...(중략)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굉장히 높았고 또 이렇게 할때 보면 짜증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다) 영유아의 무료한 일상을 대체한 도서와 장난감, 그리고 사교육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서와 장난감을 구입하고, 학습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과 만족감으로 사교육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관에 가서 규칙적으로 생활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스스로 이것저것 하고 노는 방법을



알면 덜 그럴텐데 아이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루를 조금 무료하게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략) 거의 집에서 가정 보육했죠. 주로 이제 책이나 장난감 이런 거 많이 사서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집이 거의 키즈 카페 수준으로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집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어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재택근무니까 그냥 책 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중략) 집에서 제가 이렇게 케어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선생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략) 무료함도 덜해지고 한참 이제 습득할 때 조금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감에 자꾸 사교육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아마 원에 진득하니 다녔으면 안 했을 거예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라) 양육자의 힘든 일상을 대체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TV나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거나 학습적인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는데, 과이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집에 있을 때는 거의 TV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TV를 틀어주거나 이렇게 그래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TV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학습적인 부분이나 놀이라든가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효과가 난 게 안 줘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미디어 매개체에 의존하게 되고 너무 이제 그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 그거를 또 동선을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시간이 안 가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TV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에 있다보면 미디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미디어의 과이용에 대한 우려로 이용시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미디어에 습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대부분 우려하고 있었다.

30분 이내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더 보고 싶어 할 때도 많고 또 이제 아버는 계속 틀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오며 가며 다른 거 하면서 계속 내내 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짧으면 3~4시간이고 길면 진짜 하루 웬 종일 보는 날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제 몸이 지치면 지칠수록 근데 안 그래도 가정 보육하는 엄마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반사더라고요.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눈 떠서 유튜브 잘 때까지 유튜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엄마 심심해 그럼 아니야 숙제할 거 해 아니야 이거 할까 하다가 엄마는 그래도 심심한데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저도 뭐 간식 주다가 뭐 하다가 할 게 없어 그럼 유튜브 한 시간 하면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 집은 한 시간만 보는 거야 하는데 여차하차에서 그럼 엄마가 너 이거 했으니까 30분 더 추가로 줄게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다른 아기 엄마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다 바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직 아기니까 엄마랑 둘이만 완전히 집에 있으면 놀아준다고 해도 뭐 옛날 같으면 다 엄마가 놀아주긴 했지만 이런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이것저것 경험하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어린이집도 다 다니는 시기인데 집에만 멀뚱이 있어서 정말 하루 종일 만화도 보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이제 TV 보는 게 정말 습관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마.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1) 신체발달 측면의 변화

가) 적은 활동량으로 인한 비만 우려

불규칙적인 일상생활, 부족한 활동량, 과도한 식사량, 잦은 군것질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규칙적인 일상이 없고 어디 나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놀고 싶으면 늦게 자고 특히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은 스타일이고 활동적이고 먹는 것도 식사량도 많은 친구인데 (중략) 이제 조금 적당히 뛰어놀고 뭔가 좀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굉장히 체격도 크지만 굉장히 통통한 편이에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저희 아들이 코로나 터지고 잘 먹기도 하지만 몸무게가 한 15kg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좀 체가 겁이 많아서 애들을 작년에는 한참 많이 쉬었어요. 애들 최대한 가정학습 기간을 다 썼거든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심심하니까 군것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나)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한 체력 저하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활동의 감소는 전반적인 체력 저하, 폐활량 감소, 균형 감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4월 말부터 부모님 동의 얻어서 산책을 진행을 하는데 걸지를 못해 만 5세 애들도 못 걷고요. 만 3세 애들도 그냥 주저앉아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밖에서 이렇게 좀 뛰놀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폐활량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못하고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다보니 좀 이렇게 건강 면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라나는데 발달에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진짜 태어나서 병원에 간 게 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체력이 정말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제가 좀 애들을 데리고 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아예 못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거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2~3시간도 운동을 하면 잘 버텼는데 이제는 호흡도 딸리고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만 5세를 맡으면서 느껴진 게 아이들이 신체적인 발달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깥 놀이도 제한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좀 신체적인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체육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예 제한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손에 힘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2) 언어발달 측면의 변화

가) 언어치료 영유아의 증가

언어발달의 민감기인 영아기에 마스크의 착용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확한 입모양을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져서 교사, 부모 모두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있음을 우려하였고, 주위에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음을 걱정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만 1세에서 만 2세 되는 시기나 만 2세에서 이제 중반되는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고 단어 사용을 하고 문장 사용을 해서 언어 발달에 조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정확한 입모양 보기가 어렵고 마스크 사용을 하면 어른들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안 들려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좀 더 그 시기에 좀 더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의 언어 발달이 늦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첫째 아이는 말이 다 트고 말을 온전히 잘할 때 이게 마스크를 쓰게 돼서 상관이 없었지만 발음이 아직 어눌하고 완전히 발달이 되지 않은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 모양도 보이지 않고 친구들의 말소리도 정확치 않을 거고 언어 발달에 분명히 마스크를 쓰는 생활들이 이렇게 지장을 줬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이제 한창 말이 트이기 시작하는 애들도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눈만 마주칠 수 있지 이제 입 모양을 보진 못하니까 계속 발음을 교정을 해주려고 해도 그게 그냥 애들은 소리만 듣고 이걸 그냥 따라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이제 말을 한참 배우는데 듣고 입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거를 따라하고 구현이 돼야 되는데 가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들으니까 특정 발음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을 가르쳐도 아이가 잘 쉽게 따라 하지 못해서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나) 또래 상호작용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소통의 단절,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에는 더 잘 소통되던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야기를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모습들이 조금은 더 있더라고요. (A유치원 교사2)

아이들이 이렇게 표정들이 안 읽어지고 그럼 자기 말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당히 폭발력이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번씩 내려서 입 모양을 보여줘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시키면 바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오히려 친구한테 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냥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잘 되니까 그냥 미안 괜찮아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말로도 그냥 친구들이 서로 이제 싸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 소리 같은 것도 적게 들리고 하다 보니까 더 친구들한테 왜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나 미안하다 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스크로 인해서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친구들도 짜증을 많이 내고 이제 나는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언어는 일단 확실히 발음이 지연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3) 사회성발달 측면의 변화

가)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단절은 또래 친구와의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마스크로 인한 장벽은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익숙해질 기회도 빼앗아 버렸다.

혼자니까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애들끼리도 놀이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랑 만날 기회도 거의 진짜 거의 없어서 어린이집 친구가 사실은 거의 다거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친구를 봤다 안봤다는 반복하다보니 친구 이름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죠. 얼굴도 몰라요. 콧 짙어서 친한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특히나 유아기 때는 다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친한 친구들이 생기는데 친한 친구들이 없어요. 이 친구 누구인 줄 알아 그러면 큰애 같은 경우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하도 안 본 기간이 오래되고 가끔씩 가다 보니까 (중략) 다른 애도 제 아들을 못 알아보고 제 큰애도 이 친구 누구지를 모르고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잘 모르고 저희 딸도 막연하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럼 시연이 누구랑 제일 친해 우리 친구들 이름을 딱히 모르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여자 아이 한 명이 2개월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은 했는데 가정학습을 2개월을 쓰신 거죠. 그랬더니 이미 아이들은 다 친해진 상황이라서 아이가 이제 조금 걸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예민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얘기를 이미 친구들이 다 친해진 것 같다. 나는 혼자 논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놀렸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도 아이들 편일 것 같다. (B유치원 교사, 2022.05.27)

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타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는 책상으로 물리적 간격을 유지하고, 혼자 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갈등을 조율하는 기회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책상을 하나씩 떨어뜨려놨었어요. 학교처럼 그렇게 거리 두기도 좀 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놀이도 혼자 조금 놀 수 있게 해서 거리를 많이 두고 그렇게 이제 혼자 놀이를 하다 보면 상호작용이 없어서 아까 이제 발달이랑 연결될 텐데 그 부분에서 예전에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아이 또래 활동 없었기 때문에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첫째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래서 심지어 자꾸 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제 친구랑도 트러블이 잠깐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약간 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4) 정서발달 측면의 변화: 감정 조절 및 표현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친구들과 부딪히기도 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성격 차이이기도 한데 아들은 조금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아들은 코로나 터지고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딸은 반면에 엄마 나가고 싶어 어린이집 가고 싶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활동 이렇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짜증이 많이 늘었어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신체 활동 특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쌓인 게 좀 많더라고요. 아프게 해서 그냥 때려버리고 싶다. 속상하게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B유치원 교사, 2022.05.27)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좀 약간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또 많이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많이 감정적으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5. 소결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 측면의 변화, 부모의 인식, 영유아의 전반적인 일상과, 발달의 변화에 대해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집단의 영유아들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하원시각 이후의 통합반 운영을 자제하였고, 줌을 활용하거나 동영상

의 제작을 통해 비대면 교육/행사로 전환하여 가정과의 연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가정연계의 일환으로 꾸러미를 배부하여 지원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특성 외에도 공사립별 특성에 따라 기관(시설)폐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맞벌이 가구 이용률이 높은 기관(시설)에서 확진 시 긴급 돌봄의 문제 등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격적인 시행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동시에 겹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은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화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개인 책상을 배치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개별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림막 등 변화한 교실(보육실) 환경에 대해 유아들은 불편함에서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혼자 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에 싫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아의 놀이도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둠 놀이보다는 개별 놀이로 변화되고, 팬데믹을 반영한 놀이가 증가했으며, 놀이 태도에 있어서 무기력하거나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등원과 휴원을 반복하면서 영유아들의 적응 기간도 지연되었고, 건강안전 관리로 인해 하나의 활동시간이 길게 늘어난 경향도 보였다. 한편 교사들의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었는데, 조금 더 세심히 챙겨야 하는 일상 방역과 온·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해 부모들은 영유아에게 두려움보다는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자녀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단체활동 감소로 인한 사회성 발달 지연, 마스크의 사용과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감소로 언어발달의 통로가 적어지는 등을 염려하고 있었다. 한편 영아보다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습 측면에서의 우려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아 부모들은 한글, 글쓰기, 공부에 대한 재미, 학교에서의 적응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지내다보니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의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은 20년 초기 공포에 가까운 느낌보다는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치료하면 낮은 정도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의 거부감에서 마스크 강박이라고 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영유아들도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의 일상생활은 방역으로 인한 투명 칸막이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용이한 제품으로 대체됨으로써 자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혼자놀이를 주로 하는 영아들의 특성상 놀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으나 코로나19의 경험이 놀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유아들은 기관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보다는 기질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는 개별적인 놀이를 강화하였지만 조용한 기질의 일부 유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아들의 친구와의 놀이를 그리워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친구와의 놀이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배려나 양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전의 유아들보다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에서의 영유아들의 생활은 불규칙한 수면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외부활동이나 체험활동의 부족으로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걱정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도서와 장남감 등을 구입하고, 학습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과 만족감으로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거나 학습적인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는데, 과이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발달 측면에서는 적은 활동량으로 인한 비만 우려,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한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언어발달의 민감기인 영아들의 마스크 착용이 상대방의 정확한 입모양을 보기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져서 교사와 부모 모두 언어발달에 지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회성발달 측면에서는 또래 친구와 만날 기회의 감소, 마스크로 인한 장벽은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서로 익숙해질 기회를 단절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개별 책상을 사용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혼자놀이를 주로 경험한 유아들이 친구를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

게 하고 있다. 정서발달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친구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심층면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인 즉, 영유아 개인 특성, 가정 특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 등을 고려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와 비교하고,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영유아 발달 현황

- 01 조사대상 특성
- 02 영유아 발달 현황
- 03 영유아 발달 격차 및 영향 요인
- 04 소결

IV. 영유아 발달 현황

본 장에서는 발달검사 참여 대상 영유아의 부모와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배경과 발달 현황을 살펴보고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K-WPPSI-IV, K-Vineland-2)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 특성

가. 가구 특성

1) 응답자 특성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부모의 자녀수는 2명 이상이 52.0%였고, 1명이 48.0%를 차지하였다. 만 2세반 자녀의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이용 기간은 1~2년 미만이 52.0%였으며, 1년 미만 24.0%, 2~3년 미만 19.0%, 3년 이상 5.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부모는 모가 90.0%였고, 부모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80.0%였으며,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0.0%로 가장 높았다. 한편 부모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56.0%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가 76.0%였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근무가 88.5%였다.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77.0%로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23.0%)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부모의 소득 수준은 300~500만 원 미만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 원 미만 28.2%, 200만 원 미만 17.9% 순이었다.

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2.6%, 돌봄휴직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6.4%, 육아휴직 이용은 미이용이 34.6%,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33.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유연근무제 이용은 미이용과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39.7%, 재택근무 이용은 이용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다. 육아

근로시간 이용 또한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3.6%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6.0%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19.0%, 비정규직 3.0%, 비취업 2.0% 순이었다. 배우자의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7.0%로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13.0%)보다 높았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300~500만 원 미만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500만 원 이상 40.8%, 200~300만 원 미만 11.2%, 200만 원 미만 3.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 응답자 특성: 부모

단위 : %(명)

구분		만 2세반		만 5세반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00)	100.0	(100)	100.0
자녀수	1명	(48)	48.0	(38)	38.0
	2명 이상	(52)	52.0	(62)	62.0
현재 이용기관	유치원	-	-	(46)	46.0
	어린이집	(100)	100.0	(54)	54.0
현재 이용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24.0	(11)	11.0
	1년~2년 미만	(52)	52.0	(24)	24.0
	2년~3년 미만	(19)	19.0	(25)	25.0
	3년 이상	(5)	5.0	(40)	40.0
출생~현재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5)	15.0	-	-
	1년~2년 미만	(53)	53.0	(4)	4.0
	2년~3년 미만	(25)	25.0	(11)	11.0
	3년 이상	(7)	7.0	(85)	85.0
성별	모	(90)	90.0	(97)	97.0
	부	(10)	10.0	(3)	3.0
연령	40세 미만	(80)	80.0	(55)	55.0
	40세 이상	(20)	20.0	(45)	4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	9.0	(17)	17.0
	대학교 졸업	(70)	70.0	(64)	64.0
	대학원 졸업 이상	(21)	21.0	(19)	19.0
취업상태	정규직	(56)	56.0	(45)	45.0
	비정규직	(6)	6.0	(12)	12.0
	자영업	(16)	16.0	(16)	16.0
	비취업	(22)	22.0	(27)	2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	76.0	(71)	71.0
	외벌이	(24)	24.0	(29)	29.0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69)	88.5	(64)	87.7
	40시간 초과	(9)	11.5	(9)	12.3

구분		만 2세반		만 5세반	
		사례수	%	사례수	%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23)	23.0	(17)	17.0
	변화없음	(77)	77.0	(83)	83.0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14)	17.9	(15)	20.5
	200~300만 원 미만	(22)	28.2	(21)	28.8
	300~500만 원 미만	(42)	53.8	(37)	50.7
돌봄휴가 이용	이용함	(16)	20.5	(20)	27.4
	미이용	(21)	26.9	(17)	23.3
	제도없음+비해당	(41)	52.6	(36)	49.3
돌봄휴직 이용	이용함	(2)	2.6	(3)	4.1
	미이용	(32)	41.0	(29)	39.7
	제도없음+비해당	(44)	56.4	(41)	56.2
육아휴직 이용	이용함	(25)	32.1	(10)	13.7
	미이용	(27)	34.6	(29)	39.7
	제도없음+비해당	(26)	33.3	(34)	46.6
유연근무제 이용	이용함	(16)	20.5	(18)	24.7
	미이용	(31)	39.7	(23)	31.5
	제도없음+비해당	(31)	39.7	(32)	43.8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30)	38.5	(27)	37.0
	미이용	(19)	24.4	(16)	21.9
	제도없음+비해당	(29)	37.2	(30)	41.1
육아근로시간 단축 이용	이용함	(11)	14.1	(13)	17.8
	미이용	(33)	42.3	(18)	24.7
	제도없음+비해당	(34)	43.6	(42)	57.5
(배우자) 취업상태	정규직	(76)	76.0	(74)	74.0
	비정규직	(3)	3.0	(4)	4.0
	자영업	(19)	19.0	(20)	20.0
	비취업	(2)	2.0	(2)	2.0
(배우자)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13)	13.0	(6)	6.0
	변화없음	(87)	87.0	(94)	94.0
(배우자)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3)	3.1	(2)	2.0
	200~300만 원 미만	(11)	11.2	(4)	4.1
	300~500만 원 미만	(44)	44.9	(45)	45.9
	500만 원 이상	(40)	40.8	(47)	48.0

만 5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부모의 자녀수는 2명 이상이 62.0%였고, 1명이 38.0%로 나타났다. 만 5세반 유아가 현재 다니는 기관의 이용 기간은 3년 이상이 40.0%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부모

의 성별은 모가 97.0%였고, 부모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55.0%였으며,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45.0%, 맞벌이가 71.0%,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근무가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3.0%로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17.0%)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이 50.7%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28.8%, 200만원 미만 20.5% 순이었다.

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9.3%, 돌봄휴직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6.2%, 육아휴직 이용은 미이용이 39.7%,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6.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유연근무제 이용은 미이용과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3.8%, 재택근무 이용도 미이용과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1.4%로 가장 높았다. 육아근로시간 이용 또한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7.5%로 가장 높았다. 한편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20.0%, 비정규직 4.0%, 비취업 2.0% 순이었다. 배우자의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94.0%로 대부분이었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500만원 이상이 48.0%로 가장 높았다.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이용 33.0%, 가끔 이용 22.0% 순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부모는 긴급돌봄을 많이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긴급돌봄 이용은 맞벌이의 이용 비율이 높고, 외벌이의 경우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1-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단위 : %(명)

구분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많이 이용하였다	계(명)
만 2세반		45.0	22.0	33.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1	21.1	36.8	100.0 (76)
	외벌이	54.2	25.0	20.8	100.0 (24)
	χ^2	2.135(2)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18.8	12.5	68.8	100.0 (16)
	미이용	45.2	29.0	25.8	100.0 (31)
	제도없음+비해당	54.8	16.1	29.0	100.0 (31)
	χ^2	11.167(4)*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50.0	13.3	36.7	100.0 (30)
	미이용	47.4	26.3	26.3	100.0 (19)
	제도없음+비해당	34.5	24.1	41.4	100.0 (29)
	χ^2	2.882(4)			
만 5세반		39.0	24.0	37.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2	22.5	42.3	100.0 (71)
	외벌이	48.3	27.6	24.1	100.0 (29)
	χ^2	2.946(2)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16.7	27.8	55.6	100.0 (18)
	미이용	39.1	21.7	39.1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40.6	18.8	40.6	100.0 (32)
	χ^2	3.349(4)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25.9	18.5	55.6	100.0 (27)
	미이용	43.8	18.8	37.5	100.0 (16)
	제도없음+비해당	36.7	26.7	36.7	100.0 (30)
	χ^2	2.888(4)			

* $p < .05$, ** $p < .01$.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팬데믹 기간 중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했던 만 2세반 영아 부모 67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22.4%, 민간 육아도우미 4.5%, 자녀의 아버지, 친인척, 아이돌보미, 기타가 각각 1.5% 순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는 자녀의 어머니 54.2%, 조부모 31.3%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거나 유연근무제에 비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각각 60.0%, 63.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유연근무제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

다. 재택근무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반 유아 부모의 경우($N = 63$), 어머니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 여부, 유연근무제 이용, 재택근무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V-1-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모	조부모	민간 육아 도우미	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기타	계(명)
만 2세반		67.2	22.4	4.5	1.5	1.5	1.5	1.5	100.0 (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2	31.3	6.3	2.1	2.1	2.1	2.1	100.0 (48)
	외벌이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9)
	χ^2	12.966(6)*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60.0	0.0	20.0	0.0	0.0	20.0	0.0	100.0 (5)
	미이용	47.8	52.2	0.0	0.0	0.0	0.0	0.0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63.6	13.6	9.1	4.5	4.5	0.0	4.5	100.0 (22)
	χ^2	23.933(12)*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52.6	31.6	5.3	0.0	0.0	5.3	5.3	100.0 (19)
	미이용	42.9	50.0	7.1	0.0	0.0	0.0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70.6	11.8	5.9	5.9	5.9	0.0	0.0	100.0 (17)
	χ^2	12.077(12)							
만 5세반		82.5	12.7	-	3.2	-	-	1.6	100.0 (6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6	17.1	-	4.9	-	-	2.4	100.0 (41)
	외벌이	95.5	4.5	-	0.0	-	-	0.0	100.0 (22)
	χ^2	4.062(3)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75.0	12.5	-	0.0	-	-	12.5	100.0 (8)
	미이용	57.1	28.6	-	14.3	-	-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89.5	10.5	-	0.0	-	-	0.0	100.0 (19)
	χ^2	10.756(6)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75.0	16.7	-	0.0	-	-	8.3	100.0 (12)
	미이용	60.0	30.0	-	10.0	-	-	0.0	100.0 (10)
	제도없음+비해당	84.2	10.5	-	5.3	-	-	0.0	100.0 (19)
	χ^2	5.511(6)							

* $p < .05$.

4)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팬데믹 기간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만 2세반 영아의 부모와 만 5세반 유아의 부모 모두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64.0%, 71.0%로 높았다.

〈표 IV-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한적 있음	이용한적 없음	계(명)
만 2세반	36.0	64.0	100.0 (100)
만 5세반	29.0	71.0	100.0 (100)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세반 영아의 부모 36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서비스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91.7%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7.8%, 민간 육아도우미 19.4%,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5.6% 순으로 나타났다. 만 5세반 유아 부모(N=29)도 조부모의 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5〉 이용한 개별돌봄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명)

만 2세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민간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명
만 2세반	91.7	27.8	19.4	5.6	(36)
만 5세반	82.8	24.1	10.3	6.9	(29)

5)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가구의 전반적 변화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5점 척도 기준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평균이 3.86점으로 조사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소득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 총 지출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은 변화 없다는 응

답이 각각 42.0%, 56.0%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변화 없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약간 감소했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과 학원 이용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50.0%, 51.0%였으며, 자녀의 수면 시간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68.0%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61.0%, 50.0%를 차지하였다.

종합하면,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49.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56.0%, 52.0%)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은 69.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다. 한편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4.0%)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전체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가구 총 소득	만 2세반	9.0	20.0	49.0	20.0	2.0	-	2.86	100.0 (100)
	만 5세반	6.0	12.0	64.0	15.0	3.0	-	2.97	100.0 (100)
가구 총 지출	만 2세반	2.0	16.0	26.0	41.0	15.0	-	3.51	100.0 (100)
	만 5세반	1.0	8.0	29.0	49.0	13.0	-	3.65	
자녀양육비 지출	만 2세반	2.0	4.0	42.0	37.0	15.0	-	3.59	100.0 (100)
	만 5세반	1.0	4.0	32.0	51.0	12.0	-	3.69	
사교육비 지출	만 2세반	2.0	5.0	56.0	26.0	11.0	-	3.39	100.0 (100)
	만 5세반	1.0	7.0	30.0	46.0	16.0	-	3.69	100.0 (100)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3.0	13.0	35.0	39.0	10.0	-	3.40	100.0 (100)
	만 5세반	4.0	6.0	58.0	22.0	10.0	-	3.28	100.0 (100)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	3.79	100.0 (100)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	3.83	100.0 (100)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만 2세반	1.0	2.0	28.0	48.0	21.0	-	3.86	100.0 (100)
	만 5세반	0.0	0.0	28.0	48.0	24.0	-	3.96	100.0 (100)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	2.73	100.0 (100)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	2.61	100.0 (100)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만 2세반	7.0	3.0	50.0	15.0	6.0	19.0	3.12	100.0 (100)
	만 5세반	9.0	12.0	49.0	21.0	3.0	6.0	2.97	100.0 (100)
학원 이용시간	만 2세반	6.0	4.0	51.0	14.0	5.0	20.0	3.10	100.0 (100)
	만 5세반	5.0	17.0	43.0	23.0	9.0	3.0	3.14	100.0 (100)
자녀의 수면 시간	만 2세반	3.0	22.0	68.0	7.0	0.0	-	2.79	100.0 (100)
	만 5세반	1.0	10.0	81.0	7.0	1.0	-	2.97	100.0 (100)
부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61.0	16.0	5.0	-	3.05	100.0 (100)
	만 5세반	1.0	11.0	72.0	12.0	4.0	-	3.07	100.0 (100)
모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50.0	11.0	6.0	15.0	3.02	100.0 (100)
	만 5세반	2.0	6.0	52.0	10.0	4.0	26.0	3.11	100.0 (100)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5점 척도 기준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이 평균 3.96점으로 조사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소득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 총 지출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51.0%, 46.0%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또한 변화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약간 감소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다.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과 학원 이용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9.0%, 43.0%였으며, 자녀의 수면시간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81.0%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72.0%, 52.0%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64.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 사교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62.0%, 63.0%, 62.0%)하였으며, 만 5세반 유아의 TV/미디어 이용시간 72.0%(약간증가+매우 증가)로 매우 높았다.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2.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외벌이 가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낮고(만 2세반 54.2%, 만 5세반 48.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없는 비율이 높기(만 2세반 64.0%, 만 5세반 71%)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시기의 돌봄 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자녀와 보내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3.79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7.9	38.2	27.6	25.0	3.67	100.0 (76)
	외벌이	0.0	0.0	33.3	16.7	50.0	4.17	100.0 (24)
	<i>t</i>	-2.183*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3.83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4.2	42.3	32.4	21.1	3.70	100.0 (71)
	외벌이	0.0	0.0	34.5	17.2	48.3	4.14	100.0 (29)
	<i>t</i>	-2.261*						

* $p < .05$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1명인 가구보다 자녀의 야외활동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야외활동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2.73	100.0 (100)
자녀수	1명	10.4	31.3	18.8	27.1	12.5	3.00	100.0 (48)
	2명 이상	17.3	48.1	7.7	23.1	3.8	2.48	100.0 (52)
	t	2.1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2	39.5	14.5	23.7	9.2	2.76	100.0 (76)
	외벌이	16.7	41.7	8.3	29.2	4.2	2.63	100.0 (24)
	t	0.484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2.61	100.0 (100)
자녀수	1명	21.1	26.3	15.8	34.2	2.6	2.71	100.0 (38)
	2명 이상	21.0	33.9	17.7	24.2	3.2	2.55	100.0 (62)
	t	0.6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5	23.9	15.5	35.2	2.8	2.72	100.0 (71)
	외벌이	17.2	48.3	20.7	10.3	3.4	2.34	100.0 (29)
	t	1.565						

* $p < .05$

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부모의 우울감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중의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우울감 관련 항목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2.37점으로, 1.76~2.86점의 분포를 보여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항목 중 팬데믹 동안 불안했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9.0%가 종종 불안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점수도 2.86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만 5세반 유아 부모의 우울감 평균은 2.38점으로 만 2세반 영아 부모와 유사했으나 3.01~4.26점의 범위로 항목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부모의 우울감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28.3	29.2	24.8	13.0	4.7	2.37	100.0 (100)
팬데믹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16.0	18.0	39.0	18.0	9.0	2.86	100.0 (100)
팬데믹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21.0	26.0	31.0	19.0	3.0	2.57	100.0 (100)
팬데믹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33.0	34.0	20.0	10.0	3.0	2.16	100.0 (100)
팬데믹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17.0	26.0	28.0	20.0	9.0	2.78	100.0 (100)
팬데믹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38.0	30.0	22.0	8.0	2.0	2.06	100.0 (100)
팬데믹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45.0	41.0	9.0	3.0	2.0	1.76	100.0 (100)
만 5세반	26.5	31.5	24.3	12.8	4.8	2.38	100.0 (100)
팬데믹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12.0	21.0	33.0	24.0	10.0	3.01	100.0 (100)
팬데믹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19.0	30.0	30.0	16.0	5.0	3.42	100.0 (100)
팬데믹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28.0	32.0	26.0	10.0	4.0	3.70	100.0 (100)
팬데믹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16.0	33.0	30.0	15.0	6.0	3.38	100.0 (100)
팬데믹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36.0	36.0	18.0	7.0	3.0	3.95	100.0 (100)
팬데믹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48.0	37.0	9.0	5.0	1.0	4.26	100.0 (100)

나. 교사 특성

1) 응답자 특성

교사 설문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40명이 참여하였다. 응답 교사의 연령은 20~29세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39세가 32.5%, 40세 이상 30.0%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42.5%, 대학원 이상 5.0%, 고등학교 졸업 2.5% 순이었다. 보유한 최상위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급 17.5%, 유치원 정교사 1급, 15.0%, 유치원 정교사 2급과 기타 각 7.5% 순이었다. 유치원

경력은 3년 미만인 50.0%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경력은 10년 이상이 35.1%로 가장 높았다. 현재 근무기관은 어린이집이 90.0%로 대부분이었으며, 유치원은 10.0%였다. 현 기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과 5~10년 미만 각 22.5%, 1~3년 미만 20.0%, 3~5년 미만 10.0% 순이었다.

〈표 IV-1-10〉 응답자 특성: 교사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
전체		(40)	100.0
연령	20~29세	(15)	37.5
	30~39세	(13)	32.5
	40세 이상	(12)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2.5
	전문대 졸업	(17)	42.5
	대학교 졸업	(20)	50.0
	대학원 이상	(2)	5.0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6)	15.0
	유치원 정교사 2급	(3)	7.5
	보육교사 1급	(21)	52.5
	보육교사 2급	(7)	17.5
	기타	(3)	7.5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9)	22.5
	보육교사	(28)	70.0
	기타	(3)	7.5
유치원 경력	3년 미만	(9)	50.0
	3~5년 미만	(3)	16.7
	5~10년 미만	(6)	33.3
어린이집 경력	3년 미만	(10)	27.0
	3~5년 미만	(7)	18.9
	5~10년 미만	(7)	18.9
	10년 이상	(13)	35.1
현재 근무기관	유치원	(4)	10.0
	어린이집	(36)	90.0
현 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	(9)	22.5
	1~3년 미만	(8)	20.0
	3~5년 미만	(4)	10.0
	5~10년 미만	(9)	22.5
	10년 이상	(10)	25.0

2)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4점 척도에서 평균 3.38점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단위 : %(명)

구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평균점수 (점)	계(명)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2.5	57.5	40.0	3.38	100.0 (40)

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없음.

교사들은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기적인 방역 22.5%, 기타 17.5%, 인력 부족 15.0% 순이었으며, 긴급돌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5%였다.

〈표 IV-1-12〉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주기적인 방역	인력 부족	기타	긴급돌봄 경험 없음	계(명)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	37.5	22.5	15.0	17.5	7.5	100.0 (40)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에 대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 과중 27.5%, 부모의 요구 증가 12.5% 순이었다.

〈표 IV-1-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업무 과중 (원격수업 으로 인한 준비 등)	부모의 요구 증가	기타	계(명)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 어려움	57.5	27.5	12.5	2.5	100.0 (40)

2. 영유아 발달 현황

가.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1)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평소 행동을 토대로 어린이집 적응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교사 응답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4개 하위요인(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으로 파악하였다.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38~3.62점의 분포를 보였다. 만 2세반 영아의 일과적응 점수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적응 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2-1〉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사회정서적응	3.47	0.95	(100)
또래적응	3.38	1.01	(100)
자아적응	3.61	1.02	(100)
일과적응	3.62	0.93	(100)

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인식

발달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달 항목별 평균점수는 3.05~3.39점으로 분포되었다. 사회성 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각각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며,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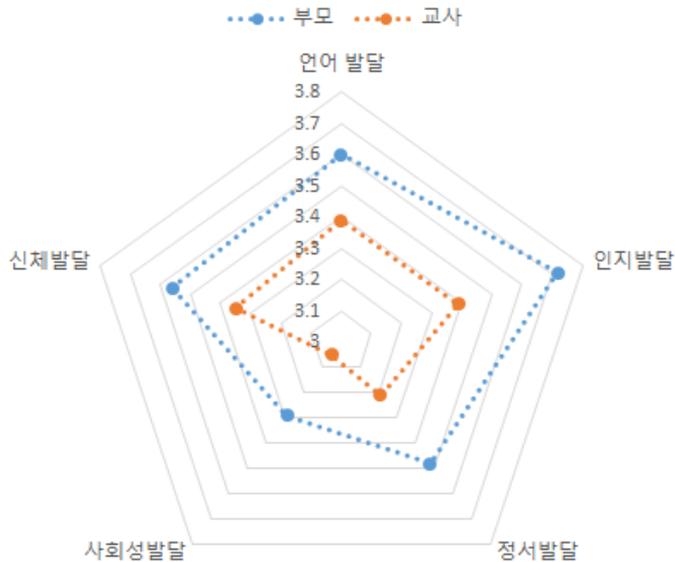
〈표 IV-2-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평균 점수	계(명)	t
언어 발달	부모	1.0	16.0	28.0	32.0	23.0	3.60	100.0 (100)	1.403
	교사	4.0	17.0	31.0	32.0	16.0	3.39	100.0 (100)	
인지 발달	부모	-	3.0	39.0	41.0	17.0	3.72	100.0 (100)	2.880**
	교사	1.0	10.0	48.0	31.0	10.0	3.39	100.0 (100)	
정서 발달	부모	-	7.0	47.0	37.0	9.0	3.48	100.0 (100)	2.437*
	교사	-	15.0	58.0	18.0	9.0	3.21	100.0 (100)	
사회성 발달	부모	1.0	16.0	45.0	29.0	9.0	3.29	100.0 (100)	1.995*
	교사	1.0	21.0	57.0	14.0	7.0	3.05	100.0 (100)	
신체 발달	부모	1.0	8.0	40.0	36.0	15.0	3.56	100.0 (100)	1.645
	교사	2.0	11.0	51.0	22.0	14.0	3.35	100.0 (100)	

* $p < .05$, ** $p < .01$

[그림 IV-2-1]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하위요인별로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조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3.05점이었으며(점수 기술전에 척도설명 필요),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2.98점이었다. 교사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82점이었고,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96점으로 조사되었다.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평정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도 3.05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서조절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
전체	부모	3.01	0.78	(100)	4.581***
	교사	2.90	0.79	(100)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3.05	0.65	(100)	7.600***
	교사	2.82	0.64	(100)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2.98	0.85	(100)	0.859
	교사	2.96	0.85	(100)	

*** $p < .001$.

4)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만 2세반 영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 = 3.37$)이다.

〈표 IV-2-4〉 만 2세반 영아 참여 현황

N = 100

구분	빈도수(%)			월령 평균(SD)
	남	여	전체	
전체	55(55.0)	45(45.0)	100(100.0)	38.69(3.37)

가)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 발달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10.92($sd = 15.09$)로 평균 범위로 나타났다. 기본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지표 111.62($sd = 16.26$), 시공간지표 106.87($sd = 14.18$), 작업기억지표 105.17($sd = 16.19$)이다. 추가지표의 평균은 어휘습득지표 113.30($sd = 15.19$), 일반능력지표 111.06($sd = 15.33$), 비언어지표 107.26($sd = 14.84$)이었다.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범위는 10.26~12.13($sd = 2.71 \sim 3.36$)로 수용어휘($M = 12.13, sd = 3.36$)와 그림명명($M = 12.01, sd = 2.87$) 점수가 가장 높고, 위치찾기($M = 10.26, sd = 2.92$)가 가장 낮으나 모두 평균 수준이다. 종합하면,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언어이해지표가 다소 높고, 다음으로 시공간지표와 작업기억지표 순이다. 특히 수용어휘나 그림명명 소검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2-5〉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수준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토막짜기	11.54(2.71)
상식	11.13(2.75)
그림기억	11.10(3.07)
위치찾기	10.26(2.92)
모양맞추기	11.06(3.11)
수용어휘	12.13(3.36)
그림명명	12.01(2.87)
전체Q	110.92(15.09)
언어이해지표	111.62(16.26)
시공간지표	106.87(14.18)
작업기억지표	105.17(16.19)
어휘습득지표	113.30(15.19)
비언어지표	107.26(14.84)
일반능력지표	111.06(15.33)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발달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5.66점($sd=17.30$)이다. 주영역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106.75($sd=14.14$), 생활기술 영역 111.00($sd=19.61$), 사회성 영역 104.61($sd=17.55$), 운동기술 영역 101.52($sd=16.73$)이다.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5.05~17.25($sd=2.05\sim3.86$)로 소근육($M=15.06, sd=3.61$)과 대근육($M=15.33, sd=2.05$) 하위영역이 가장 낮고, 가정($M=17.25, sd=3.27$) 하위영역이 가장 높다.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중 가정 하위영역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운동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2-6〉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주	수용	16.13(2.71)
	표현	16.15(2.79)
	개인	16.02(3.58)
	가정	17.25(3.27)
	대인관계	16.08(3.86)
	놀이 및 여가	15.37(2.97)
	대처기술	15.98(2.82)
	대근육	15.33(2.05)
	소근육	15.06(3.61)
하위	의사소통영역	106.75(14.14)
	생활기술영역	111.00(19.61)
	사회성영역	104.61(17.55)
	운동기술영역	101.52(16.73)
적응행동 조합점수		105.66(17.30)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1)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났다.

〈표 IV-2-7〉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점수 (표준편차)	계(명)
놀이상호작용	4.2	8.1	66.6	21.1	3.05(0.68)	100.0 (100)
놀이방해	44.2	20.1	32.1	3.6	1.81(0.86)	100.0 (100)
놀이단절	56.0	29.6	13.5	0.9	1.59(0.75)	100.0 (100)

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만 5세반 교사들은 5가지 발달 영역 중 언어 발달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지 발달 3.67점, 신체 발달 3.39점, 사회성 발달 3.31점 순이었으며, 정서 발달이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부모는 3.33점~3.6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언어 발달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 발달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다.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정서 발달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2-8〉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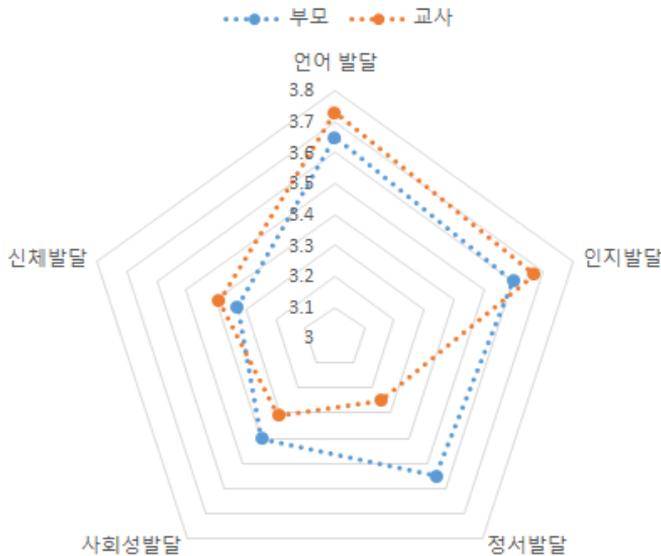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계(명)	평균 점수	t
언어 발달	부모	1.0	11.0	29.0	40.0	19.0	100.0 (100)	3.65	-0.577
	교사	2.0	6.0	38.0	25.0	29.0	100.0 (100)	3.73	
인지 발달	부모	-	5.0	41.0	43.0	11.0	100.0 (100)	3.60	-0.561
	교사	2.0	9.0	32.0	34.0	23.0	100.0 (100)	3.67	
정서 발달	부모	-	2.0	52.0	35.0	11.0	100.0 (100)	3.55	2.731**
	교사	3.0	9.0	55.0	26.0	7.0	100.0 (100)	3.25	

구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계(명)	평균 점수	t
사회성 발달	부모	1.0	12.0	43.0	34.0	10.0	100.0 (100)	3.40	0.696
	교사	5.0	10.0	44.0	31.0	10.0	100.0 (100)	3.31	
신체 발달	부모	2.0	12.0	48.0	27.0	11.0	100.0 (100)	3.33	-0.463
	교사	2.0	10.0	50.0	23.0	15.0	100.0 (100)	3.39	

** $p < .01$

[그림 IV-2-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3) 만 5세반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만 5세반 교사들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해 적응적 정서조절은 4점 척도에 2.95점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은 3.29점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평가한 정서조절 점수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이 3.23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3.09로 교사(2.95)보다 높았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3.29로 부모(3.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2-9〉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단위 : 점(명)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부모	(100)	3.18	0.69	0.535
	교사	(100)	3.17	0.82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100)	3.09	0.55	4.566***
	교사	(100)	2.95	0.72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100)	3.23	0.75	-2.188*
	교사	(100)	3.29	0.85	

* $p < .05$, *** $p < .001$.

4)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만 5세반 유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에 참여한 만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3.26$)이다.

〈표 IV-2-10〉 만 5세반 유아 참여 현황

$N = 100$

구분	빈도수(%)			월령 평균(SD)
	남	여	전체	
전체	54(54.0)	46(46.0)	100(100.0)	75.27(3.26)

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07.20($sd=15.21$)로 평균 범위로 나타났다. 기본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지표 107.17($sd=13.59$), 시공간지표 106.46($sd=15.70$), 유동추론지표 109.63($sd=15.44$), 작업기억지표 107.77($sd=14.05$)이다. 추가지표의 평균은 비언어지표 107.44($sd=15.02$), 일반능력지표 17.52($sd=16.26$), 인지효율성지표 105.97($sd=14.46$)이다.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범위는 10.58~11.54($sd=2.54\sim3.67$)로 공통그림찾기 ($M=11.54$, $sd=2.54$)가 가장 높고 선택하기($M=10.58$, $sd=2.81$)가 가장 낮으나 모두 평균 수준이다. 종합하면,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거나 처리속도지표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선택하기 소검사 점수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2-11〉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토막짜기	11.21(3.67)
상식	11.37(2.70)
행렬추리	11.29(3.47)
동형찾기	10.98(2.83)
그림기억	10.87(3.08)
공통성	10.85(2.68)
공동그림찾기	11.54(2.54)
선택하기	10.58(2.81)
위치찾기	11.36(2.74)
모양맞추기	11.24(2.62)
선택하기(비정렬)	10.60(2.93)
선택하기(정렬)	9.91(3.18)
전체IQ	107.20(15.21)
언어이해지표	107.17(13.59)
시공간지표	106.46(15.70)
유동추론지표	109.63(15.44)
작업기억지표	107.77(14.05)
처리속도지표	104.88(13.76)
비언어지표	107.44(15.02)
일반능력지표	107.52(16.26)
인지효율성지표	105.97(14.46)

- 주: 1) 만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동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나)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

만 5세반 유아(N = 100)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7.70점(sd = 12.89)이다. 주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108.12(sd = 14.64), 생활기술 영역 111.19(sd = 16.54), 사회성 영역 109.44(sd = 14.76), 운동기술 영역 101.58(sd = 11.66)이다.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4.66~17.49(sd = 2.02~3.11)로 대근육(M=14.66, sd = 2.18)과 소근육(M=15.67, sd = 2.02) 하위

영역이 가장 낮고, 대인관계($M=17.49$, $sd = 2.64$) 하위영역이 가장 높다. 만 5세 반 유아의 적응행동 중 생활기술 영역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이 다소 높고, 운동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2-12〉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주	수용	15.97(2.75)
	표현	16.66(2.92)
	개인	16.94(3.00)
	가정	16.59(2.88)
	대인관계	17.49(2.64)
	놀이 및 여가	15.87(3.11)
	대처기술	16.41(2.49)
	대근육	14.66(2.18)
	소근육	15.67(2.02)
하위	의사소통영역	108.12(14.64)
	생활기술영역	111.19(16.54)
	사회성영역	109.44(14.76)
	운동기술영역	101.58(11.66)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70(12.89)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3. 영유아 발달 격차 및 영향 요인

가.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비교

1)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성별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남아의 전체 IQ 평균은 108.84($sd = 14.17$), 여아의 전체 IQ의 평균은 113.47($sd = 15.94$)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를 살펴보면, 작업기억지표의 남아 평균은 102.09($sd=17.45$), 여아 평균은 108.93($sd=13.78$)이었으며,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지표인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찾기의 남아 평균은 9.56($sd=3.07$), 여아 평균은 11.11($sd=2.49$)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25$, $p=.008$).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인지 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작업기억지표, 특히 위치찾기 소검사에서 여아가 높은 수행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3-1〉 성별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t	p
	남($n = 55$)	여($n = 45$)		
토막짜기	11.35(2.55)	11.78(2.91)	-0.792	.430
상식	10.82(2.71)	11.51(2.78)	-1.258	.211
그림기억	10.78(3.10)	11.49(3.01)	-1.149	.253
위치찾기	9.56(3.07)	11.11(2.49)	-2.725**	.008
모양맞추기	11.00(3.08)	11.13(3.18)	-.212	.832
수용어휘	11.60(3.34)	12.78(3.31)	-1.763	.081
그림명명	11.96(2.55)	12.07(3.25)	-.178	.859
전체IQ	108.84(14.17)	113.47(15.94)	-1.537	.128
언어이해지표	109.07(15.62)	114.73(16.65)	-1.750	.083
시공간지표	106.11(13.78)	107.80(14.76)	-.591	.556
작업기억지표	102.09(17.45)	108.93(13.78)	-2.140*	.035
어휘습득지표	111.58(14.23)	115.40(16.20)	-1.254	.213
비언어지표	105.13(15.40)	109.87(13.83)	-1.602	.112
일반능력지표	109.16(14.24)	113.38(16.44)	-1.373	.173

* $p<.05$, ** $p<.01$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남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3.45($sd = 18.58$), 여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36 ($sd = 15.36$)으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영역에서도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2〉 성별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남(n = 55)	여(n = 45)			
주	수용	15.82(2.97)	16.51(2.34)	-1.274	.206
	표현	15.87(3.00)	16.49(2.50)	-1.100	.274
	개인	15.76(3.83)	16.33(3.25)	-.791	.431
	가정	17.36(3.57)	17.11(2.89)	.383	.703
	대인관계	15.47(3.95)	16.82(3.64)	-1.759	.082
	놀이 및 여가	15.07(2.86)	15.73(3.09)	-1.109	.270
	대처기술	15.62(3.08)	16.42(2.42)	-1.427	.157
	대근육	15.27(2.26)	15.40(1.78)	-.308	.759
	소근육	14.35(3.51)	15.93(3.58)	-2.232*	.028
하위	의사소통영역	104.98(16.36)	108.91(10.61)	-1.389	.168
	생활기술영역	110.62(21.30)	111.47(17.55)	-.214	.831
	사회성영역	102.18(18.18)	107.58(16.45)	-1.541	.127
	운동기술영역	98.87(17.35)	104.76(15.52)	-1.768	.080
적응행동 조합점수	103.45(18.58)	108.36(15.36)	-1.417	.160	

* $p < .05$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의 남아 평균은 14.35($sd = 3.51$), 여아 평균은 15.93($sd = 3.58$)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232, p = .028$). 한편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소근육 영역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적응행동 특성을 보였다.

나) 기질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질 특성과 인지 발달 지표별 점수, 전체 점수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3〉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 언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 시공간	인지발달 지표(4)-W- 작업기억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기질-사회성	0.089	-0.058	0.079	0.072
기질-정서성	-0.026	-0.003	0.023	-0.042
기질-활동성	0.032	0.046	0.050	0.073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은 영역별 점수, 적응행동 전체점수와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었으나 사회성 기질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지표가 약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기질-사회성	0.094	0.100	.223*	0.018	0.133
기질-정서성	0.011	-0.083	0.016	-0.047	-0.034
기질-활동성	0.025	0.060	-0.011	-0.023	0.030

* $p < .05$

다) 초기 적응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 정도와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아의 초기 적응의 세부항목(사회정서 적응, 또래 적응, 자아 적응, 일과 적응)과 인지발달 지표(언어이해, 시공간, 작업기억)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과 적응과 인지발달의 시공간 지표는 관계가 없었고, 상관이 다소 높은 항목은 사회정서 적응과 언어이해, 작업기억, 자아 적응과 언어이해, 일과 적응과 작업기억으로 나타났다. 초기적응 전체 점수와 인지발달 전체점수도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IV-3-5〉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언어 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시 공간	인지발달 지표(4)-W-작 업기억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초기적응-사회정서 적응	.396**	.256*	.340**	.421**
초기적응-또래 적응	.264**	.243*	.273**	.337**
초기적응-자아 적응	.363**	.210*	.294**	.384**
초기적응-일과 적응	.288**	0.179	.338**	.316**
초기적응-전체	.371**	.256*	.349**	.415**

*p<.05, **p<.01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은 초기 적응의 일과 적응, 적응행동의 생활기술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난 항목은 사회정서 적응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운동기술, 또래 적응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자아 적응과 사회성, 운동기술로 나타났다.

〈표 IV-3-6〉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생 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초기적응-사회정서 적응	.197*	0.087	.328**	.302**	.262**
초기적응-또래 적응	0.171	0.078	.337**	.260**	.244*
초기적응-자아 적응	.244*	0.142	.320**	.349**	.305**
초기적응-일과 적응	0.158	-0.045	0.169	0.193	0.125
초기적응-전체	.215*	0.078	.335**	.312**	.269**

*p<.05, **p<.01

라) 정서조절 능력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 능력의 영역과 인지발달의 세부 지표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7〉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언어 이해	인지발달 지표(2)-W-시공 간	인지발달 지표(4)-W-작업 기억	인지발달 전체점수-W-전 체점수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0.061	-0.009	0.176	0.074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0.049	-0.062	0.090	0.038

한편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 능력의 부정적 정서는 적응행동 세부 지표, 전체 점수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생활기술, 사회성과 약한 상관을 보였다.

〈표 IV-3-8〉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0.085	.233*	.268**	0.189	.239*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0.006	0.069	-0.057	0.095	0.023

* $p < .05$, ** $p < .01$

2)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취업 여부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1.51($sd=14.78$),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9.04($sd=16.22$)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지표의 경우, 어휘습득지표에서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5.18($sd=13.80$),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7.33($sd=17.97$)으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253$, $p=.027$), 특히 외벌이 가정의 영아가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다 더 높은 어휘습득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는 취업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검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명명에서만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2.41($sd = 2.55$),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75($sd = 3.48$)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531, p = .013$).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휘습득에 있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i>t</i>	<i>p</i>
	맞벌이($n = 76$)	외벌이($n = 24$)		
토막짜기	11.53(2.78)	11.58(2.54)	-.089	.929
상식	11.20(2.57)	10.92(3.30)	.435	.665
그림기억	11.16(3.13)	10.92(2.90)	.334	.739
위치찾기	10.25(2.85)	10.29(3.18)	-.061	.952
모양맞추기	11.13(3.15)	10.83(3.03)	.408	.684
수용어휘	12.36(3.22)	11.42(3.76)	1.196	.235
그림명명	12.41(2.55)	10.75(3.48)	2.531*	.013
전체Q	111.51(14.78)	109.04(16.22)	.698	.487
언어이해지표	112.50(15.34)	108.83(18.96)	.963	.338
시공간지표	107.04(14.72)	106.33(12.62)	.212	.833
작업기억지표	105.33(16.02)	104.67(17.06)	.174	.862
어휘습득지표	115.18(13.80)	107.33(17.97)	2.253*	.027
비언어지표	107.46(14.75)	106.63(15.42)	.239	.811
일반능력지표	111.70(15.11)	109.04(16.20)	.738	.462

* $p < .05$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맞벌이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5.64($sd = 17.84$), 외벌이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5.71($sd = 15.82$)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모든 주영역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 점수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0〉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맞벌이(n = 76)	외벌이(n = 24)			
주	수용	16.24(2.64)	15.79(2.96)	.699	.486
	표현	16.50(2.70)	15.04(2.84)	2.279*	.025
	개인	16.05(3.64)	15.92(3.43)	.162	.872
	가정	17.20(3.33)	17.42(3.15)	-.285	.776
	대인관계	16.01(3.96)	16.29(3.59)	-.307	.760
	놀이 및 여가	15.22(2.88)	15.83(3.24)	-.877	.383
	대처기술	15.96(2.95)	16.04(2.40)	-.122	.903
	대근육	15.29(2.15)	15.46(1.72)	-.351	.726
	소근육	14.87(3.62)	15.67(3.57)	-.944	.347
하위	의사소통영역	108.08(13.90)	102.54(14.33)	1.689	.094
	생활기술영역	111.00(19.91)	111.00(19.02)	.000	1.000
	사회성영역	104.05(17.89)	106.38(16.65)	-.563	.574
	운동기술영역	100.68(17.04)	104.17(15.76)	-.888	.377
적응행동 조합점수		105.64(17.84)	105.71(15.82)	-.016	.988

* $p < .05$, ** $p < .01$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현에서만 맞벌이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 평균은 16.50($sd = 2.70$), 외벌이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5.04($sd = 2.84$)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2.279, p = .025$),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 영아의 표현 v-척도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전체 IQ 평균은 110.32($sd=16.30$), 600만원 이상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1.29($sd=14.43$)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소검사 수준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1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i>t</i>	<i>p</i>
	< 600 (<i>n</i> = 38)	≥ 600 (<i>n</i> = 62)		
토막짜기	11.55(2.64)	11.53(2.77)	.036	.971
상식	10.95(3.16)	11.24(2.48)	-.518	.605
그림기억	11.08(3.16)	11.11(3.04)	-.053	.957
위치찾기	10.76(2.96)	9.95(2.87)	1.357	.178
모양맞추기	11.24(3.62)	10.95(2.78)	.443	.659
수용어휘	11.74(3.53)	12.37(3.26)	-.915	.362
그림명명	11.55(3.09)	12.29(2.72)	-1.250	.214
전체IQ	110.32(16.30)	111.29(14.43)	-.312	.756
언어이해지표	109.87(18.13)	112.69(15.04)	-.842	.402
시공간지표	107.47(15.57)	106.5(13.38)	.332	.741
작업기억지표	106.66(16.88)	104.26(15.83)	.718	.475
어휘습득지표	110.76(17.40)	114.85(13.57)	-1.313	.192
비언어지표	108.47(15.53)	106.52(14.47)	.639	.525
일반능력지표	110.45(16.96)	111.44(14.38)	-.311	.756

주: 1)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 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53($sd=16.65$), 600만원 이상 가정 영아의 전체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평균은 103.90($sd=17.59$)로 가계소득에 따라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에서만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가 16.11(sd =3.39), 600만원 이상인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가 14.42(sd = 3.61)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2.317, p =.023).

〈표 IV-3-1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 600 (n = 38)	≥ 600 (n = 62)			
주	수용	16.47(2.63)	15.92(2.77)	.991	.324
	표현	16.00(3.34)	16.24(2.42)	-.419	.676
	개인	16.61(3.62)	15.66(3.53)	1.286	.202
	가정	17.37(3.57)	17.18(3.10)	.282	.778
	대인관계	16.39(3.89)	15.89(3.86)	.637	.526
	놀이 및 여가	15.71(3.11)	15.16(2.88)	.898	.372
	대처기술	16.39(2.56)	15.73(2.95)	1.154	.251
	대근육	15.45(1.72)	15.26(2.23)	.447	.656
	소근육	16.11(3.39)	14.42(3.61)	2.317*	.023
하위	의사소통영역	107.50(15.28)	106.29(13.49)	.414	.680
	생활기술영역	113.21(21.01)	109.65(18.74)	.882	.380
	사회성영역	106.89(17.21)	103.21(17.74)	1.020	.310
	운동기술영역	105.58(14.39)	99.03(17.67)	1.925	.057
적응행동 조합점수		108.53(16.65)	103.90(17.59)	1.302	.196

*p<.05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비교

1)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성별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 결과, 전체 IQ 수준에서 남아의 평균은 107.91(sd =15.57), 여아의 평균은 106.37(sd =14.91)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소검사별 점수를 살펴보면 상식 소검사에서 남아가 11.89($sd=2.96$), 여아가 10.76($sd=2.24$)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116, p=.037$),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막짜기,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13〉 성별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i>t</i>	<i>p</i>
	남($n = 54$)	여($n = 46$)		
토막짜기	11.39(3.80)	11.00(3.54)	.526	.600
상식	11.89(2.96)	10.76(2.24)	2.116*	.037
행렬추리	11.65(3.33)	10.87(3.62)	1.119	.266
동형찾기	11.04(2.93)	10.91(2.75)	.217	.829
그림기억	10.81(3.02)	10.93(3.19)	-.193	.847
공통성	10.44(2.89)	11.33(2.37)	-1.652	.102
공통그림찾기	11.37(2.55)	11.74(2.53)	-.723	.471
선택하기	10.43(2.70)	10.76(2.95)	-.593	.555
위치찾기	11.48(2.80)	11.22(2.68)	.479	.633
모양맞추기	11.33(2.47)	11.13(2.81)	.384	.702
선택하기(비정렬)	10.61(2.90)	10.59(3.01)	.041	.968
선택하기(정렬)	9.65(2.97)	10.22(3.41)	-.892	.375
전체Q	107.91(15.57)	106.37(14.91)	.502	.617
언어이해지표	107.52(15.07)	106.76(11.77)	.277	.783
시공간지표	107.24(15.51)	105.54(16.03)	.537	.593
유동추론지표	110.17(15.29)	109.00(15.75)	.375	.708
작업기억지표	107.96(14.27)	107.54(13.95)	.148	.883
처리속도지표	104.63(13.80)	105.17(13.86)	-.196	.845
비언어지표	107.98(14.82)	106.80(15.38)	.389	.698
일반능력지표	108.65(16.75)	106.20(15.74)	.750	.455
인지효율성지표	105.96(13.63)	105.98(15.54)	-.005	.996

* $p < .05$

주: 1) 만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적응행동의 조합 점수를 살펴보면, 남아가 107.02($sd = 13.27$) 여아가 108.50($sd = 12.53$)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V-3-14〉 성별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남(n = 54)	여(n = 46)			
주	수용	15.83(2.67)	16.13(2.87)	-.536	.593
	표현	16.74(3.05)	16.57(2.80)	.298	.766
	개인	16.43(3.41)	17.54(2.32)	-1.882	.063
	가정	16.30(2.67)	16.93(3.10)	-1.107	.271
	대인관계	17.56(2.79)	17.41(2.49)	.268	.790
	놀이 및 여가	16.19(3.20)	15.50(2.98)	1.101	.274
	대처기술	16.37(2.59)	16.46(2.39)	-.172	.864
	대근육	14.83(2.13)	14.46(2.24)	.860	.392
	소근육	15.43(2.16)	15.96(1.83)	-1.314	.192
하위	의사소통영역	107.93(14.99)	108.35(14.37)	-.143	.887
	생활기술영역	108.61(16.66)	114.22(16.06)	-1.705	.091
	사회성영역	110.11(15.36)	108.65(14.14)	.491	.625
	운동기술영역	101.30(12.15)	101.91(11.18)	-.262	.794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02(13.27)	108.50(12.53)	-.571	.569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또래 놀이행동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특성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은 인지발달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방해와 언어 이해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놀이단절과 언어이해 또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놀이단절은 작업기억, 처리속도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IV-3-15〉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 언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 시공간	인지발달 지표(3)-W- 유동추론	인지발달 지표(4)-W- 작업기억	인지발달 지표(5)-W- 처리속도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0.093	0.138	0.067	0.116	0.115	0.117
또래 놀이행동- 놀이방해	-.269**	-0.154	-0.181	-0.176	-0.091	-.241*
또래 놀이행동- 놀이단절	-.213*	-0.146	-0.174	-.213*	-.197*	-.197*

* $p < .05$, ** $p < .01$

한편 또래 놀이행동과 적응행동의 경우, 놀이상호작용은 적응행동 전체 점수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놀이방해는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놀이단절은 의사소통, 운동기술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IV-3-16〉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0.139	0.179	0.133	0.150	.200*
또래 놀이행동- 놀이방해	-.297**	0.053	0.103	-0.014	-0.045
또래 놀이행동- 놀이단절	-.201*	-0.155	-0.152	-.206*	-.229*

* $p < .05$, ** $p < .01$

다) 정서조절 능력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 능력 또한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7〉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 언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 시공간	인지발달 지표(3)-W- 유동추론	인지발달 지표(4)-W- 작업기억	인지발달 지표(5)-W- 처리속도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376**	0.194	0.175	.271**	0.155	.317**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336**	0.163	0.188	.211*	0.104	.266**

* $p < .05$, ** $p < .01$

한편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적응행동과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조절과 의사소통 능력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8〉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0.113	-0.002	-0.051	0.100	0.046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264**	-0.066	-0.093	0.096	0.054

** $p < .01$

2)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취업 여부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106.94($sd = 15.39$),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107.83($sd = 15.00$)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의 경우, 처리 속도지표는 맞벌이 가정 유아가 102.37($sd = 13.30$), 외벌이 가정의 유아가 111.03($sd = 13.10$)으로 외벌이 가정 유아가 맞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은 것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97$, $p = .004$).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별이 가정의 유아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9〉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지표 ¹⁾	환산점수 ²⁾ / 지표점수 ³⁾		<i>t</i>	<i>p</i>
	맞별이(<i>n</i> = 71)	외별이(<i>n</i> = 29)		
토막짜기	10.93(3.57)	11.90(3.88)	-1.199	.234
상식	11.52(2.79)	11.00(2.49)	.874	.384
행렬추리	11.55(3.35)	10.66(3.74)	1.170	.245
동형찾기	10.63(2.71)	11.83(3.00)	-1.939	.055
그림기억	10.96(3.01)	10.66(3.31)	.443	.658
공통성	10.75(2.89)	11.10(2.13)	-.602	.549
공통그림찾기	11.70(2.37)	11.14(2.91)	1.013	.313
선택하기	10.03(2.84)	11.93(2.23)	-3.217**	.002
위치찾기	11.35(2.77)	11.38(2.69)	-.045	.964
모양맞추기	11.35(2.54)	10.97(2.85)	.667	.506
선택하기(비정렬)	10.10(3.03)	11.83(2.28)	-276**	.007
선택하기(정렬)	9.30(3.26)	11.41(2.41)	-3.16**	.002
전체Q	106.94(15.39)	107.83(15.00)	-.262	.794
언어이해지표	107.35(14.60)	106.72(10.95)	.209	.835
시공간지표	105.96(15.41)	107.69(16.59)	-.499	.619
유동추론지표	110.89(14.55)	106.55(17.31)	1.278	.204
작업기억지표	108.01(13.78)	107.17(14.93)	.270	.787
처리속도지표	102.37(13.30)	111.03(13.10)	-2.97**	.004
비언어지표	107.31(14.51)	107.76(16.46)	-.135	.893
일반능력지표	107.59(16.66)	107.34(15.51)	.069	.946
인지효율성지표	104.44(14.55)	109.72(13.76)	-1.674	.097

***p* < .01

주: 1)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맞별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 점수 평균은 맞별이 가정 유아가 108.54(*sd*=12.91), 외별이 가정 유아가 105.66(*sd*=12.85)로 맞별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주영역인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모두 맞벌이 가정 유아와 외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3-20〉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맞벌이(n = 71)	외벌이(n = 29)			
주	수용	16.06(2.92)	15.76(2.34)	.489	.626
	표현	16.72(2.91)	16.52(3.00)	.311	.757
	개인	17.04(3.09)	16.69(2.79)	.532	.596
	가정	16.63(2.97)	16.48(2.69)	.237	.813
	대인관계	17.76(2.61)	16.83(2.65)	1.615	.109
	놀이 및 여가	16.15(3.13)	15.17(2.99)	1.443	.152
	대처기술	16.55(2.42)	16.07(2.67)	.874	.384
	대근육	14.63(2.17)	14.72(2.25)	-.187	.852
	소근육	15.80(2.01)	15.34(2.04)	1.029	.306
영역	의사소통영역	108.70(15.35)	106.69(12.87)	.623	.535
	생활기술영역	111.70(17.01)	109.93(15.56)	.484	.629
	사회성영역	110.85(14.53)	106.00(14.99)	1.499	.137
	운동기술영역	101.96(11.67)	100.66(11.78)	.505	.615
적응행동 조합점수	108.54(12.91)	105.66(12.85)	1.014	.313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2.56($sd = 15.44$),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8.92($sd = 14.86$)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본지표를 살펴본 결과 언어이해지표는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는 102.63($sd = 12.52$),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8.85($sd = 13.67$)로 두 집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 = -2.065, p = .042$), 유동추론지표는 수입이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3.11($sd = 18.13$),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2.04($sd = 13.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645, p = .010$). 추가지표 분석에서서도 일반능력지표가 수입이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1.96($sd = 17.60$),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9.58($sd = 15.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15, p = .037$).

〈표 IV-3-2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지표 ¹⁾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 600 (n = 27)	≥ 600 (n= 73)		
토막짜기	11.04(3.94)	11.27(3.59)	-.285	.776
상식	10.30(2.38)	11.77(2.72)	-2.478*	.015
행렬추리	9.74(4.39)	11.86(2.90)	-2.805**	.006
동형찾기	10.93(2.35)	11.00(3.00)	-.116	.908
그림기억	10.52(3.23)	11.00(3.04)	-.691	.491
공통성	10.44(2.59)	11.00(2.72)	-.918	.361
공통그림찾기	10.89(2.64)	11.78(2.47)	-1.573	.119
선택하기	10.96(2.70)	10.44(2.85)	.828	.410
위치찾기	10.59(2.89)	11.64(2.64)	-1.723	.088
모양맞추기	10.67(2.20)	11.45(2.74)	-1.335	.185
선택하기(비정렬)	10.85(2.43)	10.51(3.11)	.520	.604
선택하기(정렬)	10.56(3.34)	9.67(3.10)	1.239	.218
전체Q	102.56(15.44)	108.92(14.86)	-1.881	.063
언어이해지표	102.63(12.52)	108.85(13.67)	-2.065*	.042
시공간지표	104.22(15.40)	107.29(15.83)	-.866	.389
유동추론지표	103.11(18.13)	112.04(13.68)	-2.645*	.010
작업기역지표	104.26(15.59)	109.07(13.32)	-1.529	.129
처리속도지표	105.81(12.47)	104.53(14.27)	.411	.682
비언어지표	103.37(15.76)	108.95(14.55)	-1.663	.100
일반능력지표	101.96(17.60)	109.58(15.36)	-2.115*	.037
인지효율성지표	104.37(13.86)	106.56(14.73)	-.671	.504

* $p < .05$, ** $p < .01$

주: 1)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역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소검사별 분석결과에서는 상식 소검사에서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30($sd=2.38$),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77($sd=2.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478, p=.015$), 행렬추리 소검사에서 가정 수입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9.74($sd=4.39$),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86($sd=2.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805, p=.006$).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전체는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 점수 평균은 107.78($sd=12.72$),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7.67($sd=13.04$)로 가계소득에 따라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¹⁾ / 표준점수 ²⁾		t	p	
	< 600 (n = 27)	≥ 600 (n = 73)			
주	수용	15.48(2.34)	16.15(2.89)	-1.080	.283
	표현	16.56(2.91)	16.70(2.95)	-.216	.829
	개인	17.22(2.69)	16.84(3.11)	.571	.570
	가정	17.30(2.32)	16.33(3.03)	1.502	.136
	대인관계	17.56(2.71)	17.47(2.64)	.150	.881
	놀이 및 여가	16.11(3.51)	15.78(2.96)	.470	.639
	대처기술	16.78(2.59)	16.27(2.46)	.897	.372
	대근육	14.04(2.56)	14.89(1.99)	-1.756	.082
	소근육	15.59(2.27)	15.70(1.93)	-.232	.817
하위	의사소통영역	105.96(13.00)	108.92(15.21)	-.895	.373
	생활기술영역	114.07(14.52)	110.12(17.21)	1.061	.291
	사회성영역	110.81(15.60)	108.93(14.51)	.565	.574
	운동기술영역	99.15(13.79)	102.48(10.73)	-1.273	.206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78(12.72)	107.67(13.04)	.037	.971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4. 소결

본 장에서는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각각 100명, 총 200명)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결과와 대상 영유아의 부모(각각 100명, 총 200명)와 영유아의 담임 교사(총 4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유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발달검사 참여 영유아의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기간(2020~2021) 중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만 2세반 영아 부모, 외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만 2세반 64%, 만 5세반 71%).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생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는 모두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했고,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녀의 야외 활동 시간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영유아와 시간을 보내면서 가구 지출, 양육비 지출이 증가했고, 가정 내에서 자녀가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야외활동이 감소했음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면담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발달검사를 수행한 영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관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영유아의 기관 내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넷째, 만 2세반 영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적응해 대해 조사한 결과, 또래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평균 3.05~3.72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성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와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영(2017)의 적응적 정서조절의 점수(2.99점)와 비교하면, 부모의 평정은 3.05점으로 높고, 교사의 평정은 2.82점으로 낮은 결과이다.

다섯째, 만 5세반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또래 놀이행동을 조사한 결과,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낮게 평가되었다.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평균 3.25~3.73점으로 높았고,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정서발달에 대해서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높게 인식하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K-WPPSI-IV, K-Vineland-2)를 수행한 결과, 만 2세반 영아 100명과 5세반 유아 100명, 총 2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 = 3.37$)이고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 = 3.26$)이었다.

첫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의 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가 110.92($sd = 15.09$)이고, 5세반 유아 107.20($sd = 15.21$)으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연구(박혜원, 이경옥, 2016)의 서울 지역의 검사결과인 105.97($sd = 14.45$)에 비해 2~5점 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검사결과에 따르면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종합점수는 105.66($sd = 17.30$)이고 만 5세반 유아 107.70($sd = 12.89$)으로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선택하기를 중심으로 처리속도 지표에서 높은 수행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어휘습득 추가지표와 표현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림명명 소검사에 있어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인지능력이 외벌이 가정의 영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아의 점수가 맞벌이 가정의 유아보다 높았다. 또한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있어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만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 중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행렬추리 소검사를 중심으로 유동추론지표가 소득이 높은 가정의 영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특히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만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상식 소검사와 행렬추리 소검사에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유동추론지표의 차이는 만 5세반 유아에게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에 있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도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요구된다.

V

논의 및 제언

- 01 논의
- 02 정책 제언
- 0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 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서 시작된 국내외 연구들을 토대로 영유아 발달 격차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 계획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연구로 생애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의 팬데믹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영유아 발달의 격차를 가져왔는지, 격차가 발생하였다면 요인이 무엇이고, 격차를 가져온 요인들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연구 목적에 따라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고, 팬데믹을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교사,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되는 배경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인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각각 100명, 총 200명)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K-WPPSI-IV, K-Vineland-2) 수행하였으며, 대상 영유아의 부모(각각 100명, 총 200명)와 영유아의 담임교사(총 4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현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원, 이경옥(2016)의 서울 지역의 검사결과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 특성 중 대졸이상의 학력 소지 비율, 맞벌이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력을 포함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표준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만 2세 영아 발달특성을 고찰한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2021)은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별 영아 수행수준 평가에서 코로

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 모두에서 6개 영역 모두 향상되었고, 연도별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발생이 영아 발달에 저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인지자본의 격차를 분석한 권성준(2021)은 KASQ의 인지능력 관련 척도 네 가지(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대해서 가정양육환경 변수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소득 4분위와 1분위 간 KASQ 평균 표준화 점수 격차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권성준, 윤정환(2022)은 인지능력의 자기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만1~2세 영아기의 경우 상당히 낮았고, 추정의 정확성도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아기 격차의 추정 가능성, 인지능력의 후천적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적응행동을 부모가 평정하여 다소 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평정하는 문항에서 교사보다 부모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권성준(2021)이 한국아동패널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사회성 척도에 대한 소득계층 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분위에 따른 일정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가정양육환경 변수를 통제한 결과와 통제하지 않은 결과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부모응답 평가방식에 의한 측정 오류가 있을 가능성, 비인지능력의 경우,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의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권성준, 2021). 또한 권성준, 윤정환(2022)은 비인지능력의 자기 생산성은 인지보다 높은 수준이고, 만 3~4세 유아기는 비교적 강한 자기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유아기의 비인지 능력의 객관적 측정,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인지발달에 있어서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만 2세 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있어서도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이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긴급돌봄의 이용이 높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만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는 모두 가구 총 소득에는 변화가 크지 않고,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고, 팬데믹 기간 중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경우, 사교육이 증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권성준, 윤정환(2022)도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투입 요소들의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육아지원기관의 영향력은 인지능력에 대해서는 양(+의 생산성, 비인지능력에 대해서는 음(-)의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영아기의 추정치는 그 크기가 작고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계수 값들은 추정치의 크기가 작고 추정의 정확도도 낮아 이러한 가구소득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육아지원기관의 생산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인지능력 생산에 있어서 육아지원기관의 생산성은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인 경우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하였다(권성준, 윤정환, 2021). 본 연구의 결과,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이 영유아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팬데믹 이전에 수행된 표준화 검사결과와 차이가 없었고, 중상/중하 계층 간에도 영유아의 발달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차상 코로나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하반기에 검사가 실시되었다는 점, 영유아 발달 특성상 가소성, 탄력성 높은 시기라는 점 등이 사례 연구로 논의되기 시작한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를 가정하는 연구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이 점차적으로 소거되는 시점에서 원샷으로 이루어진 검사결과로 통계 불가능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내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논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동일 시점, 동일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수행된 국내외의 일부 연구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2022년 서울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456명, 가정 양육 영유아 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22. 5.~11.),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총 456명)의 33%(152명)는 현재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양육 영유아(총 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언어발달 검사에서는 정상발달 59명(69%), 약간지체 12명(14%), 언어발달지체 15명(17%) 순으로, 3명 중 1명이 언어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보고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2.12.13.).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는 2022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마포구,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이 지역의 63개 어린이집에서 만 2살(2019년도 출생) 아이 545명을 대상으로 발달선별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중 18.34%인 100명에게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중앙일보, 2022.11.16.). 성남시에서도 2022년 3월부터 생후 42개월 미만 영유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1,096명 중 18%가 언어 척도에서 경계 또는 발달 지연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중앙일보, 2022.11.16.).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표본 지역, 검사 시점, 검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다.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영유아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es et al., 2021)는 연구결과, 영유아의 뇌는 가변적이고 대처능력이 뛰어나 발달이 늦어졌더라도 이후 극복한다는 연구결과(Zeanah et al., 2009)를 통해 2년 이상 지속된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영유아기의 인지발달, 적응행동 등의 격차를 단기간의 연구로 판단하기보다 영유아 발달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누적된 격차의 요인들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본 및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한계로 기존의 경험적 인식에 기반한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상기한 논의들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es et al., 2021)는 정책적 중재 효과 등이 중요함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교육 격차, 양극화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외부 요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크고,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조기 개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결과(학업성취도, 대학진학, 의사소통역량 등)의 차이와 같은 교육격차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으나 성별 등과 같은 유전적 요소나 태어난 가정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교육결과가 결정된다면 사회적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 2017: 211). 많은 경제학자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영유아의 인적자본이 충분한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지원받은 영유아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를 통해 양극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Cunha et al., 2006; Almond et al., 2011; Kautz et al., 2014; 권성준, 2021에서 재인용).

교육부(2017)는 교육격차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고, 87%의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관련 재정 규모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에 대한 보편지원이 시작된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들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 향상 차원보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등 자녀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경향이 강하다(권성준, 윤정환, 2021).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과 과제를 영유아, 가구, 기관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

1) 배경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기회의 부재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핍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교육기회의 부재나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력이 요구된다(손수민, 2013). Cunha와 동료들은(2006) 가구소득 분위별 아동들의 인적자본 격차를 분석하였는데, 인적자본 격차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 좁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됨을 보여주었으며, 다만 가정환경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 계층 간 인적자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권성준, 2021).

교육 불평등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입증되고 있는 사실은 생애단계별로 볼 때 가족배경의 영향은 생애 초기단계에 가장 크다는 것인데, Mare(1980)는 가족 배경의 효과가 초기 단계로부터 후기 단계로 옮겨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대학원 진학단계에 이르면 가족 배경의 영향은 소멸한다고 하였다(신인철, 김기현,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원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아이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

6) 통제된 변수들은 모의 교육수준, 모의 인지 관련 시험점수(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 score), 결혼가정 여부 등으로 아동기 가정양육환경의 양과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임.

하게 제공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국가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2.08.01.)). 이에 따라 학력 회복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밀착 지도를 강화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영유아 단계에서도 전생애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 초기의 전반적인 발달의 모니터링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V-2-1] 2022 정부 업무보고: 교육부 '출발선 단계 국가책임 강화'

<p>유보통합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추진단 설치해 실행력 확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및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등 검토 · 학제개편 추진 시 영유아 교육·돌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선제적 검토
<p>학제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일찍 초등학교 진학 방안 등 본격 논의 학교, 학부모,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지역별 조사 연구 등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 거쳐 최종 추진방안 마련
<p>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제공 평가대상 확대 : 초6, 중3, 고2('22) → 초5-6, 중3, 고1-2('23) → 초3-고2('24)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학교·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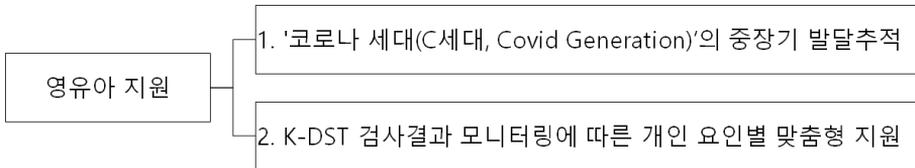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2.08.01.).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국가책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 과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 발달 및 교육 격차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많은 국내외 학자들에게 이슈가 되어 왔는데, 빈곤이 유아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영유아가 경험했던 발달과 교육에서의 결핍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의 생애에 걸쳐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운강, 이현정, 1999; 황혜정, 윤명희, 강성빈, 성낙운, 황혜신, 2002; Bradley, Caldwell, Rock, Ramey, Barbard, Gray, Hammond, Mitchell, Gottfried, Siegel & Johnson, 1989; Brooks-Gunn, Klebanov & Liaw, 1995; Duncan & Brooks-Gunn, 2000; McLoyd, 1998). 이와 같이 교육에서의 격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현상이지

만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점은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진행된다(손수민, 2013)는 것이다.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격차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2-2]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



가) '코로나 세대(C세대, Covid Generation)'의 중장기 발달추적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의 영유아기 또는 청소년기를 겪은 아이들을 'C세대(Covid Generation)'로 명명하고, 코로나 세대가 2016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어린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사회 변화가 커서 팬데믹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SBS, 2021. 10. 9.).⁷⁾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태어나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 영유아들이 이후 또래 관계,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생활과 학교 적응, 더 나아가 기초학습 능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려만 있을 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전세계적 조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의 착용,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교 폐쇄 등이 코로나 세대에 어떤 발달 영역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단기적인 분석이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분기별로 코로나 세대를 추적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출생 시부터 봉쇄된 세상과 마스크를 착용한 어른들과 마주한 영유아들의 타격이 컸음을 보고하면서 최소 5년 이상 해당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연구할 예정이다(JTBC 뉴스, 2022.12.21.).⁸⁾

7) SBS(2021. 10. 9.). [컬처 IN] 마스크가 언어 발달 방해?...코로나 키즈의 '잃어버린 3년'(https://www.sbs.com.au > korean > podcast-episode에서 2022. 12. 1. 인출)

8) JTBC 뉴스(2022.12.21.). "유년기는 한 번뿐"...'코로나 세대' 추적 관찰하는 영국(https://news.jtbc.co.kr /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024에서 2022.12.22. 인출).

동일 시점, 동일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여 2022년 수행된 국내외의 일부 연구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상기한 연구들은 각각 표본 지역, 검사 시점, 검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므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변인들 내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논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 K-DST 검사결과 모니터링에 따른 개인 요인별 맞춤형 지원

2018년 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도구'를 활용하도록 도입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83%에 이른다(법보신문, 2022.3.7.).⁹⁾ 2016~2020년까지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발달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추적검사요망은 다소 감소하였고,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력이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발달 지연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영유아 특성(지원이 필요한 영역)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V-2-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2016~2020)

검진 결과별(1)	검진결과별(2)	검진결과별(3)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발달평가결과	추적검사요망	소계	11.7	3.5	12.7	0.7	-3.3
	심화평가권고	소계	-7.8	6.7	12.8	4.1	7.4
	지속관리필요	소계	107.5	7.9	4.5	9.3	1.0
	기타	소계	788.3	-75.2	-43.5	-77.5	-96.5

자료: 국가통계포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5&conn_path=I3에서 2022.12.1. 인출)

9) 법보신문(2022.3.7.).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검진으로 체크 할 수 있어(<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35>에서 2022.12.1. 인출).

나. 가구의 격차 요인별 특성 고려

1) 배경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는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Raftery와 Hout(1993)가 제기한 MMI 가설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진학률이 100%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회계층간 격차는 변화하지 않으며, 노동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중간계급 혹은 노동계층 수준에 만족하는 반면, 중간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적어도 중간계층 수준에 도달해야만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층 간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기현, 2008: 43).

2013년부터 재정투자가 집중된 0~5세아 보편적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년간 보육·교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23.1%로, 비수급가구 12.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결핍을 경험하는 가구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유해미, 박은정, 엄지원, 정은희, 2019) 지적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검진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가정 수검률에 비해 매년 10%p 이상 낮아지고 있다(더인디고, 2022.10.12).

[그림 V-2-3] 최근 3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 명, %

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내국인가정(A)		다문화가정(B)				
	대상자	수검자(%)	대상자	수검자 (%)	수검률 차이(B-A)	대상자	수검자 (%)
2021년	2,374,829	2,081,481 (87.6)	92,892	67,966 (73.2)	14.4%p	22,227	18,877 (84.9)
2020년	2,393,028	2,001,171 (83.6)	95,275	62,915 (66.0)	17.6%p	30,064	22,242 (74.0)
2019년	2,616,890	2,043,955 (78.1)	95,199	59,926 (62.9)	15.2%p	31,950	21,748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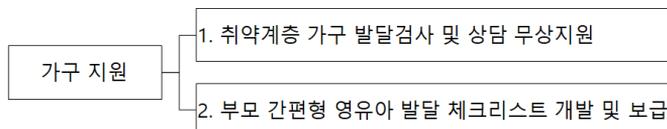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40472> 2022.11..08 인출)

2) 과제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 격차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기대 수준이 높았고 자녀의 학습 동기 부여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인회, 2021; 강영혜 외, 2005; 권영길, 2011; 김현주, 이병훈, 2005; 양정호, 2005).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대는 실제적인 교육 지원으로 이어져서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부담, 진로 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입시 정보 수집,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 자녀의 성적 관리,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등 학업 지원 활동으로 나타났다(김경근, 2005; 김경근, 강영혜, 2005; 김기석, 2005).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부모는 고소득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조건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심리적 여유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 황혜정, 1998; 박응임, 1988; 오혜진, 주경란, 2004).

본 연구의 결과,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냈고,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비인지적 영향력의 크기,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2-4] 가구 특성별 지원 과제



가) 취약계층 가구 발달검사 및 상담 무상지원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 높았으며,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로 전체 평균보다 14.8% 높았다(현대건강신문, 2021.10.5.).¹⁰⁾ 또한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권고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중 6.3%를 차지했던 2018년에 비해 올해 7월까지는 약 10%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밀진단 대상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더인디고, 2022.10.12.). 영유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발달 지연이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증진과 조기개입 등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을 통해 발달 지연의 조기 선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검사 기관 연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V-2-5] 2021년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권고 현황

단위: 명, %

내국인가정		다문화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자	심화평가권고	수검자	심화평가권고	수검자	심화평가권고
2,081,481	29,816	67,966	2,674	18,776	448
1.4%		3.9%		2.4%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40472> 2022.11.08 인출)

나) 부모 간편형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앱) 개발 및 보급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비인지적 특성(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평정에 의한 도구를 선택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집중시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로 인한 피로감, 이로 인한 회피가 2차년도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였다. 본

10) 현대건강신문(2021.10.5.). 영유아 건강검진도 양극화...가난할수록 미수검률 높아(<http://hnews.kr/news/view.php?no=57659>에서 2022.1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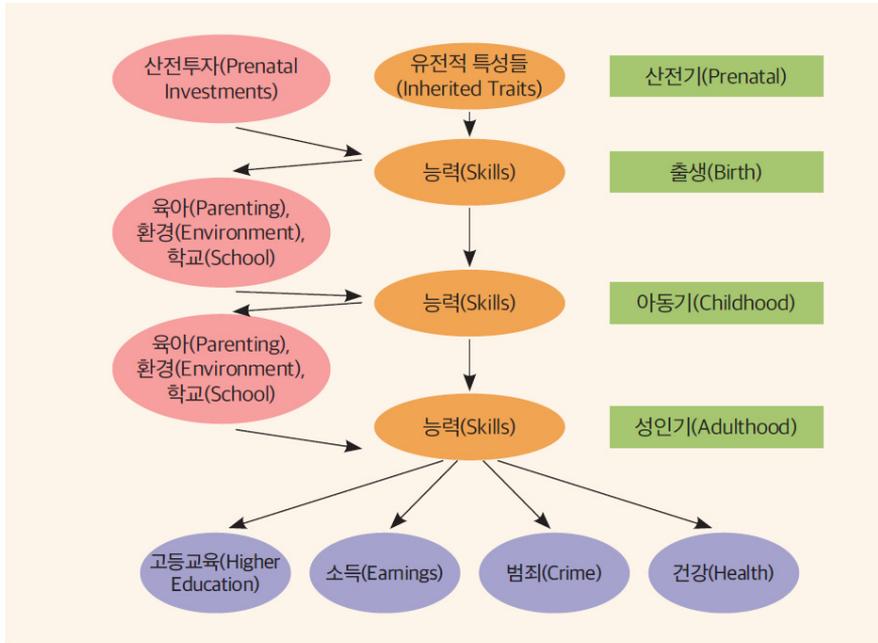
연구의 조사에서 교사와 부모의 발달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교사보다는 부모의 평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고, 기관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영유아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비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보다 쉽고, 간편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인지적 발달의 지연보다는 정서발달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문제 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간편형 체크리스트(앱)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앱)을 통해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기관(시설)-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

1) 배경

경제학에서는 생애 초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많은 실증 결과를 제시하면서(Cunha et al., 2006; Almond et al., 2011; Almond et al., 2018), 이를 인적자본이 동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모형화하여 설명한다(권성준, 2021:30). 동적 능력 형성 모형(Dynamic Skill Formation)에 의하면, 출생 직후의 인적자본 또는 능력(Skills)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들(inherited traits)과 산전 투자(prenatal investments)에 의해 결정되고, 출생 이후에는 영유아기, 청소년기, 대학교육기 등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인적자본이 축적된다(권성준, 2021). 즉, 영유아기는 출생 시 결정된 능력과 양육환경,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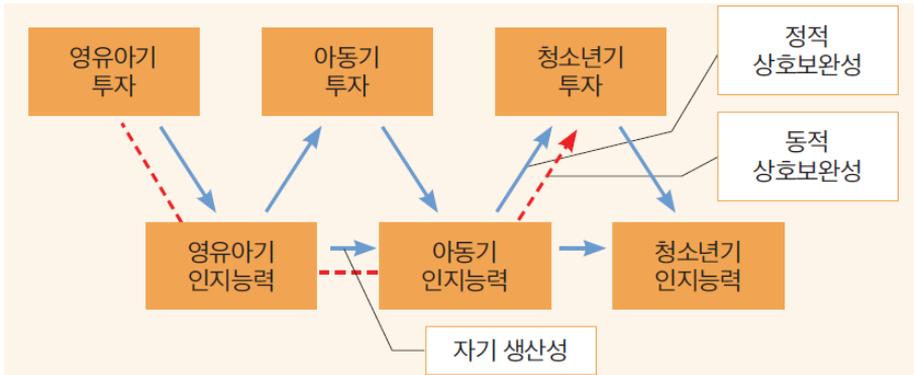
[그림 V-2-6] 동적 능력 형성 모형(Dynamic Skill Formation)



자료: Kautz et al.(2014), p. 32; 권성준(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 p. 45에서 재인용.

동적 능력 형성 모형의 중요한 개념은 능력의 자기 생산성(self-productivity), 정적 상호보완성(static complementarity), 동적 상호보완성(dynamic complementarity)이다. 능력의 자기 생산성은 이전 발달단계까지 형성된 능력이 동일한 유형의 능력을 생산하는 효과성을 의미하며, 정적 상호보완성은 능력이 투자효과에 미치는 영향, 동적 상호보완성은 특정 발달단계에서의 투자가 이후 발달 단계의 투자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권성준, 2021). 이와 같이 영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영향력까지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다. 인간 발달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전의 발달이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 시기 투자의 효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 시기의 격차 요인에 따른 조기 개입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그림 V-2-7] 자기 생산성, 정적 상호보완성, 동적 상호보완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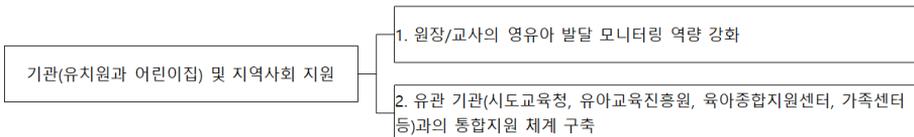


자료: 권성준(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 p. 47.

2) 과제

상기한 모형에 근거하면 생애 초기의 투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축적된 격차 요인은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영유아기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2-8] 영유아 기관(시설)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과제



가) 원장/교사의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강화

영유아의 기관(시설)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누구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담임 교사와 원장이다. 팬데믹 이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전보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고와 우려가 많은 상황이나 자녀의 발달에 대한 교사나 원장의 안내에도 인정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모 상담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영유아의 교사와 원장의 발

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 지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인간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은 이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 이후보다 영향력이 크고, 탄력성도 높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영유아 교사와 원장의 역할은 조기 선별을 위한 기초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과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최근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영유아 중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선별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은희, 이초록, 2022). 한편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서울시 보도자료, 2022.12.13.). 팬데믹 이외에도 맞벌이 증가와 디지털매체의 보편화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발달 지연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유아를 조기 진단·개입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발달 격차의 실증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영유아를 직접 검사를 수행했는데, 집중 기간이 길지 않은 영유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선정하는 작업에서부터 발달검사 참여자의 모집, 훈련된 검사자의 모집, 연구 전반에 대한 안내를 위한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논의와 준비를 위한 절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제약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격차 발생의 주요 변인 재검토

본 연구는 2022년 3월 시작하여 11월 초에 최종 정리가 되어야 하는 실질적 연구수행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주지하듯이 2022년 4월까지 팬데믹으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로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면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의 배경 탐색을 위한 문헌조사가 약 2개월, 심층면담 약 2개월, 설문문항 구성 및 확정 약 1.5개월(원내 멘토링 현장 전문가 검토 포함), IRB 승인 약 1.5개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달검사 수행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2년 하반기에 약 1.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는 만 2세반 영아 100명, 만 5세반 유아 100명 총 200명이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만 2세반 영아의 발달검사 수행 시간은 평균 30~40분이 소요되었고, 만 5세반 유아의 검사 수행 시간은 약 50~6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20개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을 검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탈한 표본은 다시 유사 지역의 희망하는 기관을 섭외하여, 기관 동의, 부모 동의 후 진행하는 동일 절차를 거쳤다. 이로 인해 계획된 기간에서의 연장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위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절대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모의 우울, 영아의 기관 적응 등)별 영향에 대한 추가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나. 추가 표집을 위한 예산 확보

본 연구에서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상황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높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비수도권에 비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변수별로 유의한 분석을 위한 최소 사례수가 증가하여 제한된 기간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유아 발달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표집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 취약계층의 참여 유인 마련

본 연구는 격차의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기 위해 1차 표집을 지역(저소득/중상)으로 설정하여 영유아 발달 검사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기관을 표집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센터 등을 중심으로 표집을 하게 되면, 지역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영유아 발달검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만 2세반과 만 5세반 부모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발달검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참여한 영유아를 추적하여 2차년도에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연속과제로 특정 지역, 특정 기관, 특정 영유아와 부모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에 자발적 동의와 신청에 기반하였다. 이에 영유아 발달에 관심이 높은 부모가 참여하였고, 이에 저소득 지역 기관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참여율이 낮았다. 이로 인해 소득의 양극단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임대 아파트 등 저소득 지역으로 표집을 하였으나 해당 기관 내에서도 영유아에 관심이 높은 적극적인 부모가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한국아동패널, 영유아 교육보육패널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보다 표본 수가 많아 전국 표집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기관에서는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참여를 기피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어 차년도 연구를 위한 취약 계층의 참여 유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 자기평정 척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내 멘토링,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국판 유아지능검사(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K-Vineland-2)를 수행하였다. 선술한 바와 같이 K-WPPSI-IV는 검사수행 시간이 30분~60분 정도로 영유아의 일반적인 집중 시간보다 장시간을 요구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의 전발적 발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함께 수행한 적응행동 검사(K-Vineland-2)는 부모가 평정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

구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 평정에 의한 도구를 선택한 것은 영유아의 집중시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로 인한 피로감, 이로 인한 회피가 차년도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임을 밝힌바 있다. 부모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영유아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편향된 것인지, 이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가정 및 기관의 세부 영향력 분석

부모의 신청과 동의에 기반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영유아 발달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부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의 학력 수준, 맞벌이의 비율이 높았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높은 참여자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가구 변인이 영유아발달의 환경 변인으로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소득, 학력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외의 변인에 대한 추가 심층분석을 통해 가정 내 세부 영향력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바. 수행검사 실시기간 고려

본 연구의 실제 수행기간은 9월 중순부터 10월말(추가검사는 11월초)까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어느 정도 기관 운영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된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 4월~5월까지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언급되었던 영유아발달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발달검사수행기간 동안 참여했던 기관들을 방문하면서도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 검사 참여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도 영유아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시기라 상반기보다 영유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영유아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반기보다는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행되어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요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혜, 김양분, 류한구, 김재철, 강태중(2005).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정원, 정윤경, 권미경(2022). 어머니의 COVID-19 로 인한 불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발달 장애 자녀 어머니와 비장애 자녀 어머니의 집단 간 차이. 열린부모교육연구, 14(2), 1-22.
- 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2021).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4), 95-120.
- 고용노동부(2021). 재택근무우수기업따라잡기: with 코로나 시대? with 재택근무가 답이죠.
- 곽노의, 김정철, 김유미, 박대근(2007). 영유아발달. 양서원.
- 교육부 보도자료(2020. 2. 28).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0. 6. 1).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 교육부(2017).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1. 1. 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1. 2. 19).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 구인회(2021). 팬데믹과 양극화. 교육정책포럼(332호, 2021. 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권성준(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302권0호, 30-54.
- 권성준, 윤정환(2022).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권영길(2011).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드는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불평등 지도.
- 권유진, 박준홍, 우연경, 이재진, 정연준, 홍미영, 김미지(2021). 초·중학교 원격수업에 서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권진아, 김지연(2021).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와 신체활동의 변화 탐색: 코로나19

-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 25(4), 593-616.
- 권혜진(2021). 유아교사가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맥락. 한국 통합사례관리학, 93-118.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 강영혜(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한국사회학회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23-747.
-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7.
- 김성현(2022).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2, 181-194.
- 김승희, 이한나(2020).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IDI 도시연구, (18), 9-45.
- 김기석(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2008).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9,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39-61.
- 김영경, 박완주(2022).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코비드감염 불안, 분리개별화 문제가 양육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4), 417-432.
-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중·김무웅(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9대 변화 예측. BioINwatch (BioIN+Issue+Watch). 20-34.
- 김은혜, 이복군(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마주한 어려움.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41-145.
- 김은희, 이초록(2022).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 김현경(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이병훈(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79-198.
- 더인디고(2022.10.12.).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계층보다 열악... “건강·경제 격차 우려”(https://theindigo.co.kr/archives/40472 2022.11..08 인출)
- 도남희, 이재희, 예한나(2019).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2.08.01.).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국가책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7-07.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 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원, 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 109, 35-67.
- 박영숙, 김낙홍, 신미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교육의 연령별 학급에 따른 실태 조사. 유아교육학논집, 25(1), 225-249.
- 박영숙, 박정화, 정현정(2021)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의 또래집단활동 통제 로 인한 유아발달 분석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2, 265-272.
-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2021)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에 따른 만2세 영아 발달특성 고찰,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3), 487-495.
- 박영아, 조미현(2020).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영 유아보육학, 125, 145-172.
- 박응입(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이경옥(2016). 한국아동의 지적 특성: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K

- WPPSI - IV)의 수행분석. 아동학회지, 37(6), 157-168.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WPPSI-IV 기술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배영임, 신혜리(2020).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가속하다. 경기연구원 이슈 & 진단, No 416.

배은정(2021).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은정, 박경자(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2(4), 445-45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 1. 26).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6. 16).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 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코로나19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내요!”.

보건복지부(2020.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 세종: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5. 21).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생활시설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40472> 2022.11..08 인출)

서울시 보도자료(2022.12.13.).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실태' 전국 최초

조사 결과 보고.

- 서혜정, 정하나(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원장의 경험 탐색.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08-113.
- 석민아, 문인경, 이병호(2021).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가정보육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3), 199-230.
- 성정현(2022). 코로나19 시기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경험. 한국가족복지학, 69(3), 123-159.
- 손병돈, 문혜진(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한국사회복지학, 73(3), 9-31.
- 손수민(2013). 사회양극화에 따른 유아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69-90.
- 신인철, 김기현(2011).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이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 127-150.
- 양수영(2022).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563-576.
- 양신영(2021).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 1-20.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0. 13). 코로나 방역인력 등 5.4만가구 긴급돌봄 지원, 여가부 적극행정 선보여.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15).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 오혜진, 주경란(2004). 유치원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아동교육, 13(2), 165-184.
- 유안진(2004). 아동발달의 이해. 문음사.

- 유정인, 이민영, 김경철(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운영실태와 지원요구 조사. *어린이미디어연구*, 20(1), 249-276.
- 유해미, 박은정, 엄지원, 정은희(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노동리뷰*(2020년 11월호), 35-49.
- 이동선(2021). 코로나19 1년-여성의 일·돌봄 변화와 전망②: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나(2021). 코로나19에 따른 유치원교사의 원격수업 실행경험과 지원요구. *인문사회*21, 12(1), 1823-1835.
- 이수연, 홍지인(20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아교사의 혁신적 교수행동으로써 긴급 원격수업 실행 관련 요인: 원장리더십, 지식공유 풍토, 교사전문성 개발, 변화지향성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5(3), 247-268.
- 이시효(2020).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 30(4), 172-207.
- 이유경, 이현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워킹맘의 육아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1), 171-201.
- 이윤주(2004). 재난피해의 심리적 영향과 재난극복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방법 :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2(1), 28-40.
- 이정연(2021).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교육정책포럼*(332호, 2021. 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이지영, 최림, 성지현(2022).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1), 1-25.
- 임숙경, 이대균(202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마주하는 보육교사의 일상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26(4), 295-319.
- 임아리, 문혜린(2021). 코로나19와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자녀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365-397.
- 정옥분(2019). *아동발달의 이해*(제3판). 학지사.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 복지학*, 69(4), 59-90.
- 정하나, 서혜정(2021). 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수업에서 동영상 매체 활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험.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4-119.
- 조성은, 김사혁, 이원태, 이호영, 문정옥, 이시직, 정선민, 최종화, 윤정섭, 윤정현, 이예원, 김상배, 이승주, 조동준, 김도훈, 이동진, 이소현, 김주희(2021).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미래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숙인(202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중앙일보(2022.11.16.). 말 느린 아이 두면 안된다...코로나가 영유아 발달에 미친 영향.
- 진주희, 김민진(2022). COVID-19 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정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2), 323-340.
- 질병관리청(2021). *간행물/통계*. www.kcdc.go.kr에서 2022. 6. 17. 인출.
- 최아라(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4), 1379-1390.
- 최예린(2020). 코로나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0, 50-63.
-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201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지, 권미량(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교실의 변화와 놀이지원방안에 대한 요구. *생태유아교육연구*, 20(2), 189-218.
- 최종화, 임영훈, 정일영, 윤정섭, 윤정현, 진설아, 김가은, 김단비, 이예원, 추수진, 박정호, 김지은(202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I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지현, 성현란(2010). 아동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 영향. 인지발달중재학, 1(1), 69-87.
-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 17(2), 29-46.
- 최효미(2021).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제87호(2021. 05. 28). 육아정책연구소.
- 하민경, 김은정(2021).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25(2), 163-182.
- 하정빈, 김영희(2022) 코로나19 시대의 부모의 심리적 증상과 정서 재평가 및 심리·행동 통제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6.2, 143-160.
- 하지영(2017).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07, 61-86.
- 현온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9
- 홍예지(2022). 어머니의 외로움,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3(2), 125-139.
- 황순백, 김지혜, 홍상화, 배성훈, 조성우(2015).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 (K-Vineland-II) 표준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851-876.
- 황예원, 김낙홍(2021). COVID-19 대응에 따른 서울의 한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어려움. 열린유아교육 연구, 26(4), 321-351.
- 황혜정, 윤명희, 강성빈, 성낙운, 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3-88
- Aguilar Ticona, J. P., Nery, N., Ladines-Lim, J. B., Gambrah, C., Sacramento, G., De Paula Freitas, B., . . . Costa, F. (2021). Developmental outcomes in children exposed to Zika virus in utero from a Brazilian urban slum cohort study.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15(2), e0009162. doi:10.1371/journal.pntd.0009162
- Almond, D., Currie, J. (2011). Human Capital Development before Age Five, In: Card, David and Ashenfelter, Orley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4B, North-Holland, Amsterdam and Boston, 1315-1486.

- Almond, D, Currie, J., & Duque, V. (2018). Childhood circumstances and adult outcomes:act II.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6(4), 1360-1446.
- Ashraf, M. A., Keshavarz, P., Hosseinpour, P., Erfani, A., Roshanshad, A., Pourdast, A., . . . Poordast, T.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 Systematic Review of Pregnancy and the Possibility of Vertical Transmission. *J Reprod Infertil*, 21(3), 157-168.
- Bai, Y., Yao, L., Wei, T., Tian, F., Jin, D. Y., Chen, L., & Wang, M. (2020). Presumed asymptomatic carrier transmission of COVID-19. *Jama*, 323(14), 1406-1407.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th, J. M., & Parke, R. D. (1993). Parent-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on children's transition to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173-195.
- Bhutta, Z. A., Guerrant, R. L., & Nelson, C. A. (2017). Neurodevelopment, Nutrition, and Inflammation: The Evolving Global Child Health Landscape. *Pediatrics*, 139(1), S12-S22. doi:10.1542/peds.2016-2828D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L., Ramey, C. T., Barnard, K. E., Gray, C., ... & Johnson, D. L. (198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A collaborative study involving six sites and three ethnic groups in North America.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217.
- Bratanoto, V. Z., Latiana, L., Forman, A., & Pranoto, Y. K. S. (2022). Bronfenbrenner's Bioecological Theory: School Readiness for Children in the Context of Distanc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urnal Pendidikan Usia Dini*, 16(1), 85-100.
- Bronfenbrenner, K. (Ed.). (2007). *Global unions: Challenging transnational capital through cross-border campaigns* (No. 13). Cornell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Klebanov, P. K., & Liaw, F. R. (1995). The learning,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251-276.
- Bullock, J., Haddow, G., & Coppola, D. P. (2017).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Butterworth-Heinemann.
- Canady, V. A. (2020). COVID-19 outbreak represents a new way of mental health service delivery. *Mental Health Weekly*, 30(12), 1-4.
- Carnevali, L., Gui, A., Jones, E. J. H., & Farroni, T. (2022). Face Processing in Early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of Behavioral Studies and Considerations in Times of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Psychology*, 13. doi:10.3389/fpsyg.2022.778247
- CDC.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ases in U.S. Atlanta, GA: US.
- Charney, S. A., Camarata, S. M., & Chern, A. (2021).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ommunication and language skills in children.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165(1), 1-2.
- Cheeran, M. C.-J., Lokensgard, J. R., & Schleiss, M. R. (2009). Neuropathogenesis of Congenital Cytomegalovirus Infection: Disease Mechanisms and Prospects for Intervention. *Clinical Microbiology Reviews*, 22(1), 99-126. doi:doi:10.1128/CMR.00023-08
- Cunha, F. & Heckman, JJ. (2006). *Investing in Our Young People*,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 Damer, N., Boutros, F., Süßmilch, M., Kirchbuchner, F., & Kuijper, A. (2021). Extended evaluation of the effect of real and simulated masks on face recognition performance. *IET biometrics*, 10(5), 548-561.
- Davies, C., Hendry, A., Gibson, S. P., Gliga, T., Mcgillion, M., & Gonzalez-Gomez, N.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during COVID-19 boosts growth in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0(4). doi:10.1002/icd.2241

- de Figueiredo, C. S., Sandre, P. C., Portugal, L. C. L., Mázala-de-Oliveira, T., da Silva Chagas, L., Raony, Í., ... & Bomfim, P. O. S. (2021). COVID-19 pandemic impact on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and Biological Psychiatry*, 106, 110171.
- Del Boca, D., Oggero, N., Profeta, P., & Rossi, M. (2020). Women's and men's work, housework and childcare, before and during COVID-19.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8(4), 1001-1017.
- Delvecchio, E., Orgilés, M., Morales, A., Espada, J. P., Francisco, R., Pedro, M., & Mazzeschi, C. (2022). COVID-19: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ping strategies in preschoolers, school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9, 101390.
- Deoni, S. C., Beauchemin, J., Volpe, A., & D'Sa, V. (2021). The COVID-19 Pandemic and Early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Development in Children Born During the Pandemic and Historical References.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 Domínguez, B., Romero, L. L., Fraguera, J. A. G., & Triñanes, E. R. (2020). Emotion regulation skill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fluences on specific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Revista de Psicología Clínica con Niños y Adolescentes*, 7(3), 81-87.
- Doyle, O. (2020). COVID-19: Exacerbating educational inequalities. *Public Policy*, 1-10.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Dunton, G. F., Do, B., & Wang, S. D. (2020). Early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in children living in the U.S. *BMC Public Health*. 20(1), 1351.
- Estes, M. L., & McAllister, A. K. (2016). Maternal immune activation: Implications for neuropsychiatric disorders. *Science*, 353(6301), 772-777. doi:doi:10.1126/science.aag3194

- Fan, Y., Wang, H., Wu, Q., Zhou, X., Zhou, Y., Wang, B., . . . Zhu, T. (2021). SARS pandemic exposure impaire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China. *Scientific Reports*, 11(1). doi:10.1038/s41598-021-87875-8
- Fegert, J. M.,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 (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20), 1-11.
- Firestein, M. R., Dumitriu, D., Marsh, R., & Monk, C. (2022). Maternal Mental Health and Infant Develop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Psychiatry*. doi:10.1001/jamapsychiatry.2022.2591
- Gayatri, M. (2020). The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time of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Humanities & Social Sciences Reviews*, 8(6), 46-54.
- Giménez-Dasí, M., Quintanilla, L., Lucas-Molina, B., & Sarmiento-Henrique, R. (2020). Six weeks of confinement: psychological effects on a sample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primary educ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1, 590463.
- Gordon-Lipkin, E., & Peacock, G. (2019). The Spectrum of Developmental Disability with Zika Exposure: What Is Known, What Is Unknown, and Implications for Clinicians. *J Dev Behav Pediatr*, 40(5), 387-395. doi:10.1097/DBP.0000000000000665
- Green, J., Staff, L., Bromley, P., Jones, L., & Petty, J. (2021). The implications of face masks for babies and famil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discussion paper. *Journal of Neonatal Nursing*, 27(1), 21-25.
- Grumi, S., Provenzi, L., Accorsi, P., Biasucci, G., Cavallini, A., Decembrino, L., . . . Borgatti, R. (2021). Depression and Anxiety in Mothers Who Were Pregnant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Northern Italy: The Role of Pandemic-Related Emotional Stress and Perceived Social

- Support. *Frontiers in Psychiatry*, 12. doi:10.3389/fpsy.2021.716488.
- Guan, W. J., Ni, Z. Y., Hu, Y., Liang, W. H., Ou, C. Q., He, J. X., ... & Zhong, N. S. (2020).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Chin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2(18), 1708-1720.
- Holmes, E, O'Connor, RC, Perry, H, Tracey, I, Wessely, S, Arseneault, L., ... Bullmore, E. (2020).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iorities for the COVID-19 pandemic: a call for action for mental health science. *The Lancet Psychiatry*, 7(6), 547-560.
- Hopkins, J. (2022).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JHU).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Hopkins, J. (2020).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JHU).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Huang, P., Zhou, F., Guo, Y., Yuan, S., Lin, S., Lu, J., . . . Qiu, X. (2021).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Infant Neurodevelopment: A Comparison Before and During COVID-19. *Front Pediatr*, 9, 662165. doi:10.3389/fped.2021.662165.
- Jáuregui, A., Argumedo, G., Medina, C., Bonvecchio-Arenas, A., Romero-Martínez, M., Okely, A.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movement behaviors in toddlers and preschool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cross-sectional study in Mexico. *Prev Med Rep*. 2021;24: 101552.
- Jáuregui, A., Lambert, E. V., Panter, J., Moore, C., & Salvo, D. (2021). Scaling up urban infrastructure for physical activity in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The Lancet*, 398(10298), 370-372.
- Jews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Jiao, W. Y., Wang, L. N., Liu, J., Fang, S. F. Jiao, F. Y., Pettoello-Mantovani, M., Somekh, E. (2020).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 Journal of Pediatrics*,

221, 264-266.

- Kahn, M, Barnett, N, Glaze, r A, Gradisar, M. (2021). COVID-19 babies: auto-videosomnography and parent reports of infant sleep, screen time, and parent well-being in 2019 vs 2020. *Sleep Med*, 85, 259-267. doi:10.1016/j.sleep.2021.07.033.
- Kautz, T, Heckman, JJ, Diris, R, Weel, B., & Borghans, L. (2014). *Fostering and Measuring Skills: Improving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to Promote Lifetime Success*. NBER Working Paper No. 20749.
- Krauer, F., Riesen, M., Reveiz, L., Oladapo, O. T., Martínez-Vega, R., Porgo, T. V., . . . Low, N. (2017). Zika Virus Infection as a Cause of Congenital Brain Abnormalities and Guillain-Barré Syndrome: Systematic Review. *PLOS Medicine*, 14(1), e1002203. doi:10.1371/journal.pmed.1002203
- Lau, E. Y. H., & Lee, K. (2021). Parents' views on young children's distance learning and screen time during COVID-19 class suspension in Hong Ko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2(6), 863-880.
- Lee, N., Hui, D., Wu, A., Chan, P., Cameron, P., Joynt, G. M., . . . Sung, J. J. Y. (2003). A Major Outbreak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Hong Kong.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20), 1986-1994. doi:10.1056/nejmoa030685
- Maks-Solomon, C., & Rigby, E. (2020). Are democrats really the party of the poor? Partisanship, class, and representation in the US sena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3(4), 848-865.
- Manning, K. Y., Long, X., Watts, D., Tomfohr-Madsen, L., Giesbrecht, G. F., & Lebel, C. (2021). Prenatal maternal di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effects on the infant brain.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 Marchetti, D., Fontanesi, L., Mazza, C., Di Giandomenico, S., Roma, P., & Verrocchio, M. C. (2020). Parenting-related exhaustion during the Italian COVID-19 lockdow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5(10), 1114-1123.
- Mare, R. D. (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370), 295-305.

- Mazza, C., Ricci, E., Biondi, S., Colasanti, M., Ferracuti, S., Napoli, C., & Roma, P. (2020). A nationwide survey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talian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9), 3165.
- McPherson, A. V., Lewis, K. M., Lynn, A. E., Haskett, M. E., & Behrend, T. S. (2009).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for abusive and nonabusiv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1), 61-69.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
- Mednick, S. A., Machon, R. A., Huttunen, M. O., & Bonett, D. (1988). Adult Schizophrenia Following Prenatal Exposure to an Influenza Epidemic.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2), 189-192. doi:10.1001/archpsyc.1988.01800260109013
- Mlakar, J., Korva, M., Tul, N., Popović, M., Poljšak-Prijatelj, M., Mraz, J., . . . Avšič Županc, T. (2016). Zika Virus Associated with Microcephal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4(10), 951-958. doi:10.1056/nejmoa1600651
- Moore, S. A., Faulkner, G., Rhodes, R. E., Brussoni, M., Chulak-Bozzer, T., Ferguson, L. J., Mitra, R., O'Reilly, N., Spence, J. C., Vanderloo, L. M., & Tremblay, M. S. (2020). Impact of the COVID-19 virus outbreak on movement and play behaviours of Canadian children and youth: a 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7(85), 1-11.
- Monteiro, R., Rocha, N. B., & Fernandes, S. (2021). Ar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infants and children aged younger than 7 years related to screen time exposur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nfinement? an exploratory study in Portugal. *Frontiers in Psychology*, 12, 590279.
- Morelli, M., Cattelino, E., Baiocco, R., Trumello, C., Babore, A., Candelori, C., & Chirumbolo, A. (2020). Parents an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The influence of parenting distress and

-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2584.
- Moulin, F., El-Aarbaoui, T., Bustamante, J. J. H., Héron, M., Mary-Krause, M., Rouquette, A., ... & Melchior, M. (202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symptoms of emotional difficulties and hyperactivity/inattention during the COVID-19-related lockdown in France: results from a community sampl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7), 1-12.
- Mutter, John. C. (2016). The disaster profiteers : how natural disasters make the rich richer and the poor even poorer, 재난 불평등 :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장상미 옮김). 파주:동녘(원판 2015).
- Ng, P. C., Leung, C. W., Chiu, W. K., Wong, S. F., & Hon, E. K. L. (2004). SARS in Newborns and Children. *Neonatology*, 85(4), 293-298. doi:10.1159/000078174
- Orgilés, M., Morales, A., Delvecchio, E., Mazzeschi, C., & Espada, J. P. (2020). Immediat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COVID-19 quarantine in youth from Italy and Spain. *Frontiers in psychology*, 2986. doi:10.3389/fpsyg.2020.579038
- Özmert, E., Toyran, M., & Yurdakök, K. (2002). Behavioral correlates of television viewing in primary school children evaluated by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6(9), 910-914.
- Pandya, A., & Lodha, P. (2021). Social Connectedness, Excessive Screen Time During COVID-19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Current Evidence. *Frontiers in Human Dynamics*, 3. doi:10.3389/fhumd.2021.684137
- Pang, X. (2003). Evaluation of Contro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Beijing, 2003. *JAMA*, 290(24), 3215. doi:10.1001/jama.290.24.3215
- Parada-Fernández, P., Herrero-Fernández, D., Jorge, R., & Comesaña, P. (2022). Wearing mask hinders emotion recognition, but enhances perception of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4, 111195.

- Patrick, S. W., Henkhaus, L. E., Zickafoose, J. S., Lovell, K., Halvorson, Alese., Loch, Sarah., Letterie, M., Davis, M. M. (2020). Well-being of Parents an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Pediatrics*, 146(4), e2020016824.
- Patterson, P. H. (2009). Immune involvement in schizophrenia and autism: Etiology, pathology and animal models. *Behavioural Brain Research*, 204(2), 313-321. doi:10.1016/j.bbr.2008.12.016
- Pedrotti, M. L., Lombard, F., Baudena, A., Galgani, F., Elineau, A., Petit, S., ... & Gorsky, G. (2022). An integrative assessment of the plastic debris load in the Mediterranean Se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155958.
- Perrin, D. D. (2016). Ionisation constants of inorganic acids and bases in aqueous solution (No. 29). Elsevier.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 Provenzi, L., Grumi, S., Altieri, L., Bensi, G., Bertazzoli, E., Biasucci, G., . . . Borgatti, R. (2021). Prenatal maternal 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nfant regulatory capacity at 3 month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doi:10.1017/s0954579421000766
- Pujiastuti, S. I., Hartati, S., & Wang, J. (2022). Socioemotional competencies of Indonesian preschoolers: Comparisons between the pre-pandemic and pandemic periods and among DKI Jakarta, DI Yogyakarta and West Java provinc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3(5), 877-892.
- Raftery, A. E., &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41-62.
- Santrock. John. W. (2014). *Chil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Education.

- Sama, B. K., Kaur, P., Thind, P. S. (2020). Implications of COVID-19-induced nationwide lockdown on children's behaviour in Punjab, India.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7(1), 128-135.
- Shah, K., Mann, S., Singh, R., Bangar. R., & Kulkarni, R. (2020).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ureus*, 12(8), e10051.
- Shek, C. C., Ng, P. C., Fung, G. P. G., Cheng, F. W. T., Chan, P. K. S., Peiris, M. J. S., . . . Fok, T. F. (2003). Infants Born to Mothers With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Pediatrics*, 112(4), e254-e254. doi:10.1542/peds.112.4.e254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hinomiya, Y., Yoshizaki, A., Murata, E., Fujisawa, T. X., Taniike, M., & Mohri, I. (2021). Sleep and the General Behavior of Infants and Parents during the Closure of Schools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Comparison with 2019 Data. *Children*, 8(2), 168.
- Shook, L. L., Sullivan, E. L., Lo, J. O., Perlis, R. H., & Edlow, A. G. (2022). COVID-19 in pregnancy: implications for fetal brain development.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28(4), 319-330. doi:10.1016/j.molmed.2022.02.004
- Shorer, M., & Leibovich, L. (2022). Young children's emotional stress reacti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al playfulnes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2(6), 861-871.
- Shuffrey, L. C., Firestein, M. R., Kyle, M. H., Fields, A., Alcántara, C., Amso, D., . . . Dumitriu, D. (2022). Association of Bir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Neurodevelopmental Status at 6 Months in Infants With and Without In Utero Exposure to Maternal SARS-CoV-2 Infection. *JAMA Pediatrics*, 176(6), e215563. doi:10.1001/jamapediatrics.2021.5563
- Singh, L., Tan, A., & Quinn, P. C. (2021). Infants recognize words spoken

- through opaque masks but not through clear masks. *Developmental Science*, 24(6). doi:10.1111/desc.13117
- Sparrow, S. S., Balla, D. A., Cicchetti, D. V., Kraijer, D. W., Bildt, A. D., Sytéma, S., & Minderaa, R. B. (2005). Vineland-S.
- Spinelli, M., Lionetti, F., Pastore, M., Fasolo, M. (2020). Parents stres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in families facing the COVID-19 outbreak in Italy. *Front Psychol.* 11:1713 doi: 10.3389/fpsyg.2020.01713.
- Spinelli, M, Lionetti, F, Setti, A., & Fasolo, M. (2021). Parenting stres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 emotion regula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60(2), 639-653. doi: 10.1111/famp.12601.
- Sprang, G., & Silman, M. (201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arents and youth after health-related disasters.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7(1), 105-110.
- Stajduhar, A., Ganel, T., Avidan, G., Rosenbaum, R. S., & Freud, E. (2022). Face masks disrupt holistic processing and face perception in school-age children.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7(1). doi:10.1186/s41235-022-00360-2
- Tanacan, A., Yazihan, N., Erol, S. A., Anuk, A. T., Yucel Yetiskin, F. D., Biriken, D., . . . Sahin, D. (2021). The impact of COVID-19 infection on the cytokine profile of pregnant women: A prospective case-control study. *Cytokine*, 140, 155431. doi:10.1016/j.cyto.2021.155431
- The World Bank. (2020). World Bank – New Grants and Loans. *Africa Research Bulletin*, 57(8), 23119A-23119C.
- Twenge, J. M., & Campbell, W. K. (2018). Associations between screen time and lower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Preventive medicine reports*, 12, 271-283.
- UN.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 Wang, Y., Chen, L., Wu, T., Shi, H., Li, Q., Jiang, H., . . . Qiao, J. (2020). Impact of Covid-19 in pregnancy on mother's psychological status and infant's neurobehavior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cohort study in China. *BMC Medicine*, 18(1). doi:10.1186/s12916-020-01825-1
- Widge, A. T., Roupheal, N. G., Jackson, L. A., Anderson, E. J., Roberts, P. C., Makhene, M., ... & Beigel, J. H. (2021). Durability of responses after SARS-CoV-2 mRNA-1273 vaccina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4(1), 80-82.
- Wijaya, R. P. C., Bunga, B. N., & Kiling, I. Y. (2022). Socio-emotional struggles of young children during COVID-19 pandemic: Social isolation and increased use of technolog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20(1), 113-127.
- Wu Q., Xu Y. (2020). Parenting stress and risk of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family stress theory-informed perspective. *Developmental Child Welfare*, 2(3). 180-196.
- Yockey, L. J., Lucas, C., & Iwasaki, A. (2020). Contributions of maternal and fetal antiviral immunity in congenital disease. *Science*, 368(6491), 608-612. doi:doi:10.1126/science.aaz1960
- Yogman, M., Garner, A., Hutchinson, J., Hirsh-Pasek, K., Golinkoff, R. M., Baum, R., ... &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2018). The power of play: A pediatric role in enhancing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Pediatrics*, 142(3).
- Zeanah, C. H., Egger, H. L., Smyke, A. T., Nelson, C. A., Fox, N. A., Marshall, P. J., & Guthrie, D. (2009). Institutional Rearing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Romania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6(7), 777-785. doi:10.1176/appi.ajp.2009.08091438
[참고 사이트]
- Zhou, H., Huang, M., Zhang, T., Zhu, X., & Liu, B. (2018, April). Emotional chatting machine: Emotional conversation genera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memory.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32, No.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08&linkId=48827829&menuId=MENU01874&maxIndex=00488278299998&minIndex=0048753806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검색일: 2022. 3. 14)



Abstract

A Study on How to Resolve the Gap in Development and Learning of Young Children after COVID-19(I)

Eun-Young Choi, Eun-young, Kim, Ja-Yeun, Koo, Hye-Joo, Cho,
Yoon-kyung, Jeong, Young-kyu, Shim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empirical data on the developmental gap of young children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conducted in this regard, driven by social concerns about the developmental gap of young children amplified by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will be conducted for two years from 2022 to 2023, planning for 2021, when COVID-19 pandemic was a seriou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there is a gap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learning, if so, what the cause is, and to suggest ways to mitigate the factors that caused the gap.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learning after the COVID-19 pandemic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reflect the voices of field exper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we visited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o collect opinions from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Based on this, background variables that may have affected development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were investigated. Developmental tests(K-WPPSI-IV, K-Vineland-2) were conducted for 2-year-old class and 5-year-old class(100 each, 200 total)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addition, the overall developmental status of young children was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arents(100 each, total 200) and teachers(40 total) in charge (40 total) of young children who performed developmental testing. Based on the results,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abilities (K-WPPSI-IV) of young children, both the 2-year-old class and the 5-year-old class showed an average level. This is becau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a college degree or higher and the proportion of dual-income households are high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high socio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those of standardization studies.

Second, the combined score of the adaptive behavior(K-Vineland-2) of children in 2-year-old class and children in 5-year-old class also showed an average level. Specifically, children in the 5-year-old class received high scores in the sub-domain of soci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However, children in the 2-year-old class scored higher in the motor domain. Further studies to elucidate these differences are required.

Thir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which is an individual variable of young children, in cognitive development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etween 2 and 5 years old. On the other hand, in the 2-year-old class,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vocabulary acquisition index than children from single-income families, and the adaptive behavior of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was higher than those from single-income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specific reasons why young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show a higher level.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gnitive ability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2-year-old class children. However, in the 5-year-old class, children from high-income families showed high performance levels in the language comprehension index and flow reasoning index. In addition, there was no overall difference in adaptive behavior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but children from families with low household income showed higher levels of adaptive behavior in the fine

motor category of 2-year-old class children. Therefore,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is are needed.

This study began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may have impacted throughout childhood.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interpretation, but the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2-year-old class and the 5-year-old class was found to be at a similar level to the standardized test results before the COVID-19 pandemic.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upper-middle and lower-middle famil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suggest that customized support for those who are likely to experience the educational gap discussed in the polarization study conducte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may be more actively needed.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현황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 및 발달, 기관 및 가정환경 변화,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조사수행기관  Ipsos
주 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5층
입소스주식회사 사회여론조사본부
연 락 처 이민영 차장 02-6464-5333
황지은 과장 02-6464-53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가정 및 주양육자 변화

1. 귀댁의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은 **2019년(코로나19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2020-2021)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1) 가구 총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가구 총 지출	①	②	③	④	⑤	
2-1) 자녀양육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2-2) 사교육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3)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양육시간)	①	②	③	④	⑤	
4)母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양육시간)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6) 야외활동 시간	①	②	③	④	⑤	
7)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8) 학원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9) 자녀의 수면시간	①	②	③	④	⑤	
10)父의 평균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11)母의 평균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귀댁의 자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돌봄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이용하지 않았다
- ② 가끔 이용하였다
- ③ 많이 이용하였다

2-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귀댁의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부
- ② 모
- ③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
- ④ 친인척(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 ⑤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 ⑥ 민간 육아도우미
- ⑦ 기타 ()

II. 영유아 생활

1. (만 2세만 해당) 다음은 00의 특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항목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Ⅲ.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1.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기관 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이용하던 기관을 바꿈 → 문1-1
- ② 기관 이용을 중단함 → 문1-2
- ③ 이용 시간을 조정함 → 문1-3
- ④ 기타 () → IV. 영유아 발달 문1로 이동
- ⑤ 기관 이용 변화 없음 → IV. 영유아 발달 문1로 이동

1-1. 이용하던 (유치원·어린이집)기관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기간의 휴원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움
- ② 충분한 시간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음
- ③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음
- ④ 기타 ()

1-2. (유치원·어린이집)기관 이용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기간의 휴원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움
- ② 자녀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 ③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음
- ④ 기타 ()

1-3. (유치원·어린이집)기관 이용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 ①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시간을 최대한 줄임
- ②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용시간을 줄임
- ③ 영유아들의 이용이 감소하면서 교사 대 아동 수가 낮아져 이용시간을 늘임
- ④ 기타 ()

Ⅳ. 영유아 발달

1. 귀댁의 000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인지 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⑤
5) 신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영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녀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명랑한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2)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4)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 간다	①	②	③	④
5)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후 토라지거나 시무룩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속상해하거나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8)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0)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 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등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11)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정신없이 놀지 않고, 혹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들러붙는다	①	②	③	④
13) 에너지가 넘쳐흘러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5)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6)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할 때 에너지가 지나치게 넘친다	①	②	③	④
18) 표정이 없거나 공허하며 멍한 듯 보인다	①	②	③	④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0) 충동적이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22)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하면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23)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을 간섭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예: 화, 두려움, 좌절, 힘들어함)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V. 응답자 배경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4-1. 귀하의 **취업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미취업

4-2. 귀하의 **경제활동 현황**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맞벌이

② 외벌이

5. 귀하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예)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이면, 주 총 40시간

주 총 시간

6. 귀하는 팬데믹(2020-2021) 이후 취업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취업상태 변화

정규직 → 비정규직 또는 미취업, 비정규직 → 정규직 또는 미취업,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또는 미취업,

비임금근로자(자영업) → 임금근로자 또는 미취업 등의

근로상태 및 근무시간 형태 변화를 의미함

① 변화됨

② 변화없음

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정도 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미만
 ④ 200-250만원 미만 ⑤ 250-300만원미만 ⑥ 300-350만원미만
 ⑦ 350-400만원미만 ⑧ 400-450만원미만 ⑨ 450-500만원미만
 ⑩ 500-600만원미만 ⑪ 600만원이상

8. 귀하는 팬데믹(2020-2021) 기간 중 직장에서 다음의 정책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책	이용함	회사내 제도 있으나 미이용	회사내 제도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
1) 돌봄휴가	①	②	③	④
2) 돌봄휴직	①	②	③	④
3)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4) 유연근무제	①	②	③	④
5) 재택근무	①	②	③	④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①	②	③	④

9.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수 명

9-1. 자녀 중 미취학 자녀는 몇 명 입니까?

미취학 자녀 명

10.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이용 기간(해당 자녀)

- 10-1. ① 유치원(년 개월) ② 어린이집(년 개월)
 ③ 기타() (년 개월)

10-2. 현재 이용기관

- ① 유치원(년 개월) ② 어린이집(년 개월)

17. 귀하의 배우자는 팬데믹(2020-2021) 기간 중 직장에서 다음의 정책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책	이용함	회사내 제도 있으나 미이용	회사내 제도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
1) 돌봄휴가	①	②	③	④
2) 돌봄휴직	①	②	③	④
3)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4) 유연근무제	①	②	③	④
5) 재택근무	①	②	③	④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①	②	③	④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현황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 및 발달, 기관 및 가정환경 변화,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조사수행기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5층
입소스주식회사 사회 여론조사본부
연 락 처 이민영 차장 02-6464-5333
황지은 과장 02-6464-53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1.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④ 매우 영향을 미침

2. **긴급 돌봄 시** 선생님께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 ② 주기적인 방역
- ③ 방역 관련 물품의 부족
- ④ 인력 부족
- ⑤ 기타 ()
- ⑥ 긴급돌봄 경험 없음

3.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고용 불안
- ② 급여 수준 감소
- ③ 감염에 대한 두려움
- ④ 업무 과중(원격수업으로 인한 준비 등)
- ⑤ 부모의 요구 증가
- ⑥ 기타 ()

II. 영유아의 생활

1. (만2세만 해당)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잘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난감 등을 다른 친구들과 잘 나누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기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친구가 어려워할 때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쾌활하고 명랑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편안하며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유아들이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놀이친구로서 다른 유아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행되고 있는 놀이 중간에도 쉽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대체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독립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교실활동이나 역할에 새로운 제안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구력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하루의 일과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체로 교사에게 잘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활동 중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6) 하루 일과 활동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히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 5세만 해당)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sqrt{\quad}$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Ⅲ. 영유아 발달

1. 선생님께서는 OO(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인지 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⑤
5) 신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영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OO(이)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명랑한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2)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4)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	①	②	③	④
5)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후 토라지거나 시무룩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속상해 하거나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8)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때를 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별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등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정신없이 놀지 않고, 혹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들러붙는다	①	②	③	④
13) 에너지가 넘쳐흘러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5)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6)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할 때 에너지가 지나치게 넘친다	①	②	③	④
18) 표정이 없거나 공허하며 멍한 듯 보인다	①	②	③	④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0) 충동적이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22)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23)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을 간섭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 (예: 화, 두려움, 좌절, 힘들어함)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정서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IV. 응답자 배경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가 가진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유치원 정교사()급

② 보육교사()급

③기타()

5. 귀하가 가진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VI. 문4. 응답보기) 및 **최초자격** 취득 경로는 어디입니까?

① 2년제 대학

② 3년제 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⑤ 한국방송통신대학

⑥ 사이버대학

⑦ 학점은행제

⑧ 보육교사교육원

⑨ 기타 ()

6. 현재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7. **현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8. 귀하의 **교육·보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치원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어린이집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9. 현재 담당하는 학급을 표시해 주세요.

① 만2세반

② 만 5세반

③ 혼합반 () 세 반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¹¹⁾

인생초기 사회 정서적 유능성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사회정서적 유능성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며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포함한다. 가령,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이나 타인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적 능력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능성은 타고난 특성과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특히, 사회정서 발달의 기초는 미취학 아동, 즉, 영유아기에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영유아기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사회적 대상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유능성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비대면 교육 등의 조치들은 영유아기 핵심적 발달 과제의 거의 모든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타인과의 접촉 제한과 직접적 상호 작용의 부족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에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는 영유아기이다. 영유아기의 모든 경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의 유능성과 인성이 자라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생후 초기 두뇌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삶 안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고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hutta, Guerrant, & Nelson, 2017).

한편 영유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이 기존의 환경에 이미 적응한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과는 전혀 다를 가능성도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린 영아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세상일 수 있다. 가령, 이들에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경험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태어나 영유아기를 보내는 아동들의 발달은 급격한 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기존의 아동들에 비해 덜 취약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의 결과들은 이들의 발달은 어느 단계의 인간보다 현저하게 취약함을 증명하고 있다.

가령, 사회적 봉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11) 본 글은 외부공동연구진 정윤경 교수(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가 작성함.

부모들을 대상으로 1,480명의 미취학, 학령기 아동, 후기 청소년 간의 심리적 증상 및 대처전략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정서 상태 및 행동의 변화가 있었지만 영유아기 아동에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아시아권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Delvecchio, E., Orgilés, M., Morales, A., Espada, J. P., Francisco, R., Pedro, M., & Mazzeschi, C., 2022)¹²⁾.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시점, 유럽 소아 과학 협회-유럽 국가 소아과 협회 연합(The European Paediatric Association; Union of National European Paediatric Societies and Associations, EPA-UNEPSA)에서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한 아동 행동과 정서 반응을 연구한 결과, 어린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는 덜 취약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문제행동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의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집착을 더 많이 드러냈다(Jiao et al, 2020, 264-266).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영유아기 아동들이 누구보다 더 취약한 집단임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조치들은 아동을 둘러싼 발달적 생태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켜 어린 아동과 호혜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게 한 것이다(Maks-Solomon, C. & Rigby, E., 2020¹³⁾).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적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주의 깊게 연구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이끄는 조치가 무엇보다 급선무가 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과 적응적 특성에 대한 최근 연구 및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가 겪는 사회정서 발달의 특성, 적응의 어려움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야기한 도전적 환경의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적 발달에 추가적 위험요인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1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93397322000028?casa_token=LLR34oFdEVgAAAAA:1dqju8mley-qViT1qJqDcd3pv329JwgyI0PrLIDxZaUCO9-h3PJbnhJit06WZElnk m1D6AW2h6k(인출일: 2022년 9월 1일).

13) Maks-Solomon, C., & Rigby, E. (2020). Are democrats really the party of the poor? Partisanship, class, and representation in the US sena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3(4), 848-865(인출일: 2022년 9월 1일).

1)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사회·정서 발달 및 적응적 특성

가) 정서반응 및 정서조절

영유아기는 정서적 유능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는 이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두엽과 급속하게 발달하는 실행 기능은 모든 조절 능력의 핵심 영역이며,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서적 유능성은 뇌의 성숙과 인지적 발달만으로는 키워지지 않는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 즉,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회 환경적 체계 속의 따듯하고 유능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체계는 정서 발달에 그리 호혜적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있는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특성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서두에 소개된 유럽 국가들의 공동 연구에서 85.7%의 부모가 봉쇄기간 중 자녀의 정서 상태 및 행동의 변화가 있음을 보고했다. 아동들은 집중의 어려움, 지루함, 과민성, 초조함, 안전부절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평소보다 더 많이 불안해함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영유아기 아동)들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더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부모에게 더욱 의존하고 많이 울며 강하게 화를 내는 등 부정적 정서 표현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기 아동에게서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과는 달리, 감염에 대한 걱정과 같은 사고영역보다는 정서적 불안함이나 행동 및 수면과 같이 기본적인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 관련된 영역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였다(Orgil´es, Morales, Delvecchio, Mazzeschi, & Espada, 2020)¹⁴⁾. Singh와 그의 동료들(2021)¹⁵⁾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학령전기 아동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보채고, 부모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위가 늘어나며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초기에 감염이 가장 심각했던 우한을 중심으로 아동의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에

14) file:///C:/Users/user/Downloads/fpsyg-11-579038.pdf(인출일: 2022년 9월 1일).

15)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016517812031725X?token=A522A866FE6271AF5F2E145B11097A4DFE92067209762A6A10DADB2378F4A197510752164AFE9FA2DB264FFA930B84C0&originRegion=us-east-1&originCreation=20230130071012>(인출일: 2022년 9월 1일).

서도 영유아들의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적응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 확산 지역 중심으로 보호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아동들에게서 집착, 산만, 짜증 및 과민함, 감염병이나 건강에 관하여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몽과 불면증, 식욕 부진, 신체적 스트레스, 불안과 부주의, 집착, 분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3-6세의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집착을 더 많이 드러냈다(Jiao et al., 2020, 264-266).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 및 정서적 반응을 살펴보았다(양수영, 2022).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질병 위험성, 질병 예방법, 놀이,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반응을 면접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들은 대체로 코로나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초기 보육 기관에서 배운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에 과도한 상상을 추가하여 이를 공포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TV 등의 뉴스매체,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코로나의 치료방식이 다른 질병 치료와 다르게 격리를 포함하며 치료자의 복장이나 의료 공간이 낯설어 이에 대해서도 공포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질병 예방법에 관하여 이들은 예방 원리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낮았지만 매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부정적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유아들은 코로나19 이후 관계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유아들에게 전달되어 오히려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심리적 고통이 자신의 탓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과 관계에서도 교사의 달라진 모습을 언급하며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다는 소망을 가장 많이 언급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진주희와 김민진(2022)의 연구에서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정서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유아들은 코로나19가 무엇이며 예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전파 경로나 증상,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슬픔,

괴로움, 혐오,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은 높이 경험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포와 고통스러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정서조절 및 유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부모의 양육이나 환경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이탈리아의 Spinelli, Lionetti, Setti와 Fasolo(2021)¹⁶⁾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가정 내 다양한 변인들을 가정하고 조사하였다. 2~14세의 자녀를 둔 81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 봉쇄로 인한 어려움, 가정 혼란 수준,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 아동 정서조절 역량을 보고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이전보다 낮았지만,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코로나19 시기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가정 혼란과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즉, 가정 내 혼란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매개되어 아동의 정서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기 가정 혼란을 경험하고 양육에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은 자녀의 활동에 덜 관여하였으며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증가시켰다.

Shorer와 Leibovich(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적응은 그들의 부모의 정서적 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증명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2세에서 7세 35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고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과 유쾌함(playfulness)을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가장 빈번한 스트레스 증상은 불안함, 안절부절, 공격성 그리고 격리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은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전 매개했으며, 부모의 유쾌함은 자녀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정서적 유능성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덧붙여 Morelli, Cattelino, Baiocco, Trumello, Babore, Candelori 그리고 Chirumbolo(2020)는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부모의 심리적 고통 및 정서조절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조사하여 부모의 정서조절 관련 자기 효능감이 양육 효능감을 매개 하여

16)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01713/full>(인출일: 2022년 9월 2일).

아동의 자기조절 및 부정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 과업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다는 부모의 신념과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적 안녕에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갈리시아의 5-9세 아동 8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팬데믹 전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양육자의 태도를 함께 측정하였다(Domínguez, Romero, Fraguera, & Triñanes, 2020). 그 결과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동의 코로나 이전 정서조절 능력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코로나19 시기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아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조절 능력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이끄는 데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정서적 반응 및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영유아들이 코로나 시기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정서적 유능성과 관련된 발달적 지표들이 뒤처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이 시기 영유아의 정서적 안녕감과 유능감의 발달에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

나) 사회적 유능성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삶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마스크 의무적 착용이다. 언어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는 타인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정서 표현의 핵심 단서들이 존재하는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은 영유아기 안정 애착이나 사회적 미소, 얼굴 모방, 낯선이 불안같이 얼굴 단서들에 의존하는 발달적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한다(Green, Staff, Bromley, Jones, & Petty, 2021). 또한 영유아는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 또래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사

회정서발달의 과업을 이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들은 이를 제한하여 발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harney 등 (2021)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과 같은 방역 조치 또한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다(Charney et al., 2021). 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의사소통의 근본이 되는 사회 인지능력,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몇몇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Parada-Fernández와 동료들(2022)¹⁷⁾의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정서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는데, 20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쓴 이미지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정서 인식 수준을 검사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놀라움을 제외한 다른 정서, 즉, 분노, 행복, 슬픔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얼굴 인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했을 때, 모든 시스템에서 마스크 착용의 유의미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에 대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Damer et al., 2021).

인도네시아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의 미취학 아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비교하였다(Pujiastuti, Hartati, & Wang, 2022). 자카르타, 욕야카르타, 자와바랏에 거주하는 만 3~6세의 미취학 아동 546명의 선생님에게 아동의 자기조절,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역의 유아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자기조절, 정서 및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영역 모두에서 팬데믹 후의 점수가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했을 때도 아동의 팬데믹 전후 사회적 유능성 점수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은 팬데믹 후 아동들

17) [225](https://watermark.silverchair.com/peds_2020016824.pdf?token=AQECAHi208BE49Ooan9kkhW_Ercy7Dm3ZL_9Cf3qfKAc485ysgAAAqcwggKjBgkqhkiG9w0BBwagggKUMIICKaIBADCCaokGCSqGSIb3DQEHAATAeBgIghkgBZQMEAS4wEQQM7sG4NjecvhSh6kJrAgEQgIICWiRNCOP6_VJVMkDIWySreaVYHqfsXKF0K-gFtwWFskqXiM6qIH04w6HPPJSwDraLYwSw4jMiQP7IA3CnDoB0bbcbCmYVuqtrn_0ynR54lfqYzUPQc1DqHS1JPgvzGeatB9KyP_-KFP3yFEF03rHPFgkFvz1Bba13HduR8auLzNiTT3S5nAVrzkkPGySdUaOK_ONUikdgbBbUenzjKcbVXiEXoSrsbPrBirjAvyh5oMdoVyUYWTGFZeji0ySl7LxfEL13slMYaxiNEsLcWR62vkYQ31u3kQByKRRrZVQd9pazrWF7v6jn-7_cmlIvtcvYZNU9rRYP5V4Ch1WWumFV(인출일: 2022년 9월 2일).</p>
</div>
<div data-bbox=)

이 놀이 친구의 부족으로 정서 및 표현에서 취약했으며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껴 내성적으로 보이거나 침울함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정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놓쳐 대인 관계적 유능성 또한 낮아진 것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가령,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공격성이 증가되는 기제를 밝혀, 팬데믹의 위기가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 행동을 조절하는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하정빈, 김영희, 2022). 이들은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210명, 어머니 216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증상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그리고 유아의 정서적, 외현적 공격 행동을 측정하였다. 심리 통제란 자녀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자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표현을 제재하고 자녀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협박을 의미하며, 행동 통제란 일관되고 확고한 훈육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자녀의 일상생활,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훈육하는 자녀 양육법을 의미한다(Barber, 1996). 연구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심리적 증상이 높을수록 심리통제가 높아지고 행동 통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 통제가 높고 행동 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문제 및 외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심리적 취약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행동을 이끌어 유아의 대인관계적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됨을 밝힌 것이다.

최근 한 국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일상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자신의 심리적 증상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홍예지(2022)는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15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외로움,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외로움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인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이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시기 일상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어머니의 외로움과 인지적 유연성이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증폭시켰음을 밝혔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19 시기 새로운 일상 경험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 내 양육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다) 심리적 적응 및 문제 행동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심각한 적응의 문제는 발달적 진단과 판별이 쉽지 않아 아직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여 년 전 SARS 등 감염병 대유행 시기 격리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나타낸 결과가 보고되었다(Sprang & Silman, 2013). 이러한 결과와 앞서 기술된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정서 반응 및 사회인자나 대인 관계적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유아들에게 코로나19 시기의 재난 경험이 심각한 심리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코로나19 시기, 프랑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대적 종단 연구가 이를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Moulin et al., 2022).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조치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20년에 8-9세 아동 4,575명의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이 5세일 때와 9세일 때의 심리적 증상(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을 묻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심리적 증상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아동들은 집중이 어렵고 안전부절못하고 과도한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는 과활동성/부주의 증상이 높아졌으며,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심한 걱정, 불행, 침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서적 증상들이 증가함을 밝혔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자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있다. 가령, 김성현(2022)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을 함께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204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을 측정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낮추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현(2022)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 시기 아동의 심각한 문제행동 또한 부모의 특성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이로 인해 불안 및 우울한 경험하는 경우, 자녀의 욕구에 반응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훈육방식 등 부정적 상호 작용뿐 아니라 심한 경우 학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McPherson, Lewis, Lynn, Haskett, & Behrend, 2009).

나아가 많은 연구자는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미디어 사용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어린 아동들에게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나타나 중독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Wijaya, Bunga, Kiling, 2022), 연쇄적으로 수면 문제(Kahn, Barnett, Glazer, Gradisar, 2021), 행동(Shinomiya et al., 2021) 및 정서적 문제(Monteiro, Rocha, & Fernandes, 2021) 등 심리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부적절한 미디어 사용이 영유아기 아동의 문제적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Pedrotti, Mallmann, Almeida, Marques, Vescovi, Riter, 그리고 Frizzo(2022)는 브라질의 3세 이하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영아와 걸음마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어머니의 미디어 사용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는 걸음마기(12개월 이상)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어머니 자신의 사용 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아동에게 미디어를 제공하는 의도를 증가시키고 자녀의 사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잇따른 연구들은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의 부모들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더 취약하였음을 증명했다(Bai et al.¹⁸⁾, 2020; Del Boca et al., 2020; Marchetti et al., 2020).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문제의 관련 요인

앞 절에서 기술한 영유아기 사회정서 발달적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브론펜브루너의 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개인이 속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

18) <https://assets.researchsquare.com/files/rs-22686/v1/d8755eff-b94e-4c3c-95f3-a42e4c09406c.pdf?c=1631833338>(인출일: 2022년 9월 2일).

어 있다(Bronfenbrenner, 2007). 팬데믹의 발생은 부모와 가정으로 이루어진 미시적 체계에서부터 모든 수준의 아동 발달 환경 체계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중 몇몇은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보다 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은 아동의 생활 환경 내에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접촉을 증가시켰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이나 기존에 낮은 경제적 수준에 속했던 가정의 아동은 심리적 적응과 발달에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사회정서의 문제적 발달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원거리 교육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증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육기관은 문을 닫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원거리 교육을 실행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증가시켰다. 아동전문가들 사이에서 온라인 학습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유아기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 학습에 비해 온라인 교육은 교사의 기술적 조작 능력과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을 모니터링하며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Gayatri, 2020). 갑자기 실시된 온라인 원거리 교육상황에서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 아동은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 앉아 있어 신체적 활동시간은 감소하였고, 수면 시간은 불규칙해졌으며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내용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들이 나타났다(Giménez-Dasí et al., 2020; Guan et al., 2020; Lau & Lee, 2020; Wang et al., 2020)¹⁹⁾. 무엇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영유아기 미디어 시청이 정서 행동 문제와 관련됨을 증명하고 있어(Özmert et al., 2002; Twenge and Campbell, 2018; Zhao et al., 2018),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취약함은 사회적 봉쇄 및 거리두기에 의한 원거리 미디어 학

19)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590463/full>(인출일: 2022년 9월 1일).

습에서 유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Guan 등(2020)의 연구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아동의 신체활동은 59%가 감소하였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66%, 비디오 게임 시간은 35%, 스크린을 보는 시간은 81%가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들은, 과도한 미디어 사용이 영아의 수면 문제(Kahn et al., 2021)²⁰⁾, 행동 문제(Shinomiya et al., 2021), 행동적 및 정서적 문제(Monteiro et al., 2021)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Monteiro, Rocha, 그리고 Fernandes(2021)는 코로나19 시기 스크린 시간의 증가에 따른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포르투갈의 6개월에서 6세에 해당되는 영유아의 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봉쇄 전후 자녀의 화면(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기기) 노출 시간과 사용 방식 그리고 다양한 사회, 정서, 행동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영아용(BPSC), 유아동(PPSC) 증상 체크리스트(Perrin et al., 2016)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시기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18개월 이후 유아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코로나 시기 스크린 노출 시간의 증가는 전반적인 사회정서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와 주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다행히도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부모가 함께 참여했을 때(가령, 영상을 함께 본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측면에 유의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디어 시간과 문제 간의 관련성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코로나 시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부모 역할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한편 교육자들은 영유아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미취학 아동의 사회정서적 학교 준비(school readiness)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Bratanoto, Latiana, Forma 그리고 Pranoto(2022)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시기의 원격 학습이 영유아기 아동의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학습을 경험했고, 초등학교를 2021~2022년에 입학한 326명의 학생의 부모와 34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

20) file:///C:/Users/user/Downloads/children-08-00168-v2.pdf(인출일: 2022년 9월 1일).

상으로 유아의 학교 준비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과 교사들은 아동이 소근육 운동기술, 동기, 도덕, 인지 기술, 언어 기술은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하였지만, 사회적 기술, 대근육 운동 기술, 정서적 기술 및 예술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저자들은 원거리 학습으로 인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 기술을 익히기 어려웠으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부모는 규칙과 습관들을 충분히 지키지 못해 아동은 독립심 및 책임감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팬데믹 동안 발달하지 못한 또 다른 능력은 대근육 운동기술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는 아동의 감염을 염려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노는 것보다는 가정 내에서 컴퓨터나 다른 전자 게임기 앞에서 노는 것을 선호했다(de Figueiredo et al., 2021)²¹⁾. 이것이 아동의 대근육 운동을 적게 자극하고, 신체적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의 1-5세 아동의 양육자 631명에게서 봉쇄 전후 운동시간과 가정환경 특성에 대해 조사한 Jáuregui, Argumedo, Medina, Bonvecchio-Arenas, Romero-Martínez, 그리고 Okely(2021: 3)의 연구는 아동의 신체 활동이 25% 감소했고, 스크린 타임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수면의 질은 17%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원거리 학습으로 인하여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소근육은 발달시켰지만 대근육 활동은 감소되어 신체 운동 능력은 감소한 것이다. 아동기 놀이와 신체적 활동이 정서조절을 포함한 유아기 전반적 발달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Yogman et al., 2018)을 고려했을 때, 원거리 교육에 의한 스마트기기 사용의 증가와 신체 활동의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취약한 발달에 주요 요인임을 가늠하게 한다.

나) 양육자의 소진 및 스트레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아동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미시적 체계의 사회적 요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일상생활 또한 무너졌으며 새로운 변화에 의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직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는 가사 노동의 증가, 가정 내 양육 책임과 시간의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1)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0278584620304875?token=A9C96083434796F5F641B7ECDA9FF429A4AF03EE9F587783DFED264A5CEF3D93DEF07C8B7B4F932A7738BB6590ECD6A1&originRegion=us-east-1&originCreation=20230130075205>(인출일: 2022년 9월 2일).

등으로 이어져 부모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Mazza et al., 2020)²²⁾.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부모들은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호소하였으며 부모 효능감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신적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짐을 경험하고 있다(Wu & Xu, 2020).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은 재택업무 등으로 가중된 육아와 일의 책임감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이유경, 이현주, 2021).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은 가족 내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올바른 양육 행동이 지속되기 어려워지게 하여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위협할 수 있다(Sprang & Silman, 2013). 실제로 이러한 제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기도 하였다(Spinelli, et al, 2020)²³⁾.

미국의 Covid-19 시대의 스트레스 연구(Canady, 2020)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부모(6.7, 스트레스 최고점 10점)는 자녀가 없는 성인(5.5)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높았으며 부모 10명 중 7명이 자신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정부의 대응, 거리두기 그리고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일으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강정원, 정윤경, 권미경, 2022; 배은정, 박경자, 2021).

부모의 취약한 정서 상태는 영유아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Barth & Parke, 1993)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19 블루 현상이 확산되면서, 아동들이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노출된 악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지고 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재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건강이 악화된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거나 학대를 가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atrick et al., 2020; 조숙인, 2020)²⁴⁾

22) file:///C:/Users/user/Downloads/ijerph-17-03165-v2.pdf(인출일: 2022년 9월 3일).

23)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01713/full> (인출일: 2022년 9월 3일).

24) https://watermark.silverchair.com/peds_2020016824.pdf?token=AQECAHi208BE49Ooan9kkhW_Ercy7Dm3ZL_9Cf3qfKAc485ysgAAAgwggKkBgkqhkiG9w0BBwagggKVMiIckQIBADCCA

앞 절에서 기술된,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팬데믹과 봉쇄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 행동의 붕괴로 설명되었다(Spinelli et al., 2020)²⁵⁾. 6-13세 아동의 부모 277명을 조사한 Morelli, Cattelino, Baiocco, Trumello, Babore, Candelori, 그리고 Chirumbolo(202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부모 자신의 정서적 조절에 대한 신념과 양육 효능감에 매개 되어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정적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코로나 시기 부모의 스트레스와 신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김성현, 2022).

이외에도 최근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 앞서 기술된 하정빈과 김영희(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시대의 부모의 심리적 증상은 심리통제를 포함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행동을 유발시켜 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과 박완주(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코로나 감염 불안이 양육 스타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통제적 양육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지영, 최림, 성지현(2022)은 코로나19 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 환경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 중국 모두 어머니의 양육시간이 증가하였으나 한국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중국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ooGCSqGS1b3DQEhATAeBglghkgBZQMEAS4wEQQMA9DBErgykEgAdxvpAgEQgIICW4fjvasc5hs_7_47dQCRr_B5F43Q51-kRUHt4Aujo0KPKF1oNhyQIXDfgCGwnLy3PR33HpD4U655ms9lguYpxPJbE-B5xpZ4Q7fDz5hTD4sxYSygFNW_mOFFnQZ8mWuVT1O8Nsl-7zUblaLSx33HQfQu1eHGy1fQUQGIVl6ovsJvWVV5jKktbLreZ-YVY8Kd1dFaSJtTmi7QOTVnHgAu5NVv3iMmXSik aXX0W5lq5K2Tm8de2sEv1JOXsCei5obSuezVKIHgyYGjn1sfrrAZsbWspNHdy6dQ4aVNSahVp PSMhZMRmpVEzVqn8a5L7-SnzAZW63cHEPRxHx9YK-d2HF-UPNRwdQKl6jSKq73F4UGNgH5hwMWHqjib7YRGgdMGGbYPs3yyzUP9JdrKyv0Widmnh3hVXdPmlw_soBUEXyXQIRoAxpL9hqzj4Fayf6VGvXnt_0agRK6KZj5okliFMK2nuxrEai4dZzxWW5P1nF99IfjsMsbAVqJZqeV17az1KjdwtE8rzhU0KrMjvew-GUOvhVf77eDYbZSrK9QbMZAOGxlhVSe9nN34BO5yUJNj8llwofYKaC7BkW-LaxZE8z39QbWqdVnMSmOaQxapuVNkCJTIBfoGGtJdTixe2JF-wgz9HSuNDx_DNXKZWifDkZV62JY4mcAcyFok83NpN6Vh4SmoEBGnvevoNlcVTew90dhwOLTYCTrNDQFGzDbum3r4E88sC8jdEWRD1sr77ISDsRIDmSQ-nffewT36758E-EWgE3vjFhQKAUfa0s8yjYnnikm3U8qihOvA(인출일: 2022년 9월 2일).

25)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584645/full>(인출일:2022년 9월 1일).

다) 사회경제적 수준

경제적 취약성은 그것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된 것이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이든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의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이는 문제의 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조절 요인이기도 하다. Doyle(2020)은 코로나19 시기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자원과 시간의 제약이 더욱 심해지며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유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봉쇄에 따른 학교의 폐쇄는 발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정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정의 어려움은 더욱 증폭된다. 게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감소시켜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동일한 피해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국내의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인 가구와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돈, 문혜진, 2021),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독박 육아, 온라인 수업 관리에 따른 부담 증대, 자녀와의 높은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기관의 혼돈과 부재에 따른 불안감을 강하게 경험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2022).

해외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앞서 기술된 Spinelli 등(2021)²⁶⁾의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가정에서만 봉쇄가 양육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 조절 능력에 대한 영향력의 증폭시켰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폐쇄 기간 동안

26)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01713/full>(인출일: 2022년 9월 2일).

아동의 정신건강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간의 연관성을 알아본 프랑스의 종단 연구에서(Moulin et al, 2022)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당시에 9세인 아동 4,575명의 아동들이 0-5세 때의 가정의 정보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적응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학교폐쇄 기간 동안 아동의 ADHD 증상의 상승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미하게 관련을 발견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위험을 증폭시킴을 증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소된 수업과 아동의 과활동성 및 부주의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정신 건강이 재정적 위기와도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Jáuregui와 동료들(2021)²⁷⁾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 따른 멕시코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신체 운동 수준의 감소량을 조사한 결과, 국가 표본에서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에게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할 수 있고 장난감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전자 장치에 대하여 부모가 규제와 교육을 하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적음이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시기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봉쇄가 저소득층 영유아들의 신체적 활동에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국내외의 축적되는 연구들은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 양육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감염의 위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아 어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속되는 종단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7) <https://www.sciencedirect.com/sdfe/reader/pii/S2211335521002424/pdf>(인출일: 2022년 9월 2일).

부록 4.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정책

가. 시도청

- 서울특별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2021-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아동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및 전문 지원 강화 - 어린이집 감염병 위험 대응력 체계화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가정 양육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완화, 긴급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마을단위 공동육아 지원 확대, 인권존중 보육환경 내실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력 강화 - 보육의 구조적·과정적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영유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만0~5세 영유아	

자료: 1)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 부산광역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부산광역시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 - 우리아이 보육맘 운영 -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운영 - 워드코로나시대 비대면 가정양육지원 사업 강화 -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 아빠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만0~5세 영유아	

자료: 1) 부산광역시(2022. 2). 부산광역시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 광주광역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 가족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 상담 등 모든 가족 대상 통합 서비스 강화 		

자료: 1) 광주광역시(2022. 7. 27).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대전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전문지원체계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교육 추진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지원 사업 전면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복지 연계모형 개발 연구 추진 - 대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 주민참여형 돌봄사업(복지만두레) 추진 - 긴급돌봄사업 추진(코로나19 및 사고,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돌봄인력 파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만0~5세 영유아	

자료: 1)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2). 2022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 충청남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아동 발달평가 지원,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자연놀이들), 아동건강관리 지원(소아당뇨 등)) - 가정양육지원체계 강화(가정 양육수당 지원, 수요와 맞춤형 다양한 돌봄 지원-24시간제, 시간연장, 아이돌봄 등 서비스 연계, 충남형 부모교육 추진(부모교육 스마트 이력제 구축),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만0~5세 영유아	

자료: 1) 충청남도(2022. 8. 12). 출산보육정책과 주요업무안내.
2) 충청남도(2018.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 - 2022).
3) 충청남도(2020).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2021-2025).

- 강원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아동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돌봄센터 월~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표준 운영시간 : 학기 중 14:00~19:00 / 방학 중 09:00~18:00(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이용료 최대 10만원범위 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프로그램비 포함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이면 누구나	

자료: 1) 강원도청(2022. 8. 12). 아동양육지원, 아동돌봄지원 홈페이지 인출.

- 경기도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첫해 3천 700명 신청...329명 치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지원 서비스. - 2021년 3월 시작해 12월까지 3,711명 지원 요청. - 비대면 상담 3,102건, 대면 상담 1,162건 수행. 언어·발달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 연계 지원한 영유아는 329명. 	언어 및 발달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공동체 19곳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12개 시·군, 19곳 선정 -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추진 	관내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돌봄공간 시설 공사비(자산취득 포함)' 최대 5천만 원, '프로그램 사업비' 3년간 최대 6천만 원

자료: 1) 경기도청 보도자료(2022. 1. 20). 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첫해 3천 700명 신청...329명 치료 연계.
 2) 경기도청 보도자료(2022. 4. 3).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공동체 19곳 선정.
 3) 경기도청 보도자료(2022. 3. 2). 도, 3월부터 돌봄시설 이용 아동 대상 숲 체험 사업 재개.

- 경상남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저출산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정 전염병 ** 감기·눈병 등	(기본) 11,860원/시간

자료: 1) 경상남도(2022. 8. 9). 경상남도홈페이지 인출.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보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84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200시간 이내) -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유행성)질병 감염된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유형</th> <th rowspan="3">소득기준 (4인 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8">시간제</th> <th colspan="2">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th> </tr> <tr> <th colspan="4">기본형(시간당 10,550원)</th> <th colspan="4">종합형(시간당 13,720원)</th> <th rowspan="2">정부 지원</th> <th rowspan="2">본인 부담</th> </tr> <tr> <th colspan="2">A형</th> <th colspan="2">B형</th> <th colspan="2">A형</th> <th colspan="2">B형</th> </tr> <tr> <th>정부 지원</th> <th>본인 부담</th> <th>정부 지원</th> <th>본인 부담</th> <th>정부 지원</th> <th>본인 부담</th> <th>정부 지원</th> <th>본인 부담</th> <th>정부 지원</th> <th>본인 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75% 이하</td> <td>8,968 (85%)</td> <td>1,582 (15%)</td> <td>7,913 (75%)</td> <td>2,637 (25%)</td> <td>8,968</td> <td>4,752</td> <td>7,913</td> <td>5,807</td> <td>8,968 (85%)</td> <td>1,582 (15%)</td> </tr> <tr> <td>나</td> <td>120% 이하</td> <td>6,330 (60%)</td> <td>4,220 (40%)</td> <td>2,110 (20%)</td> <td>8,440 (80%)</td> <td>6,330</td> <td>7,390</td> <td>2,110</td> <td>11,610</td> <td>6,330 (60%)</td> <td>4,220 (40%)</td> </tr> <tr> <td>다</td> <td>150% 이하</td> <td>1,583 (15%)</td> <td>8,567 (85%)</td> <td>1,583 (15%)</td> <td>8,967 (85%)</td> <td>1,583</td> <td>12,137</td> <td>1,583</td> <td>12,137</td> <td>1,583 (15%)</td> <td>8,567 (85%)</td> </tr> <tr> <td>라</td> <td>150% 초과</td> <td>-</td> <td>10,550</td> <td>-</td> <td>10,550</td> <td>-</td> <td>13,720</td> <td>-</td> <td>13,720</td> <td>-</td> <td>10,550</td> </tr> </tbody> </table>	유형	소득기준 (4인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		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	75% 이하	8,968 (85%)	1,582 (15%)	7,913 (75%)	2,637 (25%)	8,968	4,752	7,913	5,807	8,968 (85%)	1,582 (15%)	나	120% 이하	6,330 (60%)	4,220 (40%)	2,110 (20%)	8,440 (80%)	6,330	7,390	2,110	11,610	6,330 (60%)	4,220 (40%)	다	150% 이하	1,583 (15%)	8,567 (85%)	1,583 (15%)	8,967 (85%)	1,583	12,137	1,583	12,137	1,583 (15%)	8,567 (85%)	라	150% 초과	-	10,550	-	10,550	-	13,720	-	13,720	-	10,550										
유형	소득기준 (4인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																																																																															
				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	75% 이하	8,968 (85%)	1,582 (15%)	7,913 (75%)	2,637 (25%)	8,968	4,752	7,913	5,807	8,968 (85%)	1,582 (15%)																																																																																
나	120% 이하	6,330 (60%)	4,220 (40%)	2,110 (20%)	8,440 (80%)	6,330	7,390	2,110	11,610	6,330 (60%)	4,220 (40%)																																																																																
다	150% 이하	1,583 (15%)	8,567 (85%)	1,583 (15%)	8,967 (85%)	1,583	12,137	1,583	12,137	1,583 (15%)	8,567 (85%)																																																																																
라	150% 초과	-	10,550	-	10,550	-	13,720	-	13,720	-	10,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나눔터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 지원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2022. 7. 18). 임신·출산·영유아 건강·보육·다자녀 서비스 지원 안내.

나. 한국보육진흥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확보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함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	65억 6200만원 (국비+지방비)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 특별돌봄 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총 1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 -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상황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 아울러,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 	어린이집 영유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방법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9월부터 비대면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 - 비대면 부모교육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20.9월 기준 101개소)에서 ① <집에서도 놀자!>, ② <놀이를 부탁해>, ③ <놀자! 알자!>의 3가지 과정으로 운영 <p><집에서도 놀자!>는 온라인 부모교육* 및 관련 놀이키트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낮가림, 애착물, 떼쓰기 등 흔히 있는 육아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부모·자녀가 함께 보면서 아동의 발달 특성 등을 이해하고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p>	가정양육 영유아	
코로나 10 유형 속 숨겨진 위기아동 적극 발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 높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위한 대책 논의 - ▲위기아동 조기발견, ▲정책 실효성 제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국민 인식 개선 등 주요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위기아동 집중발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응 대응 지침 11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유행 정점을 지나 점진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등 달라진 방역 및 검사·치료체계에 따라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로의 전환 필요 - 기본 방역체계(발열검사, 환기, 소독 등)는 유지하되, 접촉자 관리 등 어린이집 자율성 확대 -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별활동 중심에서 원내 특별활동·집단행사·집단교육 등 보육활동 정상화 도모 - 확진자는 격리 권고 등 해당 기간동안 등원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1)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출근)이 중단되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등원(출근) 가능 등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등원(출근) 기준 완화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 -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 	시간제보육 이용희망 외국인아동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9. 15).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9. 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26).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8. 11).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31).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12). 코로나 10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적극 발달한다.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7. 29).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9) 보건복지부(2022. 5. 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1판.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28).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검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도내 검진기관 원주의료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만0~5세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자료: 1)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2. 6. 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년 경기도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위험유아에 대한 조기선별 및 치료연계사업 - 영유아 공적상담서비스 지원 	장애위험 영유아	

자료: 1)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2. 8. 8). 홈페이지 인출.

라. 시도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콘텐츠 활용,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 EBS 방송 등 유치원 여건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등원이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만3~5세 유아	
방과후 놀이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손 회복을 위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쉼 중심 방과후 과정모델 운영 - 공사립유치원 8개원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1. 3). 2022 서울유아교육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 유치원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으로 편성·운영 -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원칙 -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최소 18시까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 우선 보장 - 학부모 수요 및 유치원별 수용 여건에 따라 참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373,800 - 남부 478,200 - 북부 600,000 - 동래 439,800 - 해운대 535,200 총 2,427,000 지원

자료: 1) 부산광역시교육청(2021. 12. 21). 2022 부산유아교육계획.

2)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3. 28). 2022.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계획.

3)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3. 18). 2022유치원방과후과정내실화계획.

4)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3. 18). 2022유치원교육과정내실화계획.

-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원격수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학급 등) 등원이 중지될 경우, 유치원(학급 등)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며, 원활한 전화를 위해 사전 원격수업 계획 마련 및 학부모 안내 -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매체, 우편물 등을 활용한 '유아·놀이 중심 원격수업' 운영 - 유·무선을 통해 유아의 건강 및 놀이상황을 원칙적으로 당일 확인하되, 3일(수업일 기준 휴업일 제외) 내 최종 출결 확인 - 등원이후 유치원 구성원이 협의하여 필요 시 해당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료 제공 및 심리·정서 상담을 통한 유치원 적응 지원 	만3~5세 유아	
놀이 문화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 지원 - 놀이꾸러미, 디지털 역량, 온라인교육콘텐츠,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 		

자료: 1) 울산광역시교육청(2022. 3.), 2022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유치원 구성원과 함께 원격수업 계획 수립·운영 -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운영 ※ 원격수업 :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 EBS 1·2 채널, 교육청 또는 충청남도 교육청유아교육원 누리집, 유치원 제작 자료물 등 	만3~5세 유아	
놀이와 심이 존중되는 방과후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 지정·운영 - 공·사립 유치원 대상 운영 확대(40개원) - 유아의 언어·정서·신체 발달 지원을 통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자료: 1) 충청남도교육청(2022. 2), 2022 충남 유아교육계획.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학년도 세종아이다움교육 과정_유치원 세종창의적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생태교육 - 안전교육 - 미래교육 - 세계시민교육 - 세종꿈마루교육 - 유·초연계 아이자람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유치원환경교육 	만3~5세 유아	

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2022. 8. 3 인출).

<https://www.sje.go.kr/sje/cm/cntnts/cntntsView.do?mi=52274&cntntsId=35468>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도자료(2020. 12. 29). 코로나 시대, 2021년 '세종교육' 로드맵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1. 11.). 2022학년도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_유치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 전라북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꾸러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물자료 제공 - (실시간 쌍방향 소통) 놀이소개, 놀이 상황 공유, 유아의 건강 상태 확인 등으로 활용 - (교육청·진흥원 콘텐츠) 누리과정포털(i-nuri), 교육청(진흥원) 누리집 등 탑재 콘텐츠 - (교육 방송 콘텐츠) EBS TV, 유튜브 클립 영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콘텐츠 등 활용 - (교사 제작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놀이, 안전, 학부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활용 - (대여 지원) 유치원의 교재·교구 및 도서대여 서비스 등 제공 - (학부모 상담 및 지원) 유아 놀이의 교육적 의미, 지원 관련 학부모 역할 안내, 온라인 상담 등 운영 	만3~5세 유아	

자료: 1) 전라북도교육청(2022. 2). 2022전북유아교육계획.

- 전라남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전남교육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운영 : 온·오프 연계(블렌디드) 수업 - 온·오프라인 활용 수업 : 콘텐츠 및 동영상 자료 개발·보급 - 온라인 학습지원 체제 구축(온라인 교육 인프라 환경 지원, 온라인 수업 지원 체제 정비,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전문성 신장) 	만3~5세 유아	

자료: 1) 전라남도교육청(2022. 2). 전남교육 20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학년도 유아·놀이를 존중하는 유아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학급 등) 등원이 중지될 경우, 유치원(학급 등)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며, 원활한 전환을 위해 사전 원격수업 계획 마련 및 학부모 안내 -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매체, 우편물 등을 활용한 '유아·놀이 중심 원격수업' 운영 -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배부, EBS '우리집 유치원'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누리과정 포털을 통한 콘텐츠 공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 	만3~5세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월) - 사립 : 15만원 이내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해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 대해 치료 지원 및 개인별 치료비 지원(월12만원 이내)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2. 1. 25). 2022학년도 유아·놀이를 존중하는 유아교육 운영 계획.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